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7월 9일 수요일 (주간) 제 429 호

종파초월 종교간 대화

27일 태국서 국제회의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모여 종교와 지구화에 대한 초교파적 대화를 나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종교와 세계화에 대한 종파를 초월한 국제적인 회의'에는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을 비롯 2003 참여불교 세계대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지구화 시대에 종교의 다양성과 종파를 초월한 관계 △지구화 시대에서의 종교 △지구화 시대를 위한 종교개혁과 재건 △종교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역사적 조망(사례연구) △문화 간 종교 간의 소통과 변화에서 방법론적이며 철학적인 논점들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도로 대통령이 해결을"

조계종 총무원장 · 교구본사 주지 '공약 이행' 촉구

국민대토론회 성과없이 끝나 … 12일 광화문서 범불교대회

불교계 및 환경 · 사회단체와 정부가 7년간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 그러나 결국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노선재검토위 합의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관통도로 백지화를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실종된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24개 교구본사 주지들은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법장 스님과 교구본사 주지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연과 생명, 수행환경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중립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하게 된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시절 관통도로 백지화를 불교계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에도 1,300명의 불교계 지도들 앞에서 공약이행을 재천명한 바 있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 정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중대한 항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조계종 공대위는 1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의 반불교 행위 규탄 및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 촉구 범불교대회'를 개최하고 노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6월 30일 총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대안노선 검토지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총리의 책임과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관계자의 문책이 있을 때까지 저항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6월27일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관련기사 5 · 13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공약을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원각사지 인근 대형 오피스텔

출토 매장문화재 신고않고 공사강행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땅 속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도 건축공사가 강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3일 사적 354호인 서울 종로구 원각사지에서 16m 떨어진 곳에 신축되고 있는 대형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9층) 건축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신고의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화재보호법 43조(발견신고)에 따르면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포크레인으로 장대석과 초석을 퍼내는 장면과 야간에 몰래 이를 실어 나르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세계 연꽃축제 개막

상록리조트(사장 김건희)가 개최한 제1회 세계연꽃축제가 6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 오른쪽 첫번째) 심대평 충남도지사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9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연꽃축제에는 350여종의 연꽃 1200여점이 전시된다. 사진 오른쪽 세번째부터 장응철(원불교교정원장), 성무용(천안시장), 법혜 스님(충남 종교인협의회장), 김광삼(현대불교신문사 사장), 서정만(현대불교신문사 이사). 연꽃축제 관련기사 32면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불교유적의 걸작 앙코르 와트가 숨쉬는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제3의 도시 시엠립을 가로지르는 시엠립 강에 놓여진 회색 아치형의 다리를 이곳 사람들은 '한국 다리' 또는 '조계종 다리'라 부른다.

캄보디아에 '조계종 다리'가 세워진 것은 지난 2001년. 이 다리는 수도 프놈펜과 시엠립 인근에 위치한 앙코르 와트를 연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도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조계종이 이 다리를 놓아주게 된 것은 국민의 80%가 불교신자인 캄보디아의 경제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줌으로써 불교 형제국가로서의 우애를 나누자는 뜻에서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2일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에 모인 각 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5월 막대한 규모의 수재를 입은 스리랑카를 돕기로 뜻을 모았다. 총무원이 전국 사찰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교구본사들이 동참키로 함으로써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는 훨씬 더 활기를 띠게 됐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스리랑카 불자들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불자들이 도움을 주자"며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조계종 다리'를 말하곤 한다고 전해진다. 이곳에 몇십 십개의 한국 사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포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돕는 불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리랑카에 또다른 '조계종 다리'가 세워지길 기대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전주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8월 4일부터 인터넷 · 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3차 교육이 전주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정: 2003년 8월 4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교육장소: 전주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63-230-2821)
▦수강료: 무료(교재비 6천원 본인부담)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전북지사
지사장 조기식 063-255-2274
▦모집 인원: 15명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 가자!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적멸보궁 참배하며 신심도 키우고

7월 22~24일
사자산 법흥사 · 백덕산 관음사

◆일 정: 2003년 7월 22일(화)~ 7월 24일(목) 2박3일
◆장 소: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 백덕산 관음사 일대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의전화: 02) 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717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 7월 22일 오전 10시 종로 조계사 앞



※도 착 : 7월 24일 오후 6시 종로 조계사 앞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한마음선원

"불교흥망 스님들에 달려있다"

법장 스님, 주지연수회서 수행자 본분 강조

"불교가 흥하고 망하고는 스님들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 밖에 다른 결론은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3일 중앙승가대에서 시작된 올해 본 · 말사 주지연수회에서 치사를 통해 "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치문>에 나오는 장로자각선사 '귀경문(龜鏡文)'의 한 구절인 '법문흥폐(法門興廢)…승중법중(僧重法重) 승경법경(僧輕法輕)'을 인용하며, 거듭 '철저한 수행자의 본분'을 역설했다.

이 말은 '불교가 흥하고 망함이 승려들에게 달려있다. 승려들이 진중하게 행동하면 불법도 진중해지고, 승려들이 경거망동하면 불법도 경멸당한다'는 뜻이다.

한국불교(조계종)가 이 사회와 중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도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도'가 아닌 '우리 자신'(스님들)의 안일과 나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참여정부 국무총리실의 반불교 행위 규탄 및 북한산관통노선 폐기 촉구 범불교도 대회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7월 12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 **주 최 : 불교평하 국무총리실 규탄 범불교 비상대책위원회**
자연환경 보전과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의 훼불행위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전 종도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원로회의의 유시를 받들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하고, 자연과 생명 그리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해왔다. 북한산 관통로를 뚫는 행위는 영산의 정기를 끊어 민족혼을 죽이고, 한국불교의 수행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훼불행위와 다름없다는 원로회의 유시에 따라 자연과 민족문화를 애호하는 시민환경단체들과 더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불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불교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훼불행위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훼불행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정을 부여받은 국무총리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일이며, 그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불교계 제1공약으로 약속하였고, 당선후에도 1,300여명의 불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공약이행을 재천명한바 있다. 이는 노무현정권이 2,000만 불자와 약속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노선재검토위원회 마저 관통을 반대하는 다수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이행되지 않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다수 의견마져도 묵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번 훼불행위와 불교계 공약 불이행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의 교구 본말사와 불자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수행자인 스님들을 비하하고 불교계를 음해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 · 유포한 훼불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전모를 밝히고 공개사과하라.

하나. 훼불을 자행하고 중립성을 상실한 국무총리실을 배제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교계 공약사항인 북한산 문제를 해결하라.

현 정부가 불자들과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교계에 대한 폄하와 훼불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의 전국 본말사와 불자들의 중대한 항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47년 7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

참여정부는 불교계 공약을 이행하고 관통노선 폐기하라! 불교 비하 관통노선 강행 고건총리 사과하라! 훼불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북한산 관통노선 폐기하라! 노선재검토위원 다수의견이다! 관통노선 폐기하라!

사 설

북한산 '관통'은 안된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노선 재조정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진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4월부터 6월초까지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으며,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노선의 최종 결정권은 국무총리실의 몫이 되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노선이 처음 검토되던 87년께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운동이 있었다. 이어 공사가 착공되자 불교계가 반대운동에 나섰다. 그러니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노선을 둘러싸고 1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이다.

문제는 어떤 방향의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인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이라는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의 다수도 북한산 관통노선은 안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동안 도로 건설은 도로기술자들이 주도함으로써 도로공학적 측면만 강조되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산은 도로로 허물어지고 강은 물길을 바꾸어야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매년 홍수로 인한 산사태와 가옥과 농경지의 침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한 참여정부에 대한 시선은 싸늘하다. 환경정책 부재, 녹색 색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개발을 하되 보전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를 가늠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국무총리실은 북한산 관통노선을 폐기함으로써 국민들과 불자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시주금 공개는 사원경제의 초석

최근 대구 파계사가 설법전 낙성법회에서 불사비용 시주자 명단과 금액, 사업비용 내역을 게시판에 공개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다. 사찰의 목적사업에 동참한 시주자의 명단과 시주금액 그리고 그 사용처를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공개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신선하게 비쳤던 것은 사찰의 불사비용 공개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찰 운영과 관련된 재정활용 내역이 공개되는 예도 그리 흔치 않다. 때문에 사찰 운영의 재정적 투명성이 전제 되지 않고는 승단과 재가 사이의 화합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다만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사보나 회보 등을 통해 시주금을 낸 신도 명단이 공개되고 월별 혹은 연도별로 살림살이를 공개하는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일 목적 사업을 위한 시주건 기도비 등의 일반 시주건 시주자의 마음은 순수하다. 물론 시주금이 중생에게 회향되게 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는 사찰의 자세도 청정하다. 이 시주자와 사찰의 순수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비리로 이어지고 '지탄 받는 불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사 내역의 공개는 청정한 재물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찰과 신도 간 신뢰의 표현이고 불사의 원력이 바르게 회향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사 내역을 공개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나아가 사찰 재정 일체를 공개하는 사찰이 늘어날 때 불교 경제도 바르게 정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 추진**

현행법 재산·환경·자율권 침해소지

현고스님, 문화재청 확대개편 등 6가지 제시

전통사찰과 불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계종이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일 서울 법련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사찰의 재산권과 환경권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 문화재 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고스님이 개선 및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확대 △문화재위원회 개편 △사찰 문화재 보수 및 정비의 소유자 주권원칙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통합한 사찰문화재 보호법 입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체제 개선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등 모두 6가지다.

조계종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개선안 통보 및 이행철저'라는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사찰의 재산권과 자율권 침해, 수행환경 훼손,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공문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수시 지자체가 공사를 주도해 실시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겨있다.

현고스님이 제시한 대응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은 '사찰문화재 보호법' 제정.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문화재청에 이관하라는 정부의 방침과 자자체에 의해 문화재 보수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는 사찰과 성보적 개념의 사찰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계종은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청 조직 개편 및 확대에는 문화재청의 차관정 승격과 문화재청 내 문화재 기술국 및 사찰문화재과 신설안이 포함돼 있다. 사찰문화재의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체제 개선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나 군이 직접 발주하거나 직영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과 '출입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재 분야별 또는 종합적으로 전문가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보수와 정비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화재청에 전통문화기능학교를 설치해 분야별 문화재 기능공을 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권역별로 25일까지 열려

조계종 본말사 주지 연수가 권역별로 25일까지 중앙승가대서 열린다.

권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열리던 연수 장소를 종립대학인 중앙승가대로 통합해 개최하는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문화재 보유사찰의 불사와 국고보조금' '신도조직의 사례 분석을 통한 모범 사찰 만들기' '남북 교류와 통일' 등의 강의와 '포교원 종책 특강' '사찰 홍보방안에 대한 안내' '종무행정안내' 등의 일정으로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권역별 일정을 보면, 지난 3~4일 서울·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정·제주권(7~8일) 연수를 마쳤으며 대구·경북권은 10~11일, 부산·경남권 15~16일, 광주·호남권은 24~25일 열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고속철노선 재검토위 활동시한 놓고

정부·시민종교대책위 마찰

금정산, 천성산을 관통하는 경부고속철 노선 재검토위원회가 2차 활동 시한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종교대책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민종교대책위가 4주로 잠정 결정된 추가 활동기간을 3개월로 늘리고 대구-부산간 직선노선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표면화됐다.

이 같은 시민종교대책위의 주장은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시민종교대책위는 "현장 답사만 해도 최소 3~4주가 필요하고, 자료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면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기한이 제한될 경우 부실한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안 노선검토위 활동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시민종교대책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경주-부산간 노선을 검토하는 재검토위의 입장을 정부가 충분히 존중하는 만큼 재검토위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재검토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원칙을 깨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프간 바미안계곡 세계 문화유산 등재

2001년 3월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대불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계곡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과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에 동시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6월 30일 파리에서 개막된 세계유산위원회 제27차 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네스코는 "아프가니스탄의 구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고대 불상들이 있는 바미안 계곡을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고의적인 불상 파괴와 같은 지극히 편협한 행위들이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프간 중부 힌두쿠시 산맥 3km에 걸친 절벽에 2000여 개의 석굴이 뚫려있는 바미안 계곡은 기원전 · 후~5세기 꽃핀 간다라 불교미술의 중심지로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 중 하나다. 권형진 기자

31대종책과제 의문제기 영담스님, 재원 조달 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이 지난 6월3일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한 31대 종책기조 및 중점 종책과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담스님은 3일 기자회견에서 "31대 종책과제 가운데 재원조달, 각종 기금조성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담스님은 △최소 800억원에서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중앙연수원, 상설행자교육원, 전통불교문화센터, 불교종합복지센터 등 4대 불사의 2006년 마무리는 무리한 계획이며 △승려노후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조성도 종단 형편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연수원설립추진위원회 등 현재 계획 중인 15개의 각종 위원회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승가학원 이사추천, 원택스님에 위임 동국학원 감사후보 보선·범여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3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48차 회의를 열고 8월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성타스님 등 5명의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에 대한 후보추천권을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원택스님에게 위임하는 한편, 동국학원 감사 후보에는 보선(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범여(선운사 주지)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건립시 5억여원의 설계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하도록 승가학원측에 소명자료를 제출됨에 따라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 · 유주 · 무주 고혼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49재 안내

제 1재	6월 29일	제 2재	7월 6일	제 3재	7월 13일
제 4재	7월 20일	제 5재	7월 27일	제 6재	8월 3일

첫 번째 49재 – 8월10일 융주사 주지 정락큰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 운 사 **도 솔 암 주지 지 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

"선불교 전통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로"

세계여성불자연합회장 쏘모 스님 방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일정 등 논의

내년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Sakyadhit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Women)의 준비상황 점검과 세부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 쏘모(Karma Lecshe Tsomo, 한국법명 혜공) 스님이 6월 30일 방한함에 따라 대회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본각 스님)는 쏘모 스님의 방한 기간 동안 대회 분과토론과 학술세미나 주제, 개최장소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쏘모 스님은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의 명예총재인 법장 스님을 예방하고, 3일 전국비구니회관을 방문해 공동대회장인 광우 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과 비구니계 원로인 진관 스님, 법운 스님 등을 만났다.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공동대회장인 광우 스님(왼쪽)과 쏘모 스님이 3일 전국비구회관에서 만나 대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국비구니 승단 위상 어느 나라보다 확고
3년전부터 대회준비, 27개국서 500명 참가

— 이번 대회 주제를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은 세계 어느 불교국가보다 비구니 승단의 위상이 확고합니다.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전통 또한 세계 여성불자들에게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회는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교육과 수행'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 8차 대회에 거는 기대는?

"전국비구니회는 3년 전부터 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전국비구니회의 결집력이나 그 역량으로 볼 때 충분히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27개국 500여 명이 참가할 8차 대회를 통해 세계 여성불자들이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배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출재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계여성불자연합회의 결성 의의와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본다면?

"1987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결성된 세계여성불자연합회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여성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만과 한국 같은 비구니 승단을 세계에 알리고 부처님의 남녀평등 사상을 전개했으며, 여성불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이로써 세계 여성불자들의 힘을 한곳에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불교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칠불통계(七佛通偈)에 담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내 안에서 진실한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다른 점일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쏘모 스님은 누구인가

美 출신 … 티베트 · 한국서 사미니 · 비구니계
대학서 종교학 강의, 세계여성불자대회 제안

쏘모 스님은 1946년 미국의 전형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19살이던 1965년 일본에서 1년간 머물며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 77년 프랑스에서 티베트 불교 전통으로 사미니계를 받았으며, 82년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범어사에서 전국비구니연합회장을 지낸 혜춘 스님을 은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혜공(慧空)이란 법명은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에게 받은 것.

1969년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하와이대학에서 아시아 지역학 석사, 비교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불교학과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1986년 여성불자들의 정보교환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세계여성불자대회를 처음 제안했으며, 87년 첫 대회를 개최하는 산파 역할을 했다. 재가 여성불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회장직을 맡지 않다가 2002년 세계여성불자연합회 회장을 맡게 됐다.

■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불교국가 법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5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실의에 빠진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8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금은 스리랑카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후원 :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성금 보내 주실 곳 : 총무원 모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55568 (재)불교중앙교원

총 33개국서 200여 개인 · 단체 활동

2003 참여불교세계대회 주요 참가단체들

2003 참여불교세계대회가 20일부터 25일까지 용인 삼성휴먼센터와 프레스센터, 임진각, 청도 운문사, 경주 불국사 등지에서 열린다. 1989년 태국의 슐락 시바락사와 일본의 테루오 마루야마 스님이 중심이 돼 전 세계 11개국 36명의 스님과 재가신도들에 의해 창립된 참여불교국제네트워크(INEB)에는 현재 총 33개국 200여 개인과 단체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해외 주요참석자를 중심으로 소개한 지난호(428호)에 이어 이번호에선 해외 주요참가단체를 중심으로 대회의 면면을 살펴본다.

▣ 불교평화교우회

1979년에 설립된 불교평화교우회는 전 세계 4천여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 방글라데시, 베트남, 티베트 등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 사상을 일깨우고 있다. 불교평화교우회는 '사회참여불교인동맹'이라는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6년부터는 미국 카이저 재단으로부터 5천달러를 지원받아 '아동의료단'을 설치,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르보다야회

스리랑카 최초의 비정부조직으로 5천여 명의 스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르보다야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리랑카 최대의 민간봉사단체. 1958년 앙가마게 투도르 아리야라트네 박사가 이끄는 스리랑카 나란다 대학 학생들이 미개발된 마을에서 시작한 소박한 교육적 실험(농촌활동)에서 시작됐다. 스리랑카 전역의 1만1300개 마을에서 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르보다야회는 농사기술, 의료시설 보급과 여성들의 자아실현,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 교육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TBMSG

TBMSG(범세계불교교단우의회, the Trailokya Ba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는 1979년 인도에서 상가락시타에 의해 출범했다. TBMSG의 조직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 없이 포용하는 근대적 불교 교단인 '범세계불교교단(TBM)' △법적으로 구성된 종교조직인 협의의 TBMSG, △'바후잔 히타이(Bahujan Hitay, 만인의 이익을 위해)'라고 불리는 사회활동 분과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져있다. TBMSG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한 포교와 사회복지 사업에만 집중하며, 그 수혜자를 불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 세계여성불자연합회

세계여성불자연합회(Sakyadiht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Women)는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설립됐다. 세계여성불자연합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증진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의 의사교환 조직망 창출 △불법을 지도하는 스승으로서 여성의 교육을 격려 △현재 비구니 승단이 없는 곳에 비구니 승단이 설립되도록 돕기 위해 창설됐다. 전 세계 27개국에 회원을 두고 있다.

▣ Think Sangha

Think Sangha는 1992년 제3회 INEB 연례회의에서 몇몇의 사상가와 이론가들이 '불교와 사회 분석'이라는 소그룹을 결성한 후, 1995년 태국에서 '참여불교를 향한 비전'이라는 이름아래 20개국 50여명이 모여 국제회의를 가짐으로써 출발했다. Think Sangha는 △현대사회에서 불교 전통수호 및 올바른 해석 △여성의 차별과 억압 △공동체와 가족 구성의 붕괴 △경제적 착취 △구조적인 폭력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날짜	내 용	시 간	장 소	참 석 자
21일	기조강연1:불교의 올바른 사상 주제별 워크숍1 출 · 재가의 올바른 관계와 역할 테라바다와 마하야나의 대화 근본불교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현대적 조명 새로운 시대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불교의 비전	09:15~11:30 13:00~17:00	용인 삼성휴먼센터 대강의실(309호) 용인 삼성휴먼센터 팀학습실	강연:슐락 시바락사, 사회:박광서 사회:데이비드 채플, 발제:하리샤 리야나게/김 성철 사회:라자 다마팔라, 발제:보디 팔라 스님/김용표 사 회:포우 바나, 발제:란자니 드 실바/혜연스님 사회: 라파판 (앤) 수판파나, 발제:신타 듀이/박성철
22일	기조강연2:불교의 사회참여 주제별 워크숍2 환경(소비주의의 극복을 위한 생명운동) 복지(긴급구호와 빈곤퇴치) 평화(종교적, 민족적, 이념적 갈등과 평화) 인권(소수종교와 소수종족의 인권)	08:00~11:30 13:00~17:00	용인 삼성휴먼센터 대강의실(309호) 용인 삼성휴먼센터 팀학습실	강연:하리샤 리야나게/법륜스님 사회:베니샤 월키, 발제: 나타롯 왕윈유/환경분과 사회:질 제임슨, 발제:로카미트라/이혜숙 사회:통 카카다, 발제:수닐 위제스리와디나/노옥재 사회:조나단 왓츠, 발제:쿤 오커/팔모스님
23일	공동행동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평화 명상) 공개 심포지움 강연1:붓다, 다르마 그리고 상가(로카미트라) 강연2:시대와 함께, 시대를 뛰어넘는 불교의 비전(술락 시바락사)	10:00 14:00~17:00	임진각 대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대회의실	참석자 전원 사회:로버트 라이온, 토론:법륜스님/통 카카다, 데이비드 샤펠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통신80명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법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7월 3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삼 화 불 교 대 학

남경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사 범 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7월 3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금강사 위령대제 천도법문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6월 25일 호국 금강사에서 열린 6 · 25 53주년 위령대제 천도 법회에서 천도법문을 했다.

일주문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성기태 대불련 총동문회장(국립 충주대 총장)은 1일 임원단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했다.



영산재 시연 첫 연꽃축제

인공 봉원사 주지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내에서 영산재 시연 등이 포함된 제1회 연꽃축제를 개최한다.(02) 392-3007



도피안사 개산제 강연회

송암 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6일 보현도량 도피안사 개산제와 도완녀 씨 초청 강연회 등을 개최했다.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양성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8일부터 경복궁역 근처 뉴호라이즌 코리아에서 제2기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은해사서 하계 연수회 개최

법타 평불협 회장은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19~20일까지 영천 은해사에서 하계 연수회를 개최한다.(02)735-5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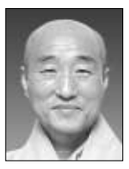


신도들 수계법회 봉행

지광 진천 보탑사 원장은 13일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서울 삼선포교원과 보탑사 신도들의 수계법회를 봉행한다.(043)533-0206

독일서 참여불교 주제발표

조성택 교수는 16~26일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열리는 '현대사회의 문화철학적 이해' 세미나에서 '참여불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태권도부 창단식 개최

일면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은 2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태권도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총장배 골프대회

홍기삼 동국대 총장은 6월 29일 경주 보문G.C에서 제 7회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 신도단체로

이선희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은 3일 조계종 포교원 산하 신도 단체 등록을 마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건봉사 복원 · 사적정리 필생의 사업

조계종 총무원장 감사패 받은 이영선 옹

올 초 혼자 힘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건봉사 관련 문헌자료와 증언들을 수집해 <금강산 건봉사 사적>을 펴냈던 이영선(75 · 사진)옹이 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개인의 원력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건봉사

"만해 스님 출가 시기 26세 아닌 19세 무렵"

의 1500여년 역사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건봉사의 근세사를 바로 잡은 공로다.

그러나 이 옹은 "과분한 대접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건봉사와 인연 있던 분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라도 정확한 기록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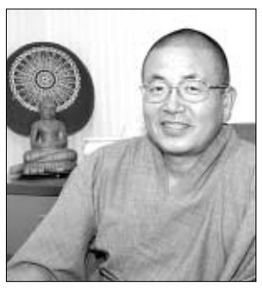


이 옹은 건봉사 극락암에서 태어나 '조석으로 예불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건봉사의 반일비밀결사인 '만당'의 회원이며 봉명학교 학장이었던 금암 스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는 종군기자로 참전해 건봉사가 폐허가 되는 부침의 역사를 지켜봐야 했다.

"건봉사 복원과 사적 정리는 필생의 사업"이라는 이 옹은 "건봉사 복원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어려울 때 힘되는 동문회 돼야"

석림동문회 대구경북지부 회장 재원 스님



"여러 선후배 동문들의 의견을 청취해 모교인 동국대와 지역불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6월 27일 조계종 종비장학생 출신 스님들의 모임인 동국대 석림동문회 대구경북지부 초대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재원 스님(종비 13기, 대구불교교육대학 부원장 · 사진)은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동문회가 되어야 한다"며 "우선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재원스님은 봄, 가을 연 2차례 동문들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근황도 전할 수 있는 연찬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불교계의 NGO 활동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포교나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는 스님들을 발굴 · 육성할 생각입니다"

스님은 정례모임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 기금을 모아 동국대 후배스님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지역 불교계 활동도 지원하는 등 지역불교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이와함께 불교를 폄하하거나

포교 · 사회활동 잘하는 스님 발굴 · 육성

교권침해, 해종행위 등에 대해서만큼은 동문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알려진 명단은 모두 70여명이지만 이외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동문스님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재원 스님은 "지속적인 명단파악작업을 통해 가능한 모든 동문들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53)629-0408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태고종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3~4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혜초 스님(전 총무원장)을 전계사로, 일우스님(원로의장)을 갈마사로, 법장 스님(중앙호법위원장)을 교수사로 열린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사미(니) 430명이 수계를 받았다.



교법사단 창립 58주년 기념법회



전국교법사단(단장 김형중)은 6월 28일 신임 교법사 품수식과 청소년을 위한 경전말씀 모음집 <빨리 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거야>의 봉헌식을 겸한 창립 5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형중 단장은 "초발심을 되새기며 청소년 포교에 더욱 매진하자"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서 후원금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는 6월 23일 국제 라이온스협회354(한국)-A 지국(이하 라이온스협회)으로부터 1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지완 스님은 "불교사상은 사회지도자로서 사회봉사 의미와 실천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풍어르신 야외나들이 여행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2일 경기도 양수리 일대로 중풍어르신 야외 나들이 여행을 다녀왔다. 중풍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과 가족,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다산 문화유적지 관람과 친목의 시간을 갖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JTS 이라크 난민 긴급구호활동

한국 JTS(이사장 법륜)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을 비롯 3명의 JTS 관계자들은 5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 라마디 시티 부근 쿠르드족 난민 캠프를 방문, 방역작업과 쓰레기 집하장 건설 지원 등 긴급구호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대구경북 신도단체 집전의식 교육



조계종 포교원과 대구동화사가 공동으로 2일 대구불교대학 강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30여개 단체 4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전의식 교육을 실시했다. 동화사 포교국장 진오 스님은 "목탁이나 죽비를 사용하는 것도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三淨丹(삼정단)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백록정사문화원 053-652-3300



◇'공무수행 정부' 라는 글씨가 적혀진 의정부시청 소속 차량(경기 72 가 1742)이 식당앞에 주차돼 있는 모습.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대여한 차량에서 동원된 의정부 시민들이 내리고 있다.차량 오른쪽에 '세미나 프레스센터' 라고 적혀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북한산 토론회' 인력동원·선심

시공사·의정부시 합작 조직적 여론조작

식사대접·선물, 반대의견엔 고함·야유

시공사측서 식당예약하고 식대 계산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토론회에 시공사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선물, 점심 등을 제공하고 의정부 시민들을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원동원에 의정부시 차량까지 동원돼 시공사와 의정부시의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드러났다.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토론회에 동원한 차량은 M관광 소속 경기 72 바 70XX로 시작되는 총 5대. M관광 한 관계자는 "대당 32만원 가격으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대여했다"고 밝혔다.

차량들은 오전 10시30분경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무실 인근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소재 'OO민속집'이라는 식당에 도착했다. '공무수행 정부'라는 글씨가 적힌 의정부시청 소속 경기 72 가 1742 흰색 승합차도 합류했다. 의정부 시청 도시과 김 모 주사보는 "건설교통부측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해 주민편의를 위해 차량을 제공했다. 또 시청 소속 경기 72 다 18XX 차량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전세버스 3대도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 대여했다"고 밝혔다.

OO민속집 한 관계자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가 '의정부 130'으로 예약을 했고, 식대도 계산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토론회에서 관통도로 찬성 의견이 나올 때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반대 의견이 나올 때는 고함과 야유로 일관했다. 또 토론회를 마친 뒤 선물 하나씩을 들고 버스에서 내리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연대는 7월 1일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들에 따르면 6월 26일 송산2동사무소 측에서 직원을 통해 주민대표들을 동사무소로 오라고 연락했으며, 동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우회노선을 반대해야 한다. 7월 1일 중요한 토론회가 있다. 차량과 점심을 제공할 테니 모여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피고소인 재정신청 유보요구

김태복장군, 검찰단 재수사 촉구도

김태복 장군이 피고소인 최 모 소령에 대한 재정신청 유보 및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김 장군은 27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검찰단, 육군본부 법무감 등으로 접수·우송한 유보 및 촉구서에서 고소인의 불공정한 재판관련 당사자이며 고소인이 고발을 한 고등군사법원장 박 모 대령이 존속하고 있어 불공정한 판단이 예상 됨 등을 근거로 들며 재정신청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박 모 대령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 사회 특별 검찰부와 같은 특별 기구를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여성성직자 새만금도보순례 회향 6월 2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작한 여성성직자들의 새만금 갯벌과 전북인을 위한 기도순례가 1일 부안 해창갯벌에서 회향을 했다. 하루에 여덟 시간씩 30여 킬로미터를 걸어 열 하루째인 1일 해창갯벌에 도착한 도보순례단은 간단한 회향식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사진 맨 왼쪽은 혜성스님(대원사). 사진제공=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준)(운영위원장 김희욱)는 1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에 종헌·종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의견서에서 △'중앙종회의원의 징계 시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종헌38조의 ②)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 면책특권 및 신분보장과 관계없는 지나친 특권조항이

종헌·종법개정 의견서 교단자정센터 종회제출

므로 이를 폐지할 것 △중앙종회 내에서 상정된 안건의 표결 시 모두 공개투표로 할 것△멸빈자의 사면복권을 금하고 있는 종헌 규정은 존치돼야 한다. 그러나 「사분율」에 명시돼 있는 '4바라이죄' 이외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과 적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출가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조치인 '멸빈'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등을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호국연호사 법당 낙성

천주교 신자인 사단장이 군장병의 신앙전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화주한 군법당이 드디어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본보 415호 15면 참조

21일 오후 2시 30분 강원도 현리 일대 호국 연호사(수기사, 지도법사 정윤성)는 성광스님(군불교위원장), 부대장 박경서 소장을 비롯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남동우 기자

"군법당건립 도와주세요"

육군부사관학교 불사 어려움 호소

낡고 비좁은 법당 재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육군 부사관학교 군법당인 호국충국사가 불교계의 지원 부족으로 불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 7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불사에 현재까지 고작 5천만원(조계종 군불교위원회 군포교 특별후원금)의 후원금이 약정됐을 뿐 더 이상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호국충국사는 기존 70여평 크기의 법당을 헐고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350평(법당 300평, 요사 50평) 규모로 불사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불사비가 없어 2004년 1월까지 낙성하겠다는 계획은 고사하고 자재 구입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호국충국사 중창불사는 매우 시급하다.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4년에는 부사관학교 교육생이 연 5천명에서 9천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각 부대에서 부사관 불자들의 역할은 막대하다. 부사관 불자들은 각 부대의 신도회인 금강회 회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당 관리와 사병들의 신행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그동안 장교에 비해 부사관 포교를 소홀히 해 왔다.

부사관학교 군법사인 이익수 법사는 "부사관 불자 중에는 각 부대에서 법당지킴이로 묵묵히 신행활동을 하는 숨은 보살들이 많다"며 "부사관 포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사관 기본교육기관인 부사관학교에 대한 포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063)836-7242 박봉영 기자

대규모 유치원 건립 추진

영남불교대 2,240평 규모…설계 착수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이 어린이 포교 대안마련을 위해 대형 유치원을 건립한다.

영남불교대학은 최근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건평 2,240평 규모의 '참 좋은 유치원' 건립을 위해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참 좋은 유치원은 600여명(20학급)의 어린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최대규모의 시설로 공사비만 100 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참 좋은 유치원은 1,2층은 유치원, 3층은 과학실과 어학실 등 어린이들을 위한 취미학습시설이, 4층~6층은 각각 강당, 법당, 수행관 등이 설치 운영된다.

영남불교대학 총무 밀허스님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포교만이 진정한 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목탁소리

사람 살리는 아바타는 없나?



김두식 (뉴미디어부 기자)

아바타란 원래 산스크리트어인 '아바따라(avataara)'에서 유래한 말로 분신, 화신의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래픽 아이콘으로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아바타는 게임, 채팅, 온라인 게임에 사용되고 있고 사이버 쇼핑몰, 가상교육, 가상오피스 등의 분야에서도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더 개성있게 만들기 위한 아바타 아이템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이 무절제하게 아바타를 구매하거나 혹은 게임 아바타 상품을 얻기 위해 정상적인 생업을 포기하고 게임에 몰두하는 등 정보사회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 아이템 구매로 과다한 전화요금이 청구되자 자살하는 사건은 단적인 예다.

최근 네오위즈 넷마블 등 19개 인터넷 업체들는 불법 스팸메일과 불건전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추방하자는 취지로 공동 제작한 캐릭터 '루키'를 여러 형태의 아바타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 네티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봉축캐릭터 등 이미 개발된 캐릭터들을 공익적 차원에서 아바타로 제작, 네티즌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불교포교는 물론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수계식 1
우리절에서는 천삼십일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패 영가님들, 그리고 유주무주고혼영가님들을 위해 오는7월 20일 [우리절 우담바라 개화 제6주년]을 맞아 특별히 [영가수계식]을 봉행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앞두신 분, 입시자녀를 두신 분들은 조상님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이번 [영가수계식]에 동참하십시오.

수계식 2
오는 11월 5일, 2004학년도 대입수능이 치러집니다. 특히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당국의 교육정책혼선으로 인하여 입시자녀들은 물론 많은 학부모님들조차 어찌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절에서는 수능을 100여일 앞둔 7월 27일 오전10시 입시자녀들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수계식을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에 힘입어 아빠·엄마·자녀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수계공덕]에 흠뻑 젖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애종심 키우고 더위도 이기고…

종단 신행단체들의 시원한 여름나기

천태종 7개 단체 구인사서 강좌 · 관음정진

진각종 중고생 중심 청소년 연합캠프 열어

총지종 초중고생 · 학부모 도자기체험 등

천태종 등 각 종단이 산하 신행단체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천태종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7개 산하단체의 수련회를 개최하며, 진각종은 비로자나(VIYA) 연합캠프 등 청소년 대상의 수련회를 연다. 총지종도 7월 23일부터 2박3일간 여름 학생 수련회를 열고 도예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천태종은 7월 4~6일 금강불교대학 하계 수련회를 시작으로 산하 신행단체 수련회의 막을 올린다.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리는 금강불교대 수련회는 골굴사 주지 적운스님의 건강강좌와 금강불교대학 최종석 교수의 비교종교론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전국청년회 하계 수련회도 7월11일부터 13일까지 구인사에서 열린다. 관음정진과 요가배우기, 래프팅 등의 체험행사가 마련되는 전국청년회 하계 수련회는 각 지역 청년회간의 우의를 다지고 애종심을 키우는 기회로 마련된다.

이 밖에 전국 합창단 수련법회(7월18~20일), 전국 중 · 고등학생회 하계 수련회(7월24~26일), 금강불교대학 총동문 수련법회(7월25~27일), 전국 종립유치원 교사 수련회(8월6~8일), 천태 어린이 본산 참배(8월16~17일), 전국 교원불자 하계 수련회(8월22~24일) 등의 수련회도 구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043)423-7100

진각종은 7월27~30일 경주 산내 연수원에서 전국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로자나 청소년 연합캠프를 연다.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단석산 등반, 구슬 나르기, 단체줄넘기 등의 협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공동체 체험의 장으로 제공된다.

진각종은 또 서울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에 거주중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7월22~24일 강원도 영월, 평창 등지에서 '어깨동무 자연탐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자연탐사는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된다. (02)913-0751~4

총지종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지종 여름 학생 수련회를 개최한다.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종단 산하 사원의 초 · 중 · 고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련회에서는 도자기 이론, 도자기 실습, 초벌구이를 직접 배우는 도예 체험이 계획돼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풍산전통한지에 대한 체험의 시간과 유천한지미술관 관람 등 한지 문화체험도 진행된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가 열려 수련회에 참가하는 학생들간의 친분을 도모하는 등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게 된다. (02)552-1080~3

천태종 교무부 계호진 행정과장은 "산하 단체 불자들이 종단에서 마련한 여름 신행 프로그램을 통해 애종심과 신심을 키우고 미래 종단 발전을 이끌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해인종 창종 4주년 법회

해인종(종정 혜지)은 4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종 4주년 기념 및 남북평화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혜지스님을 비롯 종정협의회 대통정 원융종 종정 일공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 부산 불교텔레비전 사장 정암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혜지스님은 "모든 종도들은 부단한 정진으로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남북통일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고 법문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구 선정심인당 헌공불사 봉행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6월 26일 종단의 발원지인 대구 내당동 선정심인당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하고 대구지역 포교 활성화를 서원했다. 연면적 290평의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선정심인당은 1층 주차장, 2층 법담실, 3층 심인당을 배치, 신교도(진각종 신도의 명칭)들의 신행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날 불사에는 혜일 총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혜정 교육원장, 진산 중앙종의회 의장, 휴명 사감원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동성 스님



◇행인 스님



◇이연화 교임

미륵종, 비구니회 창립

집행부 구성, 초대회장에 동성스님

종헌·종법에 비구니회법 제정 추진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6월 25일 양산 용화사에서 비구니회를 결성했다.

종단 소속 60여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석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관 제정과 모임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했다.

초대 회장에는 동성스님(양산 용화사)이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행인스님(진주 불동암)과 이연화 교임(울산 연화사 수도원), 총무 법화스님(언양 금수사), 재무 해월스님(울산 약수암), 감사 성혜스님(인천 기원정사), 청정심 교임(천안 청련암)이 각각 선임됐다.

비구니회는 향후 비구니회법을 제정하는 등 종헌 종법에 비구니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륵종 총무원 사무총장 보성스님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종단 내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어 왔다"며 "건전한 종책 제안과 적극적인 종무행정 참여로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모임으로 자리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비구니회 결성을 축하했다.

박봉영 기자

진각종이 교구청 역할 증대를 통한 지역포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진각종은 6월 26~27일 중앙종무기관 보직 스승 워크숍을 열고 예산 집행과 지역포교를 위한 기획 등 다양한 포교방향이 교구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효암 통리원장은 "참여, 화합, 회향의 틀 속에서 밀교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종앙종무기관과 각 교구청의 역할이

지역포교 활성화 재다짐

진각종, 보직 스승 워크숍열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종단상 확립을 위해 중앙집권식 종무행정에서 벗어나 지방 교구청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지역포교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효암 통리원장은 "교구 직무스승제도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행정 교류와 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종도들이 교구청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의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단소식

승려·신도회 간부 교육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1일부터 13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2003년도 하계 승려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는 승려교육은 법화삼부경 강의와 '선도와 생활체육' 건강강좌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천태종은 8월 14~16일 전국신도회 간부교육을 실시한다. 간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간부교육은 총무원장 운덕스님의 법문, '현대과학과 부처님의 가르침' 주제의 강의, 구인사 농장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천태종 청년불자들의 모임 '청화'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5회째 열린 이번 행사는 '사랑과 봉사로 아름다운 청화'라는 주제로 청화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목욕, 빨래, 청소 등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야간에는 구미 금룡사(주지 시용)에서 관음정진을 하는 등 신행 체험도 병행됐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15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종단 소속 전국 사원에서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한다. 하반기 불공은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진호국가 불사로, 5월 28일 입재해 49일동안 진행돼 왔다.

게 시 판

행사 ▲대한불교진흥원은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초청, <유식삼십송>을 주제로 불교경전강좌를 연다. (02)703-0108

▲서울 삼보사는 비만 탈출을 위한 '체질개선 건강수련회'를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에서 개최한다. 일정은 7월 25~27일, 8월 1~3일 두 차례 진행되며, 대상은 일반인 및 중 · 고등학생 70명. (02)352-6406

▲충북 보은 달마선원은 여름명상캠프를 연다. 캠프는 7월 15~17일, 19~21일, 25~27일, 29~31일, 8월 8~10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진행. 대상은 대학생 및 일반인. 인원은 30명. (054)535-0378

▲정토회는 8월 2~6일 4박5일간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산속, 마음속, 여름수련'이란 주제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일반인. 모집인원은 2백명 선착순 마감. 참가비 15만원. (02)587-8994

모집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문화관광부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3회 내가 만드는 애니메이션세상'을 8월 9~16일 8일간 복지관 강당에서 연다. 대상은 청각장애청소년 50명을 포함한 부산 지역 청소년. 내용은 청각장애 · 비장애 청소년간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51)868-0750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정서부적응 아동을 위한 '놀이 ·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강료는 놀이치료 2만5천원, 미술치료 2만원. (02)577-8440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정보화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매주 월~금요일. 시간은 12~18시. 접수 준비물은 복지카드, 장애인 수첩. (051)264-9033

구인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은 직장체험연수생 모집한다. 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상담 분야의 사회복지사.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학 또는 관련학 전공자. 접수방법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장체험연수생 등록 후 복지관을 방문하면 된다. 마감은 10일. (031)393-3677

이전 ▲주간불교신문사는 6월27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번지 종로오피스텔 1113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4-0777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신나고 즐겁게... 부처님과 더 가까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부처님같이"
천마산 수진사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합니다.
사찰예법과 스님께 듣는 부처님 이야기,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를 돌아 볼 수 있는 참선,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체험하는 발우공양, 탑돌이 등의 수행체험과 협동놀이, 천불동요, 신나는 레크댄스, 장애체험, 물놀이, 캠프파이어 등의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될 이번 여름불교학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 주어 생활 속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바르고 성실한 불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사오니, 귀댁의 자녀들이 여름불교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7월 25일 (금) 오후 3시~ 27일 (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호평동 천마산 수진사
(165. 165-2버스종점하차 → 마을버스 10번, 11번 종점 수진사)
◐ 참 가 비 : 2만 5천원
◐ 준 비 물 : 이불,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양말, 모자, 속옷, 필기구, 샌들, 긴팔, 긴바지
◐ 문의 및 신청 : 지오스님, 주임교사 전진아
031)591-7710, 3364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대한불교 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제1회 옥천사 청담 인욕정진 수련대회
청담 대종사께서는 입적하시는 순간까지 인욕과 전법으로 생을 보내셨기에 인욕보살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특히 왜색으로 물든 한국불교를 새롭게 정화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을 되찾고 청정 비구승단을 수립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셨습니다.
청담 대종사의 마음사상과 마음문학을 연구하고 대종사의 높은 뜻을 받들어 온 누리에 자비가 가득하도록, 두루 동참하시어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수련대회 내용
(진행 : 옥천사 주지 지성스님 · 청담사상연구소장 허구연학장)
■ 법문(봉래스님 : 옥천사)
■ 청담 대종사 인욕정진(사회 : 박충일교수)
■ 청담 대종사 선양을 위한 토론(김기원교수)
■ 불교교화를 위한 토론
◐ 일 시 : 2003. 7. 11(금) - 13(일) 3일간
◐ 장 소 : 경남 고성군 개천면 개천리 연화산 옥천사
◐ 참가회비 : 3만원(단, 학생은 1만원)
◐ 참가비입금구좌 : 신용협동조합 10042-12-000985 청담사상연구소
◐ 참가접수처 :
■ 청담사상연구소 : Tel 055)751-3431. 3332 Fax 055)751-3439
■ 연화산 옥천사 : Tel 055)672-0100

제20회 흥국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안녕하세요?
뒷산 솔바람 싱그러운 숲에 자리잡은 흥국사 어린이 불교학교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신나고 잼나는 우리절 짱!" 이라는 주제로 문을 활짝 열고 예쁘고 착한 우리 어린이 불자들에게 사찰에서의 예절, 스님께 듣는 부처님 이야기, 탑돌이, 수계식(오계), 찬불동요, 신나는 레크댄스, 여러 공동체놀이 등 정말로 신나고 잼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품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교가 쉽고, 재밌고, 유익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생활과 불교의 밀접한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절로 많이 놀러 오세요. ^^
◐ 일 시 : 2003년 7월 27일 (일) 오전 9시 30분~ 29일 (화) 오후 2시까지
◐ 대 상 : 유아(5세이상), 초등부
◐ 장 소 : 당진 흥국사
◐ 참가비 : 5,000원
◐ 문의 및 신청 : 041)362-6008, 363-6008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68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흥 국 사

대원정사 하계 수련회
즐거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불자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발우공양 및 예불, 사불 사경법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중한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7월 24일(목) 오전 11시 ~ 7월 26일(토) 오후 2시 (2박 3일)
◐ 참가대상 : 불자님들의 가족, 초 · 중 · 고생, 직장 및 일반
◐ 참 가 비 : 3만원
◐ 교육내용 : 발우공양, 참선, 목탁 치는 요령, 불교 관련 도서 열람 등
◐ 선 생 님 : 성종현, 고영민, 이수경, 최연정
◐ 차량운행 : 7월 24일 오전 10시 10분 구파발 환승 주차장 앞 출발 장흥 농협 오전 10시 30분 출발
◐ 참가접수처 : 031)855-5501, 5503
※ 수련회 참가 희망자는 2003년 7월 15일 까지 참가신청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종무소 사무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12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주지 석해련 합장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94.5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적·멸·보·궁 도·보·순·례

스님과 두 거사의 1800리 대장정

만행의 맛? "한번 걸어봐"

2일 오전, 5대 적멸보궁을 걸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간 지 5시간만에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도착했다. 일주문 앞 느티나무 아래 누워있는 세 사람. 자신의 몸뚱이 만한 배낭을 옆에 두고 덥수룩한 수염을 한 그들의 행색에서 '주인공' 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현민스님(63, 김해 은하사), 이근태 씨(60,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 김청수 씨(55, 부산 명지동). 6월 14일 불보종찰인 양산 통도사에서 출발한 세 사람은 정선 정암사, 영월 법흥사, 평창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고성 건봉사까지 걸어서 순례했다. 그들이 30㎝ 보폭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온 산길은 720㎞나 된다.

건봉사에서 19일 동안의 대장정을 회향한 그들은 단지 누워 있을 뿐이었지만 고된 여정을 거쳐 온 흔적이 역력했다. 새까만 피부, 부르튼 상처에 붕대를 돌돌 감은 다리, 손질하지 않은 머리, 그러나 진한 피로와 땀으로 지친 그들에게서는 강한 신념이 배어 나왔다. 역경을 넘어 선 그들은 환희심으로 다시 태어났다.

추 억에서 시작된 만행

7월 2일 열아흐레 간의 만행을 회향하던 날, 건봉사로 불쑥 찾아든 취재진이 못마땅한 듯 도보순례단 일행은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이근태 거사의 도움으로 걸어 온 19일간의 일정을 들었다. 일행은 6월 14일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긴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경주 안강, 영일 상옥, 영양 일월, 울진 현동을 지나 강원도 태백 땅으로 들어섰다. 출발한지 8일째 되던 6월 21일, 정선 정암사를 참배한 뒤 또다시 걸음을 옮긴 일행은 영월을 지나 사자산 법흥사, 평창을 거쳐 오대산 상원사에 도달했다. 태백준령을 따라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한 일행은 인제를 거쳐 고성 건봉사에 도착했다. 이렇게 걸어 온 길이 1800리, 남한에서 가장 길다는 낙동강의 1.5배에 달하는 거리였다.

이번 도보순례를 처음 제안한 이는 이근태 거사였다. 이근태 거사는 어렸을 적 법당에 비가 흥건히 젖는 것도 모른 체 기도에 몰입했던 어머니의 정성을 떠올렸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어머니의 불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서원했다. 5대 보궁을 걷는 계획은 그럴 듯 했다. 이제야 어머니 정성에 보답할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뜻을 전해 들은 30년지기 도반이었던 현민스님이 기꺼이 동참했다. 그렇게 시작된 도보순례였다.

그러나 작년에 이은 이번 도보순례로도 답을 찾지 못한 이근태 거사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또다시 배낭을 짊어지겠다고 발원했다. 어쩌면 이근태 거사의 순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계속될런지도 모른다.

19 일만의 회향…삶에 대한 자신감

순례단 일행은 최종 도착지인 건봉사에서 김청수 거사의 아내를 만났다. 만행이 끝나는 날에 맞춰 일행을 태우러 오기로 약속돼 있었던 것이다. 순례기간 중 신세를 졌던 평창 성곡사에서도 명정스님이 회향을 축하하러 왔다.

김청수 거사는 19일만에 만난 아내를 보고도 무덤덤했다. 그러나 아내는 쳐다보는 눈을 의식한 탓에 표정을 감추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반가움만은 숨기지 못했다. 수염으로 뒤덮인 남편의 얼굴을 보는 아내 양순이(현민스님의 표현이다)는 "곁에 있을땐 몰랐는데 새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일행 가운데 김청수 거사가 가장 힘들어 했다. 현민스님과 이근태 거사는 지난해 봉정암에서 통도사를 걸어서 순례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김청수 거사는 처녀순례였기 때문이다. 속도도 가장 뒤쳐졌다. 어떻게든 일행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김청수 거사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묵묵히 걸었다. 4일째 영양 일월산을 넘던 날은 너무 힘들어서 구경은 고사하고 땅만 보고 걸었다. 현민스님과 이근태 거사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장난투의 놀림에도 굴하지 않고 참회의 걸음을 착실히 내디뎠다. 마침내 김청수 거사는 만행의 종착지였던 건봉사 사리탑 앞에 설 수 있었다.

회향이 끝나고 김청수 거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낸 보람을 느낀 것이다.

"무엇을 얻고자 만행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불자로서 보람된 일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네요."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처음부터 취재진을 외면하던 현민스님은 줄곧 웃음으로 취재를 피했다. 그 이유를 현민스님의 입을 빌리자면 이렇다. "여기서 입을 열면 또 하나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동안 고생한 도반들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현민스님은 "나중에 함께 걸어보라"는 말로 소회를 대신했다. 말로써 표현되는 순간 어긋난다는 스님의 가르침이었다.

일행 가운데 리더 역을 맡았던 현민스님은 날마다 가장 먼저 출발했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이가 있어야 계획대로 일정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지난해 만행에 이어 현민스님은 올해에도 기꺼이 참가했다. 30년지기 도반인 이근태 거사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민스님은 이번 만행을 또 다른 수행으로 삼았다. 하루 최고 58㎞를 걷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출 · 재가를 떠나 깨달음을 향한 만행에 동참한 세 명의 도반은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났다.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의 고행을 생각하며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글=박봉영 기자



◇회향 전날인 1일, 설악산 대청봉에 선 현민스님(오른쪽)과 이근태(가운데) · 김청수(왼쪽) 거사.

반야심경 반지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18K Gold 폭 약 8mm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외부에 각인된 반야심경반지 반지내부에는 '옴'자가 각인 은92.5% 로듐도금 폭 약 8mm
반야심경 전문270자가 내부에 각인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18K Gold 폭 약 8mm
■ 농 협 131-01-368761 예금주:(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 인터넷주문 http://www.xpialand.com으로 오시면 제품이미지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주는 마음 '깨끗' 받는 마음 '청정'

시주금, 어째서 뇌물인가?

한 고위 공직자의 권유와 그에 따른 대기업의 시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임기간 중 시주를 권하고 SK측이 10억원을 서울 북한산 승가사에 시주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 1심 선고공판이 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림에 따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석탑을 건립하기 위해 시주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태복 장군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재조사를 지시한 일도 있다.

두 사건 모두 '시주금'이냐 '뇌물'이냐를 놓고 검찰이 '법적 잣대'를 들이 댄 것이다. 이를 두고 불교계는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주라는 종교적 행위를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불교계 반발 이유

① 왜 불교계의 시주만 문제되나
② 정당한 종교행위가 법의 심판대상?
③ 사회자원교류의 왜곡된 시각

●시주의 형태와 관례

전북 고창의 도솔암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최근 극락보전 건립불사를 마쳤다. 도와 시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신도들의 시주금이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거의 모두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이었고, 거액의 시주는 없었다. 고정 신자가 없다보니 이들 시주는 모두 말 그대로 '마음'을 낸 무주상 보시였다.

팔공산 파계사는 최근 법당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시주자 명단과 금액을 공개했다. 천만원대의 시주는 1%에 불과할 뿐, 신도들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대형불사의 경우 유력 기업(기업인)의 시주로 이루어진 사례도 없지 않다. 한진그룹 고 조중훈 회장이나 건설회사인 건영,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등은 불교나 사찰과의 인연으로 대공덕주가 되기도 했다.

시주는 스님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다. 물론 크고 작은 불사에 적지 않은 금액이나 부동산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찰이 신도들에게 시주를 직접 권유하거나 신도들이 명망있는 불자들에게 시주를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 즉 대가를 바라고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주의 종류는 과거와 달리 다양해졌다. 주로 사찰운영이나 제례, 건축불사 위주였던 것이 초하루, 신중기도, 약사기도, 지장기도, 관음기도, 인등기도 등으로 늘었다.

시주는 조선시대 숭유억불정책으로 사찰 토지가 몰수당해 삼보정재가 축소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불교가 국교로 인정됐던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사찰 재정을 부담해주었고, 불사도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찰운영 · 각종 불사 위한 순수한 기부

법회와 기도따라 종류 다양… 자율 동참 원칙

타종교의 헌금 불교와 비교 않될 정도로 활발

투명한 관리 · 복지로 환원 노력 서둘 때

●다른 종교단체 사례

개신교와 천주교의 헌금은 규모나 종류에서 불교의 시주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개신교의 경우는 십일조(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헌금)를 비롯해 주일헌금, 감사헌금(생일, 이사, 승진, 출산 등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내는 헌금), 절기헌금(추수감사절 등 절기마다 내는 헌금) 등 그 종류만도 40여종이 넘는다. 여기에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 등 특정한 목적을 갖는 헌금까지 합하면 거의 1년 내내 헌금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헌금은 십일조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스스로 헌금액을 정해 일년에 한 번씩 내는 교무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각 지역 교구와 성당 운영비로 쓰이는 '1차 헌금'과 사회복지주일, 성서주일, 교황주일, 군인주일, 정교주일, 평신주일 등 특정한 주일에 내는 '2차 헌금'이 있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헌금은 종류나 모금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관리는 차이가 있다. 천주교는 개별 성당에서 모은 헌금을 교구회에서 관리하며, 헌금내역이 모두 공개된다. 반면 개신교는 헌금을 공식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는 교회도 있지만 천주교와 같이 교구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성기문 교수는 "교회의 헌금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세금공제를 위한 영수증 발급 시 헌금 액수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흔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헌금이 뇌물로 변질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천주교 주교회의의 한 관계자는 "헌금내역이 공개되지 때문에 비리는 거의 없다"며 "성당을 짓기 위해 헌금 모금을 할 때도 특정신자가 거액을 기부토록 권유하기 보다는 신자들이 일정액을 공동 모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불교계가 시주금에 대한 '법의 심판'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왜 하필 시주금만 시비냐'는 것이다. 개신교나 천주교의 헌금이 불교의 시주금과 마찬가지로 종교행위이고, 모금 방식이나 목적도 다를 게 없는데 유독 시주금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힘없는 불교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과연 시주와 같은 종교행위가 법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설혹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서인지 '대가'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사회문제로 비화된 전례가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사회의 자원교류가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경직된 사고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단체들은 이를 물질만능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분석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종교적, 정서적 만족을 위해 자원교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김태복, 이남기씨 사건이 빚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시주금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고 스님은 또 "사회의 공적 자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며, 기부가 바로 이런 부족함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종교단체 기부에 대해 검찰이 얼마든지 손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종교의 자율성은 물론 기부문화의 저변도 크게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시주문화 재정립해야

물론 시주문화 개선도 필요하다. 먼저 '큰 시주'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한 목적(성당건립 등)에 신도들이 일정액을 공동 모금하는 방식이나, 바자회 등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 확보, 장기간에 걸친 모금 등 천주교의 헌금 방식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시주금 관리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주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명백히 밝히고,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관리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찰회계, 처리, 금융사고 보완책 등 재정과 관련한 전반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찰예산회계법'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를 예로 들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신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신도들이 시주에 참여하게 되며, 그래야만 올바른 시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15%에 불과했던 싱가포르의 불교인구가 25%로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 등을 통해 시주금을 사회로 환원했기 때문이며, 우리 불교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김석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기획운영국장

어린이 포교는 미래불교의 희망

어린불자 줄면 불교미래 암담

지도자 양성 · 시설 증설 서둘렀으면

6월 20일 밤늦은 시간 봉은사 보우당. 나무를 만드는 사람, 나뭇잎을 만들어 붙이는 사람, 글자를 만들고 붙이는 사람, 조명을 설치하는 사람 등 정신이 없다.

'선영아 빨리 어린이 캐릭터 몸통 주라.' '정윤이는 스님을 붙여라.' '효주 스님 캐릭터 아직 안 되었어요?' '혜주와 창현이는 스티로폼에다 푸른 칠을 해서 강물을 만들어라.'

10여명의 지도자들이 제31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를 위한 강습회 준비로 새벽 1시가 되어 가는 시간까지 강의장 무대를 꾸미며 행사준비 만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란 슬로건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1985년도에 창립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불레협)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불교는 정(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발상 전환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동(動)적인 레크리에이션을 가미하여 불교를 포교하는 단체이다. 일년에 두 번 실시하는 강습회와 수련캠프, 전문지도자과정, 그리고 수요 정기 강좌, 연등축제 율동시연, 위문 활동 등 바쁜 일정을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넓으신 부처님 진리의 그늘 아래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부처님 진리를 즐겁게 실천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건만 어린이법회에 어린이가 줄어가고 있으며 법회 자체가 소멸되어 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불레협 회원들의 땀흘리는 모습은 미래 불교의 발전을 내다보는 것 같다.

법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 교사가 부족하고, 지도교사들이 사용할 여러 가지의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진실한 전법자의 모습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의 불교를 위한 진지한 모습은 강습회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종단에서 여러 계층별로 포교에 열을 쏟고 있지만, 다른 포교보다도 어린이포교는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어의 회귀 본능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 시절에 심신에 배어있는 불교의 향기는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은은하게 퍼지어 나올 것이다. 종교심은 어린이 시절부터 무엇으로 가꾸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와 사찰과 스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어린이 시절부터 각인되어 있으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불자로서 행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어린이 포교,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행에 열중하고 있는 불레협의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포교단체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포교의 지속성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부재하다. 또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의 부족함 그리고 교육장소의 확보를 빠른 시간에 보완하여야 함을 느꼈다.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많이 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제4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계승과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음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포교사업 일환으로 창작찬불가에 대한 의욕과 불교음악인의 발굴기회를 갖고 민족정서 및 불교정서에 맞는 수준 높은 찬불가를 보급하고자 제4회 창작찬불가를 공모함.

공 모 요 강

1. 공모부분
(1) 일반공모(작사/작곡 포함) ● 합창곡(7분 내외) ● 중창곡(5분 내외) ● 독창곡(5분 내외)
(2) 작곡공모(작곡) - 가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시 가능함.
2. 응모자격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신청서 교부 2003년 5월 19일 ~ 2003년 10월 6일
● 신청서 접수 2003년 9월 15일 ~ 2003년 10월 6일
4. 심사발표 2003년 10월 15일 (종단홈페이지, 교계신문, 개별통보)
5. 운영 및 심사위원 불교음악 및 각계 권위자로 구성
6. 시상내역 ● 대 상 1인 (상금300만원, 상패) ● 우수상 1인 (상금100만원, 상패)
● 장려상 2인(상금50만원, 상패) ● 아름다운노랫말상 1인(상금50만원, 상패)
● 입선 5인(상패)
7. 응모요령
● 응모신청서 작성합니다.(가사 및 곡 해설 필히 기입, 사진3매 제출)
● 작품은 악보(1부), 복사본(5부), 작품 녹음테이프(피아노반주)를 제출합니다.
● 작품 속에는 작사, 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 외의 표식을 금합니다.
● 응모신청서는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각 교구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739-1830 Fax 02)722-2606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외국인 노동자돕기’ 두 불자회가 나섰다



외국인 노동자 40만 명 시대. ‘불법체류자’라는 멍에가 이들 절대다수를 옭아매고 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업재해, 질병호소…. 마땅히 하소연할 지원단체도 없고 불교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직 불자회 2곳이 이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와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동문들로 구성된 불자법조인연합회가 바로 그들. 이들 단체는 업무 특성을 살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법률상담 분야에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그림 / 김영민

석왕사에 불교계 첫 전용무료진료소

선재마을의료회 · 불자법조인연합

체임 · 산재보상 등 법률상담 지원나서

◉ ‘아픈 사람은 이곳으로 오라’

외국인 노동자의 20%가 몰려 있는 경기도 부천시. 13일이면 불교계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무료진료소’가 이 지역 석왕사(주지 영담)에 문을 연다. 운영책임은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가 맡고, 석왕사는 30평 규모의 장소를 제공한다. 진료과목과 의료진도 구성됐다. 과목은 치과,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의료 수요가 많은 것부터 마련됐고, 진료진은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총 10명이 꾸려졌다. 선재마을의료회는 적어도 부천진료소를 1차 진료병원 수준에 맞추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선재마을의료회가 왜 부천시에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를 개원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다. 이는 선재마을의료회가 그간 서울 강남 봉은사진료소에서 간헐적으로 벌여온 외국인 노동자 진료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이곳에 진료소를 연 것이다.

특히 이 지역 외국인 노동자 중 70%이상에 달하는 태국 · 스리랑카 · 미얀마 · 몽골 등의 불교국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작은 불교병원’을 열었다.

◉ ‘법률문제, 우리가 해결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장 옥죄는 것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보상 등의 법적인 문제. 원인은 전적으로 불법입국자라는 신분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들로 이렇다할 법적 대응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다. 이에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불자법조인연합회가 이 문제에 뛰어들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대표 이홍주 변호사가 주도 한 이 불자회는 매월 한 차례씩 경기도 안산공단으로 법률 상담에 나선다. 주로 밀린 임금과 산재 보상금 등을 받아주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통역과 서류작성을 담당할 실무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불자법조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상담과 관련,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가 운영하는 ‘김포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등 불교NGO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이홍주 변호사는 “직장 · 직능불자회가 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노력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동아시아 불교문화벨트 구축

8개국 교수 불자들 내달 백담사서 학술대회

아시아 · 세계 교수불자연합회 결성도 추진

아시아 8개국 교수불자들이 동아시아 불교문화벨트를 구축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 · 동국대 법학과)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 미얀마 · 몽골 · 태국 등 아시아 8개국 교수불자들이 참여하는 ‘제1회 동아시아교수불자대회’를 오는 8월 19~21일 강원도 백담사 만해문학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회는 ‘동아시아 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공동체와 불교 △과학과 불교 △문화예술과 불교 △사회와 불교 △종교문화와 불교 등 총 5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또 기조발표에는 박세일(서울대), 백경남(동국대) 교수가, 소주제는 인도 캘케타 대학 디팍 쿠마르 바르우나(Dipak Kumar Barua) 교수, 스리랑카 불교 · 팔리 대학 올리버 아베나야케(Oliver Abeynayake) 교수 등 국내외 30여 명의 석학들이 나선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특성을 한 자리에서 비교 · 분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참가국 교수불자들은 대승 및 남방불교권별로 자국의 불교 전래와 현황을 실은 ‘나라별 리포트’를 제출하고, 전공분야별로 현대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공동대안을 모색한다.

또 대회에서는 아시아교수불자연합회 창립식과 세계교수불자연합회 결성 예비모임도 갖는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법현 스님 초청 강좌

우리은행 불자회(회장 정진호 · 사진)는 10일 본점 회의실에서 <알기 쉬운 부처님 말씀>을 주제로 동방불교대학 교학처장 법현 스님에게 강의를 듣는다.



원각사에서 경전공부

전남지방경찰청 불교회(회장 천승범 · 사진)는 6월 26일 광주 원각사에서 주지 도재 스님으로부터 예불문과 <반야심경> 경전 공부를 했다.



동화사서 연합법회 열어

전력인불자연합회(회장 이인규 · 사진)는 13일 대구 동화사에서 2003년도 정기연합법회를 열고, 주지 지성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다.



선우 스님 초청 사경 법회

경찰청불교회(회장 박재진 · 사진)는 6월 26일 서대문구 본청 법당에서 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 선우 스님 초청, ‘사경’ 법회를 봉행했다.



지안 스님 불교신행 특강

마산시청불자회(회장 박일춘 · 사진)는 6월 27일 영축불교대학에서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에게 ‘현대사회와 불교신행’이란 주제로 법문을 들었다.



개원 기념 산사순례법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노영화 · 사진)는 1일 개원기념 오대산 적멸보궁, 상원사, 월정사 등 삼사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우리불자회는요

서울 성북경찰서불자회

“법우들은 잘못 일깨워 주는 고마운 인연”

항상 下心자세 … 법명 불러주기운동 펴

‘경찰’이라는 단어만 내밀어도 경직된 분위기에 거리감을 두고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불회’하면 부처님의 뜻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곧장 눈치를 챕니다. 그렇습니다. 성불회(城佛會)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불자들이 지난 2000년 4월 창립한 순수 직장인 불교 모임입니다.

경찰은 직업적 특성 자체가 국가와 사회, 시민의 권리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보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불자회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법우들은 이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고마운 인연들’이라고.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단연 왕성한 신행활동입니다. 매주 또는 격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지역 사찰 순회법회, 매년 떠나는 성지순례는 불교의 혜안을 넓히고 수행정진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전 회원이 법명을 다시 받는 수계법회도 열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자기의 법명을 다시 받는 수계법회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불제자로서 불퇴전의 서원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뿐인가요? 우리 불자회의 찬불가 실력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지난해에는 강릉수해지역에 위문품을 전달했고, 연말이면 소년 · 소녀가장 돕기, 어려운 직장동료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렇게 성불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승 스님들 덕분입니다. 경승실장이신 성북구 정릉동 내원사 주지 정수 스님을 비롯해 관내 여덟 분의 경승위원 스님들이 매주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보문사 도인 스님과 보문사합창단 보살님의 음성공양은 지친 심신을 보듬어 주는데 충분했고, 특히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 유치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법을 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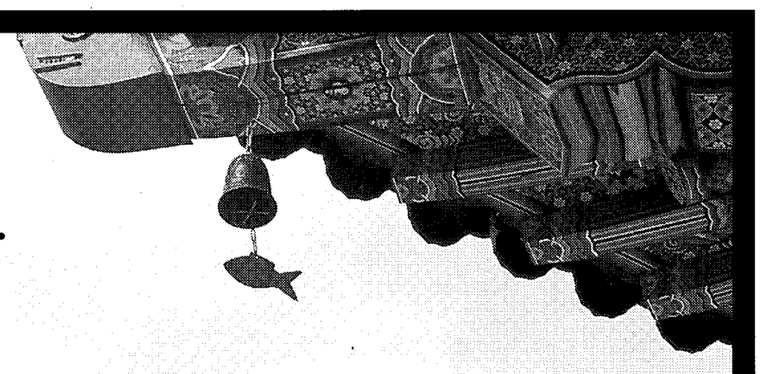


◇성북경찰서 불자회원들이 올 부처님 오신 날에 봉행된 수계법회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서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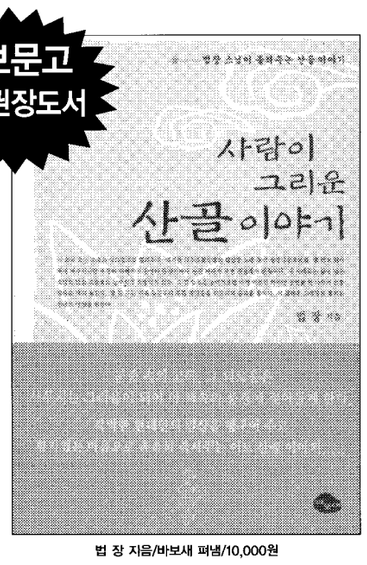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 성불회는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삼아 일상생활과 근무에서도 항상 하심(下心)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명 불러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서로의 불성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고, 불제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펼치는 운동입니다. 이와 함께 전 · 의경포교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매월 전 · 의경들의 생일을 파악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전해주려고 합니다. 소중한 부처님의 인연을 알려주고 싶어서 입니다.

■김두식 회장

각박한 현대인의 일상을 헹구어 주고
향기있는 마음으로 촉촉히 적셔주는 산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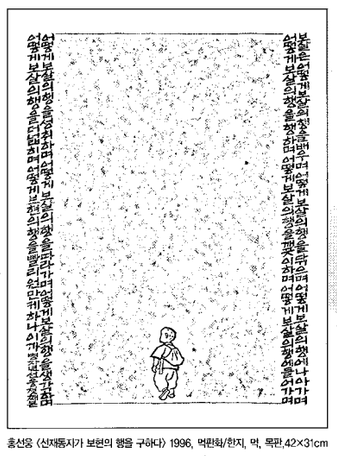


교보문고 7월 권장도서



법 장 지음/바보새 펴냄/10,000원

+



홍선웅 〈신재동지가 보현의 행을 구하다〉 1996, 먹판화/한지, 먹, 목판,42×31cm

사람이
그리운
산골 이야기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의 애기, 자연에 대한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적은글 – 중앙일보 | 홀로 수행중인 운수행자의 탁 터논 이야기가 속세인의 가슴을 친다. – 문화일보 | 스치고 잊혀졌을 법한 자잘한 인연들을 살뜰히 가꿔온 이야기들이 많다. – 한겨레21 | 나를 배우고 이웃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는 너무도 진솔한 만행은 행복하다? – 불교신문 | 운수행자로 살아가는 길을 결정하기까지 고난했던 과거를 솔직 담백하게 애기하고 있는 대목은 심금을 울른다. – 법보신문 | …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때묻은 삶이 사실 그대로 꿈틀거린다. – 오마이뉴스

저자 사인회 일시 : 2003년 7월12일(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교보문고(종로점)

전화 (02)2272-7881 팩스 (02)2269-4179 바보새

"문헌학이 '불교학의 전부' 인가?"

서구 인문학 바탕 기존연구에 비판 잇달아

분석과 해석 통해 '짜깁기 철학' 극복해야

불교는 학문 넘어선 삶의 방식·존재양식

"서구 인문학에 바탕을 둔 현대의 '문헌학적' 불교학은 오늘날 불교학이 이만큼이라도 존립할 수 있게 한 공로자이긴 하지만 전통적 불교신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서구 인문학에 바탕을 둔 현대불교학에 메스를 들이대며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헌학적 연구가 불교학의 전부인가"를 비판적으로 다룬 글이 잇달아 발표돼 관심을 끈다.

강종원(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씨는 최근 나온 계간 <불교평론> 2003 여름호(통권 15호, 불교시대사)에 발표한 '철학함과 문헌학 : 불교학 방법론에 대한 성찰'에서 "지금까지 소위 '불교학'이라고 부르는 학문활동에서 주류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문헌학이 불교학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긴 하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먼저 이제까지 '불교철학자(Buddhist philosopher)'라 불린 불교학자들이 실은 단순히 문헌학을 해온 '불교철학사가(the history of philosophy)'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자료 수집에서 시작해 자료 분석으로 끝나는 '문헌학'은 불교학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다. '분석과 해석'이라는 '철학(함)'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강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문헌학적 활동을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철학적 활동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짜깁기의 철학'이라는 폐단이 파생한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미래 불교학의 향방을 결정하는 결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씨는 "불교도가 아닌 불교학자는 '불교철학사가'가 될 수는 있지만 '불교철학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불교철학자'는 '철학함'이라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옹호하고자 하는 신념체계가 불교인 학자"라고 밝혔다.

하버드대학 동아시아 문명과 언어학과를 수료하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용(영남대 객원교수)씨가 반년간 <종교문화비평 3호>(한국종교문화연구소)에 기고한 '학문의 이종교배 : 왜 불교신학인가?'는 '문헌학'을 꽃피운 서구에서 최근 일고 있는 불교학 연구에 대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소개한 글이다.

1996년 미국 종교학회(AAR)의 연례대회에서 새로운 분과로 등장한 '불교신학(Buddhist Theology)'이 바로 그것이다.

이 씨에 따르면 문헌과 자료를 해석하는 학자들의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대상물이 된 불교가 학문의 대상을 넘어선 '삶의 한 방식'이며 '존재양식'이라는 비판의 결과 나온 새로운 시도가 바로 '불교신학'이다. 이는 곧 과거 지향적 문헌 속에 갇혀 있던 불교를 현장의 것으로 끄집어낸다는 전제가 깃들어 있는 것이며, 문헌학·비판적 관점·현대적 해석이라는 신학적 틀을 흡수하여 종교로서의 불교의 역할을 재생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씨는 '불교 유물 지킴이'의 역할을 했던 불교학자들의 입장을 삶의 한 양태로 전환시키려는 과정이 불교신학 창안의 배경이라며 이는 "불교의 학문적 추구의 궁극적 관심이 지식 획득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삶의 변모적 수행에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절(13)

벽암이 새로 쓴 화엄사 역사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잿더미로 변한다. 나무로 지은 건물은 사라지고 석조물만 남게 된다. 이때 벽암각성(碧巖覺性)이 등장하면서 화엄사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 벽암대사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모아 한양으로 진격한 공으로 왕실과 백성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웠던 분이다. 허능(虛能)의 <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에 의하면, 1632년 벽암이 화엄사를 개수하려 하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으니, 절은 어느새 큰 총림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연기조사가 화엄사에 효(孝)를 심었다면, 벽암대사는 충(忠)을 펼친 분이다.

벽암대사를 기리는 비석은 인왕문 오른쪽 옆에 세워져 있다. 무심코 지나기 쉬운 비석이지만, 오늘날 화엄사의 면모를 세운 분이고 각황전 건립을 주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벽암대사는 해인사 대장경판고 중영을 시작으로 남한산성 축성, 완주 송광사 창건, 하동 쌍계사 재건, 안변 석왕사 재건 등 17세기 불교 중흥을 이끈 분이다.

지리산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화엄사는 일주문에서 인왕문, 사천왕문을 거쳐 보제루에 이를 때에도 왼쪽의 봉우리에 의지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오른쪽은 열어두었다. 한쪽은 건물로 한쪽은 자연으로 명료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오른쪽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균형이 깨졌다. 화엄사 가람배치의 극치는 보제루 너머 마당에서 펼쳐진다. 보제루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통일신라 석탑과 단아한 단층의 대웅전이 보여 이곳이 중심건물이라 생각할 즈음, 계속 왼쪽으로 돌면 넓은 마당이 펼쳐지면서 높은 기단 위에 각황전이 갑자기 그 위용을 드러낸다. 각황전이 중심건물인 것이다.

각황전은 정면 7칸, 측면 5칸의 2층 건물로서 사찰건물 가운데 가장 웅장하다. 장엄하지만 화려하지 않고 웅대하지만 근엄한 품위를 갖춘 건물이다. 이 정도 규모와 위용이면 궁궐건축에 버금가는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도 정면 5칸, 측면 5칸에 불과하다. 내부를 들어가면 1층과 2층이 하나로 뚫려 있어 밖에서 느끼는 웅장함은 배가된다. <봉성지(鳳城誌)>를 보면, 이 건물은 670년 의상대가 화엄사를 중창할 때 왕명으로 3층의 장륙전(丈六殿)을 짓고 그 주위를 돌에 새긴 화엄경으로 둘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조각으로 남아 있는 화엄석경은 9세기로서 기록과 차이가 난다. 임진왜란 때 장륙전이 불타면서 석경이 산산조각 났고, 일제강점기 때에는 각황전 주위에 돌무더기로 쌓여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석경이 불전에 어떻게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가? 중국 베이징 인근에 있는 방산을 가면 석경으로 장엄된 석굴을 볼 수 있다. 다만 장륙전은 주위를 둘렀다고 하는데, 방산의 경우는 석굴 내부에 석경이 둘러져 있는 차이가 난다.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연잉군과 숙빈 최씨의 앞날을 축원하기 위해 지은 각황전은 궁궐 규모에 버금가는 전각이다.

'연기조사의 孝' '벽암대사의 忠' 어우러져

장엄·웅대한 품위 … 궁전건축물에 버금가

오늘날 화엄사의 역사는 연기조사의 효를 씨줄 삼고 벽암대사의 충을 날줄 삼아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사사자삼층석탑에 새겨진 드라마와 각황전의 압도적인 웅장함은 화엄사를 화려하게 빛낸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보고서 발간

문화재청, 보수·복원때 기초자료로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3층 목탑식 전각이다. 그런데도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1984년 화재로 불탄 것을 1986년 다시 복원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옛 형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이 작성해 놓은 실측도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재청이 1999년부터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중요 목조문화재 139건에 대해 정밀실측 작업을 해 오고 있는 것도 혹시 모를 목조문화재의 훼손이나 소실에 대비, 보수나 원형 복원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24번째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인 <부석사 무량수전>편을 최근 발간했다.

'본문'과 '도판' 2권1질로 나온 보고서의 '본문' 편에는 부재 하나하나의 정밀 실측 자료뿐 아니라 사찰의 연혁을 알려주는 중수기와 묵서명(墨書銘), 비명(碑銘) 등의 문헌 자료와 단청 안료 분석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500부를 제작해 대학도서관이나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배포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중요목조문화재 정밀실측 사업은 해마다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매년 5~10건씩 2008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 수리보고서가 나와 있거나(19건) 보수예정인 문화재는 제외된다. 해체보수시의 실측 자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성철 스님 10주기 기념 10월 국제학술대회

타종교·인문분야 등 국내·외 학자들 참석

불교는 흔히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조계종 전 종정 성철(1912~1993)스님의 수행가풍과 선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1996년 설립한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성철 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깨달음의 문화적 지평과 그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10월 16~17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그 동안의 돈점논쟁이나 간화선 논쟁이 수행방법을 다뤘다면 깨달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술회의준비위원장 조성택 교수(고려대)는 "깨달음, 특히 돈오(頓悟)적 깨달음이 불교 안에서의 현상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류 보편적 경험의 하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교학 전공자뿐 아니라 유교, 기독교, 이슬람 등 동·서양의 종교 전공자와 인문학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깨달음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논의하고 문화론적 관점에서 깨달음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내학자를 위주로 외국학자 몇 명을 끼워 넣는 '구색 맞추기'식 국제학술회의가 아니라 외국발표자가 더 많은 것도 관심거리다. 중국 스촨(四川)대학 종교학연구소 첸빙(陣兵) 교수, 일본 도요가쿠엔대학 찰스 뮐러 교수,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쿠엉 뚜 구엔 교수, 하버드대학 로버트 지멜로 교수, 켄터키대학 올리버 리만 교수, 플로리다대학 마리오 포세스키 교수 등 주제발표자 14명 중 9명이 외국학자다. 국내학자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목정배 총장, 미국 뉴욕주립대 박성배·전헌 교수, 조지메이슨대학 노찬영 교수, 김경집 박사(진각종 종학연구실 상임연구원)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채식 위주 식단, 음식 쓰레기 없애기 등 환경 친화적인 '그린학술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8881(代) Fax : (02)737-0697 http://www.yosiamun.com

" 마음은 정신적 사상들이 상호연관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마음은 몸의 생리학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는 역동적이고 항상 존재하는 과정(process)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 달라이 라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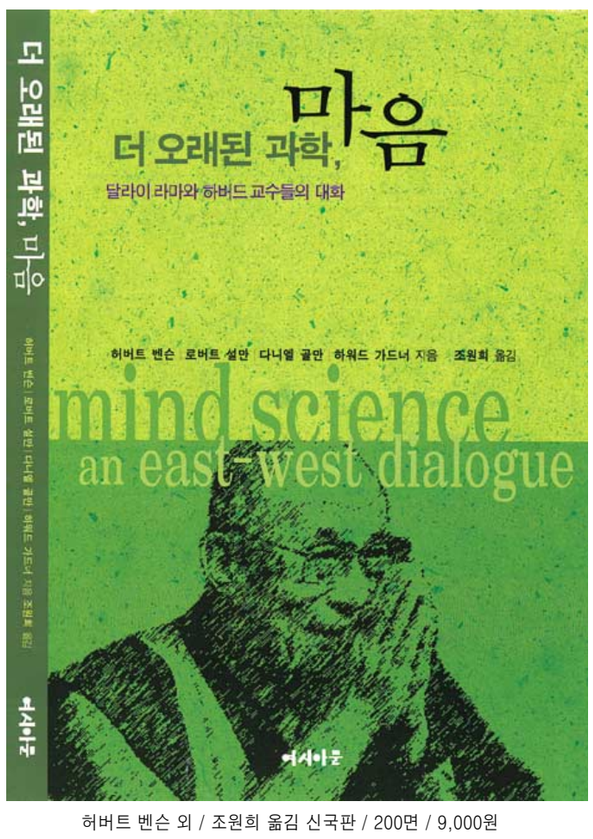
마음
더 오래된 과학,
mind science

달라이 라마와 하버드 석학들 '마음과학(Mind Science)'에 대해 말하다

마음과 몸의 섬세한 관계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이 관계에 대해 불교 사상의 대가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서양과 동양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마음의 본성, 인간성장 잠재력,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가?
『더 오래된 과학, 마음』은 현대 과학과 불교 간의 역사적 대화의 시작을 기록함으로써 이들 문제를 탐구한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티베트 불교학, 의학, 정신의학, 심리학, 신경생물학, 교육학의 권위자들과 만난 하버드 의대 심포지엄에 기반하여 인지, 인식, 마음과 몸 연결 작용에 관한 중요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서양 의료 체계에 마음의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던 심적(心的)요소를 인정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 투여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만성 통증 환자에게 동양의 명상기법을 도입하여 환자 스스로 통증을 받아들이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통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변해 주위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환자의 심적 요소를 개선하여 삶의 태도나 질을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양의 명상 기법을 도입하였다.

이제 이런 의학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것일까? 그 해답은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에게 있는데, 그는 달라이 라마의 허가를 받아 80년 초부터 티베트 명상기법을 포함한 여러 명상기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했다.



허버트 벤슨 외 / 조원희 옮김 신국판 / 200면 / 9,000원

☞ 법보시 연락은 02)373-0695로 연락 주십시오.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구직

공양주 모십니다
▷ 충주 화암사 진여원
043)851-6013

초하루법회,관음재,천도재등 염불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불심으로 봉행하여 드립니다
054)433-6315
016)811-6787

도반을 찾습니다
강원공부를 마친 35~45세 비구니스님 천일기도 정진과 불사목적에 귀의할 제반있는 승려로서 운전경력있는분, 미륵불상, 법당불사하실분
경남창녕군 소재1,000평
011-538-2371(~8.30까지)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61)782-98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23
011)433-5023

시달림. 49재 천도재. 각종불공 신행상담.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
연락주시면 성의껏 해드립니다
011)9211-52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월보시 80만원
054)872-4183
011-810-0698

부전 스님 모십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053)633-1444
011-9855-5037
원 기 사

같이 지내실 비구니스님 2분 모십니다
▷경기 동두천
011-271-2136

부전 스님 (비구 스님) 모십니다
031)266-6526
018-357-652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안양
지 장 암
031)452-9004

행 자 모 십 니 다
▷ 고졸이상, 40세미만
▷ 타종단 스님 개종 환영
▷ 대학, 대학원까지 책임후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2人)
033)462-5055

대체 의학 및 기 치료법 전수받아 기도공부하며 토굴 운영하실 비구니 구함
〈초심자도 가능〉
해동암 017-409-9599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늘에나는 평균수명과 늘에나는 순환기질환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Nattokinase)
◆ 혈전성질환 : 고혈압,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심근경색, 뇌졸증, 노인성 치매, 당뇨성 정맥 폐쇄증등의예방과 개선
◆ 국제혈전용해학회에서 분자구조식이규명되서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순수100%발효식품
◆ 제조원 : 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대건메디칼
(약식행심)
(TEL) 053)744-2502
(FAX) 053)744-2509
(H) 011-811-3938

육신의 영생법 저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기타 사고사등으로 갑자기 죽은 영혼들, 여러차례천도를 했으나 아직도 천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49일 만에 속시원히 천도해 드리며, 잘되고 않됨을 거의 확인 시켜 드립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눌림이 있는 분도 해결해 드립니다.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011-9243-0993

회주님이나 투자가 모심!
내용 : 소승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마음법의 도리를 통달한바 없이 통달한 자로서 기본 불사후 포교에 어려움이 있는 사찰이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불국정토 실현에 동참할 투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도안 광명.

불사포교:여력:마음법통달, 한의학전공, 외공내공무술전공, 역학달통등모든 정법으로서 또는 방편으로서 불국토 건설 준비가 끝난 스님입니다
신심이 돈독한 회주님이나 투자가 분들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도안 광명.
016-726-0830

탈종 공고
· 사찰명 : 길상사(99-15) · 법명 : 각원(14-003)
· 주 소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91-23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6월 25일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 공고
· 사찰명 : 연화사 · 법호 : 수 인
· 주 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대하리 98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법화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7월 9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역학수강생 모집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등
■ 30년 전통의 청운 엄운문 선생 직접 강의
※ 교재는 이석영선생 저서 〈사주첩경〉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 운 역 학 원
02)723-7449 / 011)9638-8229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동양학 수강생 모집
고금의 역학자료를 구비동도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본원에서 다음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개강일자 : 7월 1일(주1~2회 강의)
◆ 강의실관계상 각 과목당 12명만접수
☉ 태을 : 무료 강의 - 엄태문선생 (교재구입시 1년 강의)
☉ 풍수 : 월 10만원- 허정수 선생 (6개월과정)
☉ 명리 : 무료강의- 엄태문 선생 (3개월과정)
☉ 육효 : 월 10만원 - 소명호 선생 (3개월과정)
역학도서관 www.edoseo.com
02)3673-3403 / 011-229-2801

사 암 침 술 강 좌
▶과 정 : 고급과정-교재비 무료
▶일 시 : 7월 2일부터 매주 수 · 목요일(주 2회) 2개월과정
▶모 집 : 주 · 야간반
▶강의내용 : 황제내경 맥진법, 맥조절방법, 사암침술법, 처방요령, 장부의 허실증 판단, 즉효요법, 정골법, 60개 질병 종합실습. 책임 지도
사암침술학회 02)355-8312. 011-307-2975

운세..통화 즉시 잘 맞추면 보세요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02-826-5067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찾아드립니다. 굿,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일체 안합니다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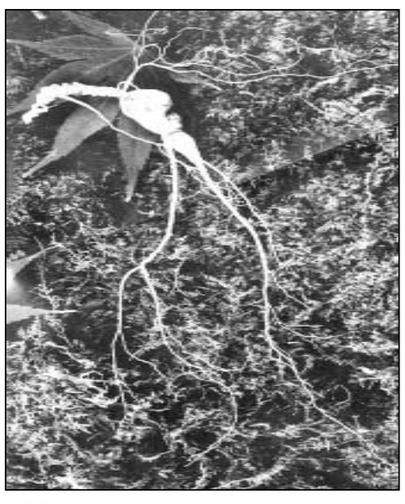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志 晛 易 理 學 硏 究 院
檀園門下生 韓 恩 炅
◆ 자연 오행과 사상 체질 & 수지침 시술법 강의 (오장 육부의 기맥혈과 장기 복진법. 맥진법)
◆ 自 意 管 理
◆ 단원역리학 강의(초급~연구반) : 수강료 5만원
◆ 생활 상담 · 작명 · 택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 강의내용
1. 기초반 (3개월)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광쇠, 쇠, 북) 다루는 법
2. 중급반(6개월) : 불공, 재사, 49제, 구병시식, 다비편
3. 작법반 및 어산(1년) : 천수바라, 나비춤, 화청, 각어산
♥ 강사 : 도진스님, 일각스님
영남불교 범음회 051)554-1518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하신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인연이 되어 옛부터 금강산에서 전해오던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기에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승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법제하여 (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 을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 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국내 최초 대필 서예원 개원
세계에서 가장 큰 필체보유자 불자(佛)100m쓴 기록이 있으며, 지리산에서 수행연구 하면서 이루어낸 행서체인 것입니다.
현판 액작 서예로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우리네 생활속에서 잠시 마음에 여유로서 서예를 접하고 익히면서 삶에 스트레스 해소, 정신수양으로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속에 축제 한마당인 월드컵 기간동안 대한민국 예술문화의 중심지 인사동에서 세계 여러나라 국내외 손님에게 대필 행서체로 직접 쓴 작품을 선보이며 무료로 드리는 등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개회를 펼쳤고 여기에 실린 작품은 (1996년 병자년 가을에 고.육관 도사 주문 작품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원 서예 연구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3 지원빌딩 6층
TEL 02-734-0314 (월~수 상담가능)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 당 : 25평
- 요 사 : 85평
- 부 지 : 1500평
- 가 액 : 4억2천

- 위치 : 대구
- 법당 : 30평
- 요 사 : 40평
- 부지 : 42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27평
- 요 사 : 27평
- 부지 : 555평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포교원 양도안내

- 현재 보살이 운영중, 양도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서울 중랑구 중화1동 단독주택 1층
- 큰방(법당)1, 작은방1, 거실, 주방, 화장실
- 즉시 양도 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절충 가능)

02)433-1689
011)752-1694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도계읍 소재
- 대지 400평, 건평 15평
- 석가모니불,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별도 모셔져 있음
- 법당2,산신1,스님방2(샤워실), 욕실, 창고1
- 가액 : 1천 5백만원(스님에 한함)

033)541-986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걸어서 10분거리)
- 대지 : 200평
- 법당 30평(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기와) ● 요사채 : 30평
- 산신각 : 7평 2층(1층은 스님방)
- 공양간 : 15평(현대식 입식)
※ 주방 별도로 있습
- 가액 : 1억 3천만원

052)294-7025
052)293-7025
019)292-7025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
- 대지 : 800평
- 법당 : 8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용인
- 부지 : 2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가액 : 9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노원구 시장내 2층
- 평수 30평,
- 대중방 3개(옥탑)
- 살림집기 일체구비
-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02)938-3567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사무실 요사(거실,방3), 식당,주방, 고시원(방 18개)운영
- 전망있은 지정 시가지의 교통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진인동 (앞 갓바위)
- 건물(조립식 2층) : 법당 13평 요사채 40평
- 대지 : 513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조용한 곳

011)807-2355
053)983-3889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 500평. 실평수 약 전평
- 임법당 30평, 목조황토기와. 2002년 11월 완공
- 계곡과 산세가 수려함. 온양 15분거리.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IC 5km 지점 2006년 완공예정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집기일체포함

017)479-7879
041)857-9056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수락산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100평
- 양도가 : 7억
- 산세계곡 좋음

- 위치 : 서울 시내
- 부지 : 1000평
- 법당 : 7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35억
- 주차시설 및 산세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7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 부지 600평(평지),대웅전 25평 (삼포,목조,단청), 요사채 50평
- 노송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고 시내인접. 지하수 풍부. 산신각, 용왕각 모셔져 있음
- 가액 : 1억 7천만원

055)673-6996
011)833-0374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기양평군단월면향소리
- 임야 17,600평 (준농림지 4,300평포함)
- 특징 : 계곡물이 흐르고 도로에 접한 마을 뒷산. 용문산 자락임
- 가액 : 평당 3만원

019)486-6951

건전하고 진실한 정신으로
고아원 또는 양로원등
복지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불교인으로서
땅이 필요한 분에게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땅 2,000평을
드리겠습니다.

011)9859-7425

秘傳 大六壬 역학 전수반 모집

인간사 길흉 적중률에서 神의 경지인 역학위의 최고 역학!
미국 하버드대학 동양학 연구소에서도 연구중인 六壬學
집중 책임지도(기초에서 고급활용까지)

고 려 육 임 학 회

· 서울지회 : 02)826-0179
· 대구지회 : 011-530-6652
· 대전지회 : 042)525-3880 (011-558-5496)
· 인천(부천)지회 : 032)655-7853
· 부산지회 : 051)783-6049
각 지역은 가까운지회에 연락요망

사찰안내

- 위 치 : 전북 남원시 소재
- 부 지 : 약 600평(종교용지)
- 법 당 : 30평(목조, 단청)
- 요 사 : 30평의 황토방 1동
- 기 타 : 석탑, 석등
- 가 액 : 4억 5천만원
- 특징 : 지방문화재(석불)있는 사찰로 기도도량으로 좋으며, 도심 인근에 있어 포교지로 좋습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소재(하남)
- 부지 : 약 300평
- 법당 : 30평(임법당)
- 토굴 : 20평(황토,목조)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토굴로 도심인근에 있어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좋음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722-8968
대구 ☎ 053)782-5504
H·P 018)689-045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요사채 25평
- 교통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사찰 안내

- 대구 동구 송정동(대구근교)
- 대지 : 306평
- 법당 20평, 산신각
- 부대시설 : 요사채(방5개) 공양실(하우스) 20평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팔공산 순환도로에 인접

053)985-9824
017-522-5544

암자 안내

- 위치 : 의성군 소재지 복지시설및살버타운,수련원 하실분 빈제은천 1 km지점. 2차선도로에서 300m지점
- 임법당 100평, 황토방1동, 주차장1동 정원수 1만포기 총 3500평. 옆산1만평 사용가능
- 평당 10만원. 창건주 직접

017)813-9126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다사 버스 종점 근교
- 대지 : 300평, 밭 200평
- 건축물(한옥기와집) : 방3칸, 법당,부엌,창고
- 주차시설 용이
- 가액 : 월10만원이나 6개월 일시불일 경우 50만원
- 시설비(법당내 삼존불등): 1500만원

011)9576-8838

사찰수련원양도 안내

- 대구 동구 송정동 당정마을(팔공산 파계사 西3km)동대구역 20분 2차선 포장도, 주변 30-40대 주차가능
- 토지 : 대지210, 채소밭110, 합320
- 건물 : 목조2층 기와, 철근 콘크리트조. 2002년 11월 준공 1층 - 객실방3칸,큰거실,중앙계단실,응접실,내실,주방,부엌,욕실, 보일러실(심야전기기름보일러 겸용) 2층-법당, 수련실, 복도, 주지실 방2칸, 거실, 욕실
- 특징 : 요산요수, 수려한 자연환경, 앞에시냇물. 뒤는 竹林병풍. 확트인남향. 한쪽의 동양화.
- 가액 : 현장답사후 결정(개인사정상 부득양도)

053)983-9933 / 016-875-9833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 산내
- 부 지 : 32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45평
- 가 액 : 1억8천

※산세와 전망좋은 암자

- 위 치 : 사천 곤명
- 대 지 : 7,300평
- 법 당 : 28평
- 요사채 : 57평
- 가 액 : 4억5천

※ 교통좋은 여법한 도량

- 위 치 : 천태산
- 대 지 : 13만평 (양산 원동과 삼랑진 중간 임야)
- 가 액 : 3억9천

※ 도로완비, 산세수려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동작구 상도2동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 2층 지하
- 삼존불
- 가액 : 5억3천만원(절충가능)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의정부시내
- 평수 : 65평. 최상층
- 법당, 주방, 사무실, 방, 화장실
- 전철역 앞. 옥상 사용 가능
-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용
- 전세 6천만원
- 시설비 : 답사후결정

031)872-8227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남구 인근
- 대지 300평, 법당 30평
- 산신각 2평, 요사 30평
- 객실1동, 창고1동
- 진입로 완비. 상수도 완비. 지하수도 있음
- 가액 : 2억원(절충 가능)

011)524-3402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
011)598-867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조건 : 종중땅(400여평 사용. 1년도지 60만원. 인법당겸 요사채 45평, 산신각 35평, 건물등기평수는 12평임. 삼존불, 심야전기,심야온수,약수및 수도설치)
- 가액 : 9,500만원

011)9770-659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보건소 앞 롯데백화점에서 200m 떨어져 있음
- 2층 건물에 2층
- 크기 : 54평
- 가액 : 2천만원, 월 65만원

051)552-7828
011)862-593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대포동
- 대지 : 188평
- 법당 23평, 요사 37평
- 2010년 성남, 이천 전철 완공 시내에서 자가용 6분
- 가액 : 1억 7천만원
- 전세 7000만원(장기가능)
- 법당 시설물 일체

011)9142-3737
018)309-1760

사찰 안내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소재
- 평수 : 100 여평
- 법당, 방 3개
- 가액 : 6천5백만원

02)998-1027
011)9119-7784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안동시시내 위치좋음
- 종교 용지 : 436평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칠성각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 조계종 승려에 한함
- 시내가 가깝고 약수물을 식수로 사용하며 비구니 사찰임

011)9581-6044

임야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청학동 가는 길목
- 임야 3500평, 답 700평(준농림지)
- 특징 : 번지內 차량 진입 가능 전기 有, 관정 有
- 종교단체, 공원묘지, 납골당 조성 최적지
- 가액 : 평당 2만원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55)882-5934
016)9307-5954

토굴(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 소승의 수행일정변화로 (토굴수행) 포교원 맡을 분을 찾습니다
- 법당 20평, 공양간 4평, 승방1. 증축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조건 : 1)완전인수 2)책임운영
- 주택 밀집지역, 교통 편리 주차 공간. 대로변 주차장 2층

011)9397-010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산신각, 방, 주방,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內
- 대지 200여평, 건평 53평
- 법당 24평, 방 4, 주방 식당 13평, 화장실
- 가액 : 전세 2억(절충가능)

* 최근 신축한 단아한 목조건물 임.
단양 금수산에서 수행 정진하는 관계로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경관이 수려하고, 조용하여 수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02)745-6939 / 011-244-2083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진구 군자동 341-32 원광사
- 평수 : 약 40평. 방3, 욕실2
- 질성탱화,신중탱화,후불탱화, 산신탱화,나한부처님 108불, 부처님 참불 모시고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55만원

02)497-8382
018)205-5979

포교당(급)안내

- 위 치 : 서울 삼선동 4호선 한성대전철역 옆
- 법당, 작은방, 주방
- 10 평
- 보증금 +시설비(1천만원), 월 45만원

011)732-6933

계곡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중감마을 → 약700m
- 준 농림지. 논 1,016평
- 건축 허가 지역. 분할 가능
- 평당 2만원
- 가액 : 1천만원

011)9393-4965

암자별장 및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 수 :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2천 5백만원
- 시 설 : 법당,부엌,방2,욕실

011)9239-136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소재 (도립공원 대둔산 인근)
- 수목 울창 계곡 / 대전에서 25분 계룡신도시에서 10분
- 차량 진입
- 이용 가치 : 사찰부지, 납골당, 종교시설, 연수원, 생수개발, 휴양시설(참나무 찜질방) 등
- 면적 : 7만 3천평
- 가액 : 평당 1만원(총 7억3천만원)

017)405-1554
야간)042)522-258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삼존불상, 동개금불상, 산신각
- 대지 230평
- 주차공간 원활
- 주방, 거실, 방3, 산신각
- 대웅전 지을 부지 마련되어 있음
- 가액 : 1억원

017)812-0108

사찰 안내

- 위치 : 아산과 공주 경계
- 대지 3400평, 법당 15평
- 요사채 25평
- 가액 : 4억5천만원

041)841-0751

덕룡산 미륵사

삼성전 탱화불사 모연문

칠성,산신,독성,탱화불사에 동참하시어 제불 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소원 성취 하시길 빕니다
동참금 1인 5만원
(탱화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124
061)331-3436
대한불교조계종 미 륵 사 주지 합장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 대 지 : 400평
- 임 야 : 2000평
- 가 액 : 10억원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207-943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정2동 전철역에서 3분거리
- 평수 : 약 25평
- 방,부엌,화장실,세면실
- 보증금 : 3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3백만원만

055)884-1110
011)866-7372

포교당(급)안내

- 위 치 : 경기 부천시 국철 1호선 교통 편리
- 상가 2층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32)612-6917
016)368-6917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IC에서 승용차로 5분거리
- 대지 110평, 건평 약 40평
- 임법당(10평), 방2, 거실, 주방, 수세식화장실2, 태양열주택
- 차고, 주차 시설 완비
- 가액 : 5천만원

016)417-2277

전국토굴 기도도량 안내

- 경북봉화 토굴 6500만원
- 김천 토굴 1600만원
- 신원사옆 기도터 2800만원
- 충남서대산 토굴 1000만원
- 연산 절터 6000만원
- 신원사옆 절터 6000만원
- 원주백운산 암자 8000만원
- 신원사옆 임법당 6000만원
- 신원사옆 기도도량 2억5천만원

(전국토굴암자 수시접수 다량보유)
011)732-6933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 대 지 : 600평
- 가 액 : 6억원

011)9852-7263

목어

청계천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청계천…. 맑은 계류가 흐르는 냇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청계천'은 차량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삭막한 고가도로다. 청계천 입장에선 너무도 억울한 일. 이제 그러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해원되는가? 청계천 복원 계획이 발표되고, 맑은 계류가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서울의 꿈이 푸른 하늘처럼 펼쳐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대한 비용과 공사 과정의 교통대란에 대한 염려의 구름이 그 한 켠을 차지하고, 대책 없는 철거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천둥처럼 울리기도 한다.

이 그림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리는 청계천 복원의 그림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몇 사람의 뜻에 의해 후다닥 해치웠다가 두고두고 지탄받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요즈음 우리는 앞날에 또 복원해야 하는 청계천 복개 공사 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만금이 그렇고, 생색내기 식의 대형 댐 공사가 그렇다. 여전히 과거의 개발지상주의의 망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지은 업을 단칼에 자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더 나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기에, 조심해서 매듭을 잘 풀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할 큰 방향에 대해 헷갈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은 옳지만, 그것이 지나쳐 잘못된 방향을 옳은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이르면, 이를 일러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는 것이리라.

범죄방지에 스님들 앞장

스님들이 청소년들의 가출과 범죄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州)의 공업도시 로웰은 가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계 청소년들을 캄보디아 출신 스님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미국에서 범죄방지를 위해 불교계 지도자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동남아시아계 인구 증가로 관련 범죄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던 로웰시는 이번 범죄방지프로그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장군죽비

국방부 대령, 스님 시위도구 강탈

국방부 앞에서 김태복 장군 사건 관련 1인 시위를 하던 태허 스님(용마산 선은사 주지)이 시위도구를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과 군사법원장인 박 모 대령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던 태허 스님은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박 대령에게 들고 있던 시위도구(피켓) 3개를 강탈당했다. 박 대령은 시위도구를 강탈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자 세상보기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대화와 타협' 없는 노사문화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 노사갈등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보편적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생산은 자본과 노동 간의 사회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 결합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은 시장에서 화폐로 전화되어 다시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때문에 노사갈등과 그 반복성은 자본주의사회의 내재적 본성이다.

그러나 노사갈등이 표출되고 해소되는 방식은 각 사회마다 다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본주의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크게 대별해 볼 때, 시장기제를 강조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냐 혹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라인형 자본주의'냐에 따라 노사갈등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노사갈등은 전적으로 시장기제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시장 장악력이 약한 약자는 곧 패배자가 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국가의 개입에 의한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에 따라 노사갈등이 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리해지고 어떤 때는 노동자가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통상 우리는 전자를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모델로, 후자를 유럽식 조합주의 모델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에 기초한 노사문화의 제도화이다.

그러면, 한국사회의 노사갈등 양상과 그 해결방식을 보자. 주지하듯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발전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그 동안 한국사회는 국가에 의해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노사갈등을 억제했거나 혹은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국가의 개입에 의한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경영자는 영미식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파업 중심의 극한적 투쟁방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기 때문에 영미식 모델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럽식 조합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노사관계 및 갈등해결방식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련의 파업사태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일관된 정책기조 없이 대응한 것도 우리사회에 제도화된 노사문화가 부재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화에 부합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불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불교의 연기설에 입각할 경우,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노자(勞資)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노사관계의 매개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 발생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노사관계에는 노사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미 생물권과 생명권,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연대책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럴 경우, 노사갈등은 노사간의 상생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의 상생을 결과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제도화는 형식적으로는 조합주의적 형태를 띠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노사, 정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단체의 참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재검토 관련 국민 토론회

환경과 조화이룬 '지속 가능한 개발' 절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재검토 관련 국민토론회가 1일 열렸다. 노선재검토위에 참여한 10명의 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선 토론회에서 조상희 우이령보존회 부회장과 한형관 한맥기술 전무, 허광 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현고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이 지명토론자로 나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주>

조상희(우이령 보존회 부회장)

의정부 외곽 우회노선이 결정되면 의정부 시민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인식하는데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무조정실도 편가르기식 논의를 진행시킨 것은 잘못이며 조사 및 토의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사업 명칭과 관련해 의미를 축소시켜 '사패산'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또 북한산은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할 정도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를 건설할 경우 산의 모습은 달라지고 결국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

'길이 아니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지금 상황에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당초에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왜 서울시 안으로 도로를 건설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또 노원구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교통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서울시의 공사를 일본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온다는 점을 볼 때에도 이번 사업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허광(환경영향평가협회 이사, 안양대 겸임교수)

국립공원 관통노선으로 갈 것이냐, 외곽순환노선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의 생명체가 중요한 만큼 (국립공원)밖의 생명체도 중요하다. 환경파괴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2013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돼 우리가 '탄소세'를 내야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위원들이 일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 · 분석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국무조정실이 해야 했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노선이 바뀐다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국토 면적의 67%가 산으로 구성돼 있는데 산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분석도 잘못된 것 같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바로 중국의 공해이기 때문이다.



1. 조상희-사업명칭과 관련 의미축소 잘못
2. 허광-지역이기주의에 노선바뀌어서야…
3. 현고스님-효율성,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
4. 한형관-정치적으로 판단말고 결과토대로

현고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북한산 관통노선에 대해 대안이 없고 기존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시절에는 경제개발이 우선이고 환경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지금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화두다. 배고픔의 논리에 입각한 개발은 합리성을 갖지 못한다. 또 국민은 양보다 질을 원하는 가치변화를 하고 있다. 북한산 문제도 양보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

불교계는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가치척도에 놓고 판단하자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노선재검토위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만 가지고 노선을 검토한 것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동기가 됐으며, 당시 합의에 입각한 노선검토위 구성이 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북한산은 국립공원인데 일반임야와 같은 수준에 놓고 판단하려는 점도 잘못됐다. 일반임야처럼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려면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먼저 국립공원지정 해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형관(한맥기술 전무)

이번 조사 내용이 너무 선동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북한산 문제에 대한 가치관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한 것이 안타깝다.

북한산 관통도로라는 것은 북한산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산의 한 봉우리인 사패산에 터널을 시공하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 북한산 노선 검토에 참여한 공무원, 시공회사 관계자들 모두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노선을 계획 · 설계해 왔다.

지난 7년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받은 직 · 간접의 피해는 매우 크며, 조속히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도로건설절차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설계를 비롯해 주민합동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모두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노선은 환경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선이다. 7년여간 진행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선변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 노선의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활 동 지 역	지사장명	주 소 및 연 락 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 / 창령 / 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 / 문경 / 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 / 창원 / 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 / 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육임(六壬) 수강생 모집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6기
한국육임학회 홈페이지 : www.taotemple.net

육임학당 「효사숙」 제 6기 육임학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학습기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3개월 13주 52시간이며, 음양오행의 기초 · 기본을 모르는 분들은 매주 본 강의 전 2시간에 걸쳐 사전 교습 받게 됩니다.
역학공부 긴 방황의 끝이 될것입니다.
육임(六壬)은 사람의 일(人事)을 밝히는데는 따를 학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방문(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일로 왔는지」「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등 20여가지를 미리 알고 먼저 말 해주게 되는 최고 · 제일의 고등한 오행술 입니다. 묻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릇 활인천역자의 예언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상담은 공허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긴 운로(運路)를 따지는 데는 사주(四柱)만한 학문도 없습니다만, 당장의 담면 길흉성부(吉凶咸否)를 판단하는데는 육임(六壬)을 능가하는 학문이 없습니다. 육임은 적중률이 신시(神示) 입니다.
문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먼 훗날의 일을 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되고 안되고, 할지 말지 등의 의문을 물으러 온다는데 있습니다. 좀더 확실히 말하자면 다른공부 10년을 해도 갈급(渴汲)한 목전사(目前事)를 딱 딱 부러뜨릴 수 있기가 힘듭니다. 일반 오행술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임에서의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쉽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또한 '몇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가 무엇때문에 올 것이며 그일이 어떻게 될것인가?'를 오늘 감지하여 밝혀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무슨 부정빌미가 왜 들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이 났는지」등을 정확히 말해주고 그 해소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상을 통해 검증되어 있는 육임의 영험입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육임학당 「효사숙」 강주 姚史 선생께서는 「육임래정비법」,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육임운명판단법」, 「육임비요형이상법」, 「육임비디오강의」, 「육임래정비법CD」, 「육임신수비결」, 「육임래정비법휴대용」, 「육임래정비법日語版」 등 11권의 육임서를 저술하여 비선(秘線)으로만 전달, 우리 활인천역자 들의 실력을 크게 고양시킨 분으로서 3년전부터 육임강의를 시작하여 전국에 육임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입니다.
여러분의 일대 전기(轉機)를 위해, 여러분을 「효사숙」 제 6기로 초대합니다.
단, 활인천역자로서의 그릇인지 여부와, 공부한 결실이 있어질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강 받고 있습니다. 아무나 공부시키지는 않습니다. 육임학당 「효사숙」이 그동안 지켜온 원칙덕목 입니다.

■강 사 : 姚 史
■강의시작 : 7월 18일 오후 5시 (기초 · 기본 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등록마감 : 7 월 12일 12시 까지 면접심사후 등록
■정 원 : 30명 ■등 록 비 : 1백 5십만원
■교 재 : 「효사육임강의록 上 · 下 중보판」 드림
■장 소 : 수유리 강북구청 왼쪽 옆건물 4층 「육임학당 효사숙」 (4호선 수유역 8번출구)
■특 전 : 수료후 본회 회원으로서 임원 · 회원대상 「수요고급실기 강의」를 무료 지속 수강하게 됩니다.

●육임학당 「광주숙」 제3기 효사선생 직강 매주 월요일 오후3시 (011-9606-7090 유선선생)
●육임학당 「진주숙」 제2기 효사선생 직강 매주 일요일 오후4시 (055-755-1644 남곡선생)

문의 : 02-993-8680 / 02-998-8683
입금계좌 : 우리 813-041583-13-101 김영란

작년 수해 문화재 복구 진척없다

경북지역 33곳중 15곳 공정 30% … 올 장마 무방비

직지사 3층석탑 지난달에야 설계 끝나
청송 수정사 대웅전 15㎝가량 '기우뚱'

6월 24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 문화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상북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루사 등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북지역 지정 문화재 33개소중 18개소는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거나 8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30% 이하의 낮은 복구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시 재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3층 옥개석 일부가 떨어져 나간 보물 제1186호 김천 직지사 청풍 료 앞 삼층석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늦어지면서 6월 30일에야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축이 붕괴된 유형문화재 318호 경주시 외동읍 감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도 복구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등 상당수의 문화재가 장마 등 풍수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송 수정사 주지 선주스님은 "대웅전(문화재자료 73호)이 약 15cm 가량 기울었고, 산신각도 비가 새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시에서는 우장막 설치만으로 그치고 있다"며 "한번 소실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문화재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해 시급히 보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관계자는 "복구가 지연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 2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 관계 전문가들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문화재에 대한 정밀실측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석축 등의 공법에서도 풍수해에 약한 일자형 쌓기를 지양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동국대 석림회 대구경북지부 창립식이 6월 27일 대구 불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석림동문회 대구경북지부 출범

창립 법회…초대회장 재원 스님

동국대 조계종 종비장학생 출신 스님들 모임인 석림동문회가 6월 27일 대구·경북지부를 창립했다.

석림동문회가 서울 중앙회 이외에 지역에 지부를 설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창립법회는 석림동문회 회장 법타스님, 대구경찰청 경승실장 원각스님, 정각원장 법혜스님 등 2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불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석림동문회 대구경북지부 초대회장에는 대구불교교육대학 학장 재원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인터뷰

박원구 기자

17일 달빛음악회

지율 스님, 내원사 주차장

매월 한차례의 산행을 갖고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는 지율스님이 달빛 음악회를 연다.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원장 지율스님은 양산을 사랑하는 사람모임과 12일 저녁 8시 내원사 주차장에서 내원 계곡의 맑은 물소리와 보름달빛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펼친다. 특히 음악회에 앞서 은은한 달빛 아래 숲을 거니는 달빛 숲 체험 시간과 반딧불이가 많은 계곡의 특성을 살려 반딧불이 불빛을 따라 숲길 걷기도 함께 진행한다.

지율스님은 "경부고속철 기존 노선의 문제점은 아름다운 자연과 호흡하면 절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55)374-6466

천미희 기자

장맛비 타고 나투신 마애삼존불상

숨어있던 통일신라 마애불이 새로 발견됐다.



높이 1.4 너비 0.8m 크기
광배와 연화대 양각돼

영주시청은 6월 29일 보물 221호인 경북 영주시 가흥동의 바위가 장맛비에 무너지면서 바위 안쪽에 조성돼 있던 마애불(사진)이 발견돼 문화재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높이 1.9m 폭 1.2m 두께 1m의 바위에 돋을새김으로 조성된 마애불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여래좌상으로 눈과 코 부분이 훼손된 것을 제외하곤 완전한 형태다.

문화재청 김창균 문화재전문위원은 "8세기 통일신라 작품으로, 보물급 지정 가치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거창군 불교신도회 12월 창립

준비위, '야단법석' 공연 … 사실상 활동

거창에 불교신도회가 창립된다.

거창군불교신도회는 준비위원회(위원장 윤구. 아림신문 사장)을 꾸리고 거창 불심 모으기에 나섰다. 거창군불교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8일 거창군 문화회관에서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초청 공연을 갖고 창립을 위한 인적,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거창군 문화회관 7백여 석이 매진될 정도로 군민들과 불자들의 호응을 얻은 '야단법석' 공연으로 거창군 불교신도회의 활동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거창지역 13개 사찰의 신도회와 거창공무원불자회, 심우사 불교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거창군불교신도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12월 공식 창립을 앞두고 매월 정례 모임을 통해 거창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실천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영 연화사는 6월 27일 산내 암자인 보덕암에 해수관음 보살상을 세웠다.

해수관음보살상 점안
연화사 보덕암에 조성

경남 통영시 연화도의 연화사(주지 도응 스님)는 6월 27일 보덕암에 10m 높이의 조성한 해수관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약 20년 전 시작된 도서포교의 원력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다"며 "불사중인 보덕암이 완공되면 중국 보타낙가산 못지 않는 기도수행처로 도서포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 불교방송, 포항·안동에 중계소

동해안·경북북부 가청권에

대구불교방송이 포항과 안동 중계소를 설립했다.

대구불교방송은 지난 6월 28일 정보통신부와 경북체신청으로부터 포항과 안동 중계소 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립추진중인 포항중계소와, 안동중계소는 각각 주파수 FM 105.5MHz와 97.7MHz로 오는 10월 시험방송을 거쳐 11월 중순 정식 개국할 예정이다.

이로서 대구불교방송은 그동안 난청지역이었던 포항, 영덕,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과 안동, 영주, 의성, 문경, 구미 등 경북 북부지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박원구 기자

청담인욕정진 수련대회
청담사상연, 참가자 모집

진주산업대 부설 청담사상연구소(소장 김기원)는 11일부터 3일간 고성군 옥천사에서 '제 1회 청담 인욕정진 수련대회'를 연다.

이번 수련대회에서는 청담종사 선양사업에 관한 토론, 참선, 선기공, 발우공양, 산행, 법문, 찬불가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심을 다진다. 이 밖에도 천수경, 금강경 독경을 비롯 성보문화재 학습, 불교 교화를 위한 토론 등이 진행된다. 문의: (055) 751-3699, 672-0100. 천미희 기자



통일신라 말 조성 추정
금동여래좌상 발견

제주도 애월읍 월영사(주지 정우)에서 통일신라 말(8세기말~9세기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좌상(사진)이 발견됐다.

높이 115cm의 청동으로 제작된 불상은 우견편단(右肩偏袒,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게 가사를 입은 모습)에 얇은 천의(天衣)를 걸쳤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돼 있다. 상호는 사각형으로 원만하고 턱이 좁은 편이며, 긴 눈꼬리와 살짝 미소를 머금은 얇은 입술이 인상적이다. 목과 오른팔, 왼팔에 땜질한 흔적이 있으나 보존 형태는 완벽한 편이다.

문화재위원 정영호 교수(단국대 박물관장)는 "왼쪽 가슴의 삼각형 주름 등 양식이나 상호가 887년 조성된 불국사 금동불좌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불상은 15년 전 재일동포가 절에 기증했다. 권형진 기자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인 업장 덩어리를 녹이며!

주말 수행 체험 이야기

◆ 중단전차크라 (가슴명치) 막힌 지옥 덩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며 일주일간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신비로운 도인체조를 단 한번으로 배우고!!!

◆ 독 경 염 불 의 들숨시 가슴과 어깨를 들먹거리고 자세 불량으로 거꾸로 호흡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바른자세와 호흡법, 운율법을 배워 진정한 수행과 행복이 시작된다.

◆ 자동단전호흡 은 참선을 위한 중요한 기초 수행으로, 수행 자라면 누구나 배워야할 단전호흡이 일체 무리없이 저절로 되어 일할때나, 쉴때나, 잠잘때에 그대로 적용되어 생활 禪이 절로 된다.

◆ 와 선 단 20분의 투자로 세상 살맛이 난다. 즉석에서 완전한 이완과 에너지 충만의 확실한 체험을 하게되며 초롱초롱 빛나는 두눈이 와선의 진가를 말해준다.

◆ 행 선 복잡한 머리가 상쾌하고 맑아지며, 짓눌린 어깨가 가벼워 진다.

◆ 업장소멸진참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업장을 지우고 부처님께 바친다.

◆ 기차게 절하는법 숨차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고, 맥박이 빨라 지지 않는 호흡에 맞추어 절하는 법을 배워 완전한 수승화강이 된다.

◆ 소리산의 정상(출세봉)에 올라 출세를 다짐하며!!!!!

◆ 수련일시 : 매주 토요일 : 저녁 8시~12시, 12시취침 ~ 일요일 : 아침 5 ~10시(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3333배 철야정진 합니다)

◆ 준 비 물 :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절을 기차게 잘하는법 읽고 올것.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도 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http://cafe.daum.net/sorisan

◦ 오시는길 : 상봉터미널 - 청평댐→설악면→모곡종점 하차 전화요 동서울.상봉터미널 - 양평→용문→단월 하차 전화요

★ 자가용 : 양평에서 홍천방향→용문터널→단월→대명비발디파크 입구에서 청평 방면으로 6km 지점→석산주유소앞→소향산장→법왕정사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약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믿을 수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오직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인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오가피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20여년을 하루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가피를 키워온 성광수씨의 정성! 믿을 수 있는 수신토종오가피의 신념입니다.

기술이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신토종오가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내유일의 정부출원 바이오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인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에 대한 연구를 4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1년전 온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1년전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감동했습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이뤄낸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오가피는 오직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사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전화주세요! (02) 2201-3333

“근기있는 ‘새끼사자’들 방부 받아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스님은 6월30일 법수선원 보림도량 개원법회에서 불자들에게 용맹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성수큰스님 서울불자 참선지도
세곡동 법수선원 보림도량 개원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이 근기 있는 ‘새끼사자’를 키우기 위해 도심으로 나왔다.

서울 세곡동 법수선원(주지 영주)은 6월 30일 조실 성수큰스님 초청 선방 보림도량 개원법회를 열고,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법회에서 성수스님은 법문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보면 산과 들이 모두 내것이 된다”며 “하루 5분만 참선하면 오도독 오도독하는 불교공부 맛을 느낄 수 있다. 꼭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사자처럼 치열하게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선방 보림도량은 주지 영주스님이 하루 8시간 재가불자들과 함께 참선정진하며 지도한다. 재가선객들은 일정수준이 되면 매달 초하루 법수선원 보림도량에서 성수 스님을 직접 친견하고, 탁마 받을 수 있다.

재가선객 40~50명 회원제로 운영되는 50평 규모의 보림도량은 근기 있는 불자들을 선별하여 방부를 받을 방침이다. 문의 02) 3411-1139.

법수선원 주지 영주스님은 “참선수행을 통해 나를 깊이 있게 참구해보자 하는 사람들만 방부를 받겠다”며 “소수정예를 표방하는 선방개원은 ‘근기 있는 새끼사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은사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수선원은 2년 전까지 100여명의 재가불자들이 성수스님의 지도아래 참선 수행하던 재가선방이 운영됐었다.

이번에 개원한 재가선방 보림도량은 법수선원이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한편 성수스님은 현재 경남 산청군의 폐교를 인수한 후 해동선원을 개원하고, 재가불자들의 참선지도에 전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사 대웅전 해체보수 지연될 수도

2차 시공사 선정 경우
공사재개 4~5개월 후



◇해체보수공사가 진행중인 조계사 대웅전 모습.

본격적인 해체보수공사를 앞두고 있는 조계사 대웅전이 연속공사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4~5개월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8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조계사 대웅전 본격 해체보수공사를 앞두고, 2차분 시공사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사금액이 커지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자칫 감사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조계사는 새로운 시공사의 선정을 위해서는 설계 1개월, 시공업체 선정 1개월, 현장파악 2개월 등 총 4~5개월 뒤에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공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공사 재선정은 공사 후 하자보수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김원우기자

원흥사, 청주 산남동 일대 소재
충북민예총 김승환 회장 주장

‘원흥사는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 소재했다’

충북민예총 김승환 회장은 1일 발표한 ‘원흥사의 발굴과 보전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원흥사는 설화로 존재할 뿐 아니라, 현재 충북대에 보관돼 있는 석탑과 원흥이 마을 주변의 활석, 주추, 다듬은 돌 등 산재한 유물의 흔적으로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금속활자 직지를 탄생시킨 흥덕사와 그보다 앞서 고려 목판본 금강경이 인쇄된 원흥사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흥사지 보존에 대한 여론은 한국토지공사가 청주시 산남 3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충북지역 45개 시민단체는 충북도에 최근 택지개발 계획 인가의 전면 유보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중이다.

김원우기자

청주불교방송 신임사장에 지원스님



파행방송과 공금유용, 감사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중 스님이 최근 일고 있는 회사 내분에 책임을 지고 6월 10일 자진 사퇴했다.

청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위원장 지명 스님)는 6월 26일 운영회의를 열고 지원 스님(사진 · 법주사 기획국장)을 6대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고 본사에 정식 임명을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직원들의 삭발투쟁으로까지 번졌던 청주불교방송의 내홍은 일단락됐다.

지원 스님은 법주사 포교국장, 전주 송광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새만금사업 저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청주=이상우 청주지사장

전주 연화사 교도소 독경법회 개최

전주교도소에서 독경법회가 열렸다.

전주 연화사와 정읍 일광사는 6월 26일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재소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경법회를 개최했다. 이어 열린 독경대회에서는 <법성계><부모은중경>을 독경한 한영호 한일수 불자가 1, 2위를 차지했다.

독경대회 후에는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이 달의 불자상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 달의 불자상 시상식에서는 장재열씨 등 15명이 금일봉을 받았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우리 절 우리 신도

청년포교 앞장서는 ‘전천후 일꾼’

전북 정읍 일광사 정인택 거사

불교의 불모지…. ‘전북’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기 쉬운 말이다. 하지만 이제 전북 불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탈피해 ‘젊고 활동적인’ 불교로 거듭나고 있다. 전북 정읍의 일광사 역시 이러한 정읍 불교계에 작지만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거사들의 활발한 참여와 1600여 세대에 이르는 신도들, 주지 승천 스님의 원력으로 지역의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다니며 펼치는 봉사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광사 신도들이 지역 단체나 불우이웃을 찾아다니며 쌀이나 보시금을 전달하고, 군부대와 교도소를 찾아가 교화활동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주지 스님의 추진력과 신도들

‘부처님 그리기’ 등
행사통해 지역포교에 앞장
불교학생회 회장시절 노하우와
대불련 커플인 부인내조가 원동력

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택(44, 법명 혜산) 거사 역시 일광사의 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숨은 일꾼이다. 일광사의 ‘열혈 신도’이자 지역 불교발전에 발벗고 나선 ‘젊은 일꾼’인 정 거사에게는 청년회 회원들과 지역 불교의 활성화와 젊은 불자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다. 때문에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행사를 열어 어린이 불자를 육성하고 지부단위 회의와 모임을 통해 포교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올해 8번째로 열린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는 정읍시내의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정 거사가 승천 스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12년 전. 전북불교대학에서 ‘사제지간’으로 만나 20여년 동안 교도소와 군부대,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쳐온 승천 스님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왔다. 정 거사 또한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전주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 교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정 거사가 이렇듯 불교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대불련 커플인 부인 김유진(법명 대불심)씨의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인 정인택씨는 시간이 나면 일광사를 찾아 기도정진한다.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다. 전북지역 고등학생연합 불교단체인 룸비니학생회와 원광대 불교학생회 회장를 거치며 차곡차곡 쌓아온 불교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 정 거사가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법당에 들어야 한다”는 정 거사는 “젊은 불자들이 불법홍포에 앞장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더욱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읍=여수령기자



추천의 말

승천스님 일광사 주지

군포교와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정읍 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일광사에는 젊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택 거사는 청년불자들의 포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찰에서 봉사활동시 뒤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신행생활을 하며 불교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신행, 봉사활동 묵묵히 실천

만우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45일만에 영통(靈通)을 이루다!

「동방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많은 스님, 법사님들이 파동명상을 통하여 경험하신 신묘하고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에서 포교원 <구룡사 052)298-9945, 017-521-9952>을 운영하시는 만우스님(영통수련반 2기생)은 지난 2002년 10월말 경, 저희 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파동명상수행**을 하시던 45일째 되던 날 새벽, 스님의 인당혈에서 평소와는 다른 감각(심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 스님은 **영통靈通(숙명통)**이 열려 구룡사를 찾는 많은 신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도하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만우스님은 평소에 방편으로 천문과 지리, 육임과 명리학 등에 관계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공부들은 스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해 항상 답답해 하시다가 본 연구소의 **영통수련반**에 입문하시어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하게 되었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다. 현재 숙명통을 이룬 스님의 소문을 듣고 구룡사로 밀려드는 많은 신도들(하루에 4-50명)의 일상사에 대한 친견 때문에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본 연구소와 인연을 맺은지 불과 6개월만에 신도수가 2000명으로 불어나 지금은 모처에 큰 불사를 일으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다 마쳤다는 말씀을 근간에 전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원격명상제령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파동명상수업외 :**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通을 열 수 있게 한다.(숙명통..)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7층 '지장보탑' 건립…참회기도로 세상 밝혀

양산 불광사(佛光寺)

부산에서 울산으로가는 7번 국도변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에 소재한 불광사(佛光寺)는 앞으로는 저수지를 바라보며 멀리는 사찰을 둘러 싼 작은 봉우리들이 산문을 형성하고 있는 천성산 줄기의 명당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난 91년, 주지 청봉스님이 이곳에 터를 마련하고 불광사를 개창한 이후, 지장기도가 있는 날이면 영남 지역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천성산 자락에 아담하게 자리한 불광사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약수가 흐르며 마을 사람들은 '불당골(佛堂谷)'이라 불러 예전부터 법등을 이어온 터로 알려져있다.

사는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사찰로도 유명하다. 사찰에서 매월 음력 1일 십선계 법회를 열고, 15일에는 지장재일 천도재를 봉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복지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법당을 마련해 젊은 불자들을 위한 포교에도 적극적이다.

이에 질세라 주진리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신도회를 조직해 불광사를 찾는가 하면 사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직접 도로에 나와 교통지도 자원봉사를 한다. 현재 불광사 신도 가구수는 1,500여호에 이른다.



◇7층 지장보탑 조감도.

영남불교 범음범패 대학 운영

지장기도 영험도량…독거노인돕기 등 봉사

정갈한 법당의 단청과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불광사 대웅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노사나불, 우측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또한 중단의 좌측에는 지장보살님을, 우측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하단에는 일백사위 신장님을 모시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깨끗함이 돋보이는 법당 후면의 지장보살 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불광사는 '지장대재' '조상천도재'를 여법하게 봉행하는 이름난 지장기도 도량이다. 표충사 부주지를 역임하고 통도사 상노전 총책임자를 맡았던 청봉 스님이 이곳에서 12년간 꾸준히 지장기도를 드리면서 자연스레 불자들 사이에서 지장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시골마을의 작은 절'에서 시작한 불광

주지청봉스님은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인 혜륭 스님으로부터 영남 범음범패 통도소리를 전수받아 통도사 승가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혜륭 스님이 총장을, 청봉 스님이 학장을 맡아 불광사에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을 개설하고 30여명에게 소리를 전수하고 있다.

스님은 "최근 전수자들이 부족해 범음범패의 전통이 점차 그 맥을 잃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불교 전통의식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리를 배우는 불자들 대부분이 불교전통문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참여가 불교문화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범음범패 통도소리 전수받아

7층 지장보탑 불사 청봉 불광사 주지



"평생의 원으로 부처님의 뜻에 보답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고자 지장보탑전을 불사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양산 불광사 주지 청봉 스님은 "세속에 인간미가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는 지장보살 기도도량"이라고 불광사를 소개했다.

청봉 스님은 "대웅전 뒷마당에 터를 마련하고 평생을 바쳐서 지장보탑전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7층에 지장보살을 모시는 지장전을 만들고 2층에서 6층 까지는 1만불을 봉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1층에는 설법전을

1층 설법전…법회·불교 교육·문화강좌

2~6층까지 1만불 봉안…7층에 지장전

마련해 불교대학 교육과 문화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장보살기도전을 올리던 지난 5월 18일 부처님이 승몽하는 꿈을 꾼 뒤 대웅전 지장보살 미간백호상에서 꽃을 발견했다"는 스님은 "3천년만에 한번 핀다는 우담바라가 불광사에 핀 것은 원만한 불사를 서원하는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신 일"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스님은 "지장기도 중 대웅전 지장보살상에 우담바라가 핀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미간백호상에 나툰 것은 역사상 유래가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고 "불광사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담바라 친견 환희 만등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봉 스님은 4세 때 김일호 스님 문하로 출가해 불·법·승 삼보 사찰로 불리는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를 두루 거치고 불광사에 안착했다.

밀양 표충사 부주지, 영축총림 양산 통도사 상노전 총책임자를 역임한 스님의 저서로는 『불자의 상식 반야바라밀』, 『지장보살 약찬게』등이 있다.



◇대웅전 전경.



◇영남범음 범패 가운데 '회심곡'을 시연 중인 주지 청봉스님.

7층 지장보탑·지장보살 1만불 봉안불사

모 연 문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불광사에서는 7층 지장보탑과 지장보살 1만불 봉안불사를 봉행하고 있사오니 불자님들께서는 수시 동참하시어 부디 지장보살님의 영험을 가득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옵기를 발원합니다.

♣ 안내
▲1인 1평불사
▲만등불사 동참금 1년등 3만원(계미년 일년등)
▲매월(음력) 초하루 환희법회
▲지장대재 조상천도재는 음력 15일날 입재하여 15일(초재), 16일(2재), 17일(3재), 18일(회향).

♣ 차량운행
▲해인병원(덕계)앞 오전 9시부터 평일 1시간 간격, 행사일 30분 간격

♣ 위치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656번지 (055)364-4747, 364-4848

♣ 불광사 인근에 지장보탑을 건립할 부지를 시주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환희만등법회' 중 행렬을 지어 지장보살님전 부처님꽃에 참배하는 불자들.

대한불교 조계종 천성산 불광사 주지 청봉 합장

문의 : (055)364-4747, 364-4848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참선하면 뇌 발달해요”

‘뇌박사’ 신 희 섭 (KIST 학습기억현상 연구단장)



◇‘마음이 곧 뇌’라고 말하는 신희섭 박사.

산문밖의 禪

“마음이 곧 뇌입니다. 뇌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 그 자체지요.”

‘뇌박사’로 불리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습기억현상 연구단 신희섭(53) 단장. 보안이 철저한 KIST 연구실의 복잡한 실험장치에 둘러쌓여 있던 신 단장은 과학자의 냉철한 모습을 떠올릴 사이도 없이 편안한 얼굴로 기자를 맞았다.

곧바로 마음의 과학적 정의를 묻는 질문에 그는 ‘뇌는 곧 마음’이라고 너무도 간단하게 말한다. 지난 91년 미국에서 귀국한 뒤 막연했던 불교 공부에서 선(禪)의 세계로 빠져들었다는 그의 말에서, 이미 단도직입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선객(禪客)의 말투가 느껴진다.

“마음은 유전자와 뇌의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때 뇌 내부의 현상도 함께 변합니다. 저는 뇌에 변화가 생기면 사람의 외모마저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뇌 작용의 핵심을 설명하는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하다. 생명과학과 선(禪)의 접맥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에게는 모든 연구가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인 셈이다.

최근 일반인들의 뇌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면서 신 단장의 연구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유전자가 뇌세포에 영향을 미쳐 인간의 정서 및 행동을 유발하기까지의 과정을 밝히고 있는 그는 요즘이온통로가 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몰두하고 있다. 현실에 응용하자면 학습기억능력 향상이라든가 정서불안 해소에 관한 연구에 중심이 되고 있다.

신 단장의 연구에 대한 집념은 지독하다. 68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입학하면서부터 생명과학이란 한 우물을 파다보니, 보고 듣는 것조차 온통 ‘뇌와 마음’과 연관된 일뿐이다. “미녀 배우 모니카 벨루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아름다움의 비결을 묻자 ‘자신이 아름답다고 믿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 여자야말로 뉴로 사이언티스트(neuro-scientist: 뇌과학자)다’하고 손뼉을 쳤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 단장이 얼마나 ‘뇌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그의 정열은 항상 ‘최초’의 연구성과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일구어냈다. 2003년 3월 ‘PLC베타4’ 유전자가 생체시계의 시간정보를 신경에 전달함으로써 생체리듬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검증한 일과 2002년 2월 공포감을 조성하는 단백질 유전자의 최초 규명, 2001년 12월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발표된 간질과 운동마비증상에 관련된 유전자를 세계에서 첫 발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업적이다.

이런 걸출한 연구결과는 평소 참선을 통한 마음 비우기와 집중(止), 관찰(觀)의 힘에서 비롯됐다. 텅빈 마음에서 뜻밖의 창조적인 지혜가 저절로 샘솟았고, 고요하면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서는 관찰의 힘이 더욱 깊어진 것이다.

참선과 뇌 연구를 종횡으로 교차분석해 가고 있는 그의 외길 인생은,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왔다. 그는 어릴 적부터 생명에 관심이 많아 서울대 의대를 거쳐 지난 78년 미국 코넬의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났다. 처음 의대를 선택할 때,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과 연구한다는 두 가지 그림을 그렸다. 의대를 졸업할 무렵 환자치료는 적성에 안 맞다는 걸 발견하고 연구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의대시절, 신경해부학을 좋아한 그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뇌의 발생에 대한 연구에 빠져들면서 평생의 화두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91년 한국으로 돌아와 2001년 여름 KIST로 옮겨오기 전까지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어려움도 겪었다. “막 귀국했을 땐 억원대가 들어야 하는 연구에 고작 천만원대 연구비가 나오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어 힘들었죠. 그렇지만 ‘왜 이 길에 들어왔나’라는 고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91년 귀국 후 선(禪)의 세계에 빠져
뇌 변화 생기면 사람 외모마저 변해
“연구업적은 평소 마음비우기의 결과”

자신의 연구에 매달릴수록 매력을 느끼고, 이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록 불교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때 자주 다닌 절이 불국사와 오어사, 보경사 등이다.

“불교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 마음이 곧 뇌입니다. 유식학(唯識學)에서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감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독특했어요. 눈을 감으면 외부 자극 없이도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떠오르는 현상 같은 것이죠. 뇌의 작용 말입니다.”

뇌를 연구하다 보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신 단장은 참선을 자신의 뇌 계발에까지 접목시키고 있었다. “신경과학이란 것이 불교 특히, 선과 굉장히 통한다고 느낍니다. 저 스스로는 좌선으로 뇌를 계발하려고 해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에 끄달림이 없는 완전한 해탈을 꿈꾸지요.”

신경과학자에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는 입적한 성철스님(조계종 종정 역임)의 열성 팬이다. 성철스님의 <선문정로> <백일법문> <육조단경> <신심명> 등을 숙독하면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좌선과 108배를 하고 있다. 때로 출장을 갈 때면 ‘마음에 와닿는 곳’을 찾기 위해 일부러 차를 타고 나가서라도 절을 찾는다. 선원(禪院)도 찾아보고, 분위기가 맞는 다실(茶室)에서 그윽한 향을 맡으며 차를 즐기기도 한다. 최근 작가 최인호의 <길 없는 길>을 읽고 거기 나오는 경허스님의 삶에 흥미를 느꼈다는 그는 무애(無碍)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다고도 했다.

뇌 연구를 통해 깊은 선의 세계까지 탐구하는 그이지만, 뇌과학의 응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친근한 접근을 주문한다. “뇌과학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받아서 들어오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공부를 하려는데 집에 분란이 있으면 잘 안되잖아요. 뇌가 학습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서에 영향을 주는 곳이 문제가 생기면 학습능력을 발휘하는 신경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뇌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과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불교 교리를 신경과학적인 부분과 연결시켜 보통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오는 10월 동국대 불교대학원 초청강연회와 관련 저술 활동이 본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글=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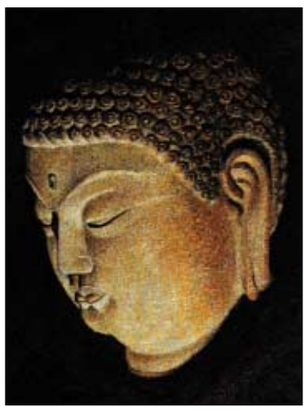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누구든 원하는 소재 · 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장보살)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석굴암 부처님 불두)

불교자수 특징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명주실 · 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 법당 탱화 · 불화로 적격

용 도
* 불화(탱화, 불보살도)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기업기념사진 (창업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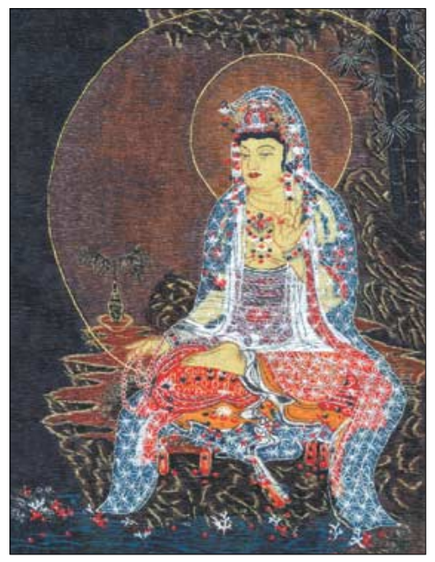
주문시 유의사항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또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안내
* 대형(60cm×80cm) * 중형(30cm×40cm)
* 소형(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 · 한암 · 효봉 · 동산 · 청담 · 성철 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 소장용 · 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37-0697 www.mahamall.co.kr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수월관음)

릴레이 수행일기 〈上〉



나승렬

농림부 불자회장

작년말부터 유난히 바쁜 부서로 이동하여 매일 밤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전에는 주말마다 안양 한마음선원에 가서 예불에 참석했는데 직장일로 몸이 잡히다보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래서 한마음선원이 만든 달력에 적힌 대행 큰스님의 법어를 공부의 재료로 삼아 공부했다. 1월의 법어 '놓고 놓고 내가 녹아야 상대를 녹일 수 있다'를 화두로 삼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어느 날 문득 내게 다가오는 각종 경계를 떨칠 수 있는 힘이 커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음 '주인공' 공부는 분주한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음공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공부방법이다. '참나'인 주인공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사를 맡기는 관법을 실천하면서 정진하는 체험을 한다. 어떠한 생각날 때마다 주인공에게 돌려 지혜를 구하고 내면의 소리가 참나의 것인지를 잘 판별하면서 나아가니, 항상 부처님의 가피속에서 사는 느낌이다.

최근에는 달력에 적힌 6월의 법어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다'를 화두로 삼아 공부하고 있다. 이 법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록 엄청난 에너지를 느낀다.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내 안의 부처(自性佛)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모든 생명체에서 부처를 느끼며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연결된 한마음임을 확신하며…. 경계를 접할 때마다 마음과 호흡을 가다듬어 이런 식으로 마음공부를 해 본다.

나는 빠듯한 일상 가운데서도 잠시라도 틈을 내, 참배하는 일은 놓치지 않는다. 안양의 선원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출근길에 과천 직장 부근 절에 들러 참배를 한다. 중생이 청정도량에 가서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절 1배마다 성심껏 원을 담고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벗기며 한없이 낮아지는 연습을 한다.

마음공부의 재료는 곳곳에 널려있지만 매일 이를 찾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올라오는 중생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경전, 큰스님들의 법어, 영혼을 일깨우는 좋은 글귀들, 풍경소리, 스님들의 구수한 독경소리, 선법가, 한없이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 시원한 솔바람, 맑은 시냇물, 심지어는 나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역행보살) 등 무수한 스승을 만난다.

얼마 전 부하직원의 업무상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었는데, 가끔 배달되어 오는 직장불자들을 위한 소식지인 <직장불교>에 실린 경전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셨다. "첫째 들추려는 잘못이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 때에 맞아야 하며, 셋째 이치로써 요약하여야 하고, 넷째 부드럽고 연하여 추하거나 까다롭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 자비로운 마음이어서 성내지 않아야 한다." (계속)

"내가 있는 자리에 부처있다"화두로 공부

1배1배 절하며 한없이 낮아지는 연습

긴급점검 **수행법 난립시대…조사선의 나아갈 길**

"영적인 삶 찾는다" 소울 러시
(soul rush)

불교계는 지금 한국 선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10여년전부터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봐타, 마음수련, 초월명상, 동사섭 등 불교유사 수행법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간화선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내외의 다양한 수행방편에 대해 알아보고,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통 조사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행법 백가쟁명 시대
2. 간화선 Vs. 위빠사나
3. 되살아나는 조사선

최근10년 수련장·'인구' 폭발적 증가

참선·위빠사나외 최면교실·심령정화 방법난립

간화선 대중화 실패탓…뒤늦게 대책부심



◇대표적인 불교유사 수행프로그램인 '아봐타'의 수련장면.

▧ 숨가쁜 일상 탈출 선방, 수련원으로 발길

미국의 데이비드 브룩스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의 흐름을 1850년대 금맥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가던 골드러시에 비유해 '소울러시'(soul rush)로 명명했다. 21세기 한국 땅에서도 '소울러시'가 나타나고 있다. 바쁜 도시민들이 깊은 산속의 수련원이나 도심의 선방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곳에 끊임없이 벌어들이고 그만큼 소비해야만 하는 현대사회의 집착과 번뇌를 녹여버릴 해독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수련단체로 알려진 단학선원의 경우만 해도 전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련장만 300군데다. 그 밖에 직장 및 시, 군, 구민회관 등 3000여곳에서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식 회원은 10만명이지만 단학을 거쳐간 사람은 100만명에 이른다. 단기 체험자를 포함해 국내 수련 인구는 이미 수백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깨달음도 상품화된 시대

국내 심신수련 문화의 특징은 국적 불문에다 종교적 배경도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불교의 참선이나 위빠사나, 도교의 선도(仙道) 수련 등 전통적 방식을 중심으로 이를 변형한 각종 수련법이 경쟁하고 있지만, 수련계에 불고 있는 '해외 바람'도 만만치 않다.

초월명상, 마인드 컨트롤 외에도 오쇼명상, 아난다 마르가, 산트마트 명상, 라자요가, 아봐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십개의 수련단체가 활동중이다. 대부분 인도의 힌두식 수련법이 미국과 유럽으로 건너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완성돼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파룬궁처럼 기공의 원조를 내세우는 중국의 수련법이 직수입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련문화의 폭발적인 확산 뒤에는 문파의 난맥상, 신비주의, 상업주의, 종교화, 우상화라는 위험성이 있다. 이제는 '깨달음'도 상품이 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왜 수행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번뇌를 지우고 집착을 떨치기 위해 시작한 심신수련이 어떤 경지에 오르겠다는 또 다른 욕망을 낳을 우려 때문이다.

▧ 유사 수행법 어떻게 볼 것인가?

아봐타나 마음수련, 마음나누기, 초월명상, 단전호흡, 파룬궁 등 소위 '제3수행법'은 대체로 △전승의 불확실성 △수행법의 단순성 △목표(깨달음 혹은 자기 완성)의 빠른 성취 강조 △비공개성 △세속적 이익을 추구 △깨달음의 상품화 △불교 폄하 등의 특징을 갖는다. 불교계에서는 이들 수련법들이 불교 수행법과 유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근본사상은 불교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위빠사나 지도자인 김열권 법사는 "사성제, 십이연기 등 근본교리에 어긋나는 수행법을 가려낼 안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수행법 난립 원인과 대책

수행자들은 한국 불교의 중심 수행법인 간화선의 선지식 부재와 이로인한 지도점검 문화의 쇠퇴, 잘못 이해한 사교입선(捨敎入禪) 전통으로 인한 체계적 교육의 부재, 재가 수행자 양성 소홀 등 간화선의 대중화 실패를 수행법 난립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찰 재정 확보를 위한 기복불교의 방치, 유사 수행법에 대한 안이한 대응도 수행법 난립에 일조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조계종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현황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과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가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참선, 염불, 간경, 기도, 주력 등 전통적인 수행법과 위빠사나, 동사섭, 선무도, 아봐타, 요가, 명상 등 현대의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대표적 유사 수행법들

아봐타 1987년 해리 팔머라는 미국인에 의해 창안된 아봐타는 1990년 초반 한국에 들어온 이후 일부 불자와 스님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아봐타 코스는 1부 다시 떠오르기(2일), 2부 현실을 지배하는 원리 연습(4~5일), 3부 원하는 현실의 창조 연습(2~4일) 등으로 구성돼 하루 12시간씩 9일동안 진행된다. 이중 유일하게 공개과정으로 진행되는 1부 코스는 부정적 관념을 고백하는 연습 등 30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5단계의 학습코스를 마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0만원이고, 기간은 7일에서 9일이다.

마음수련원 마음수련회는 1996년 국내에서 생겨났다. 아봐타 센터와 달리 마음수련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가야산에 본원을 두고 전국에 20여개의 지역수련원을 두고 있다. 마음수련회에서는 사람 마음의 본성을 아는 과정(知性人 과정), 본성에 드는 과정(入性人 과정), 본성에 일치하는 과정(全人 과정) 등으로 나눠 단계적인 훈련을 받는 게 특징이다. 코스는 4개로 구분되어 있고, 한 코스 당 1~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코스에 드는 비용은 한달 25만원이다.

TM(초월명상) TM은 'Transcendental Meditation'의 약자이다. 창시자는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로서 그는 1957년 이 명상을 창시하고 창조지성학회를 설립했다. TM의 단계는 7개이며, 이 단계를 거치면, TM-시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요가를 하는 중 몸이 하늘에 뜰 수도 있고, 마음 속에서는 벅찬 기쁨을 느끼며 이는 세계평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코스를 마치는데는 5일이 걸리고 비용은 50여 만원에 개인지도를 받는다.

동사섭(同事攝) 동사섭(同事攝)은 사섭법(四攝法)의 하나로 상대편의 근기에 맞는 행동과 배려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으로, 80년대 용타 스님에 의해 시작됐다. 17년 동안 4000여명이 수행한 동사섭은 흔히 '마음나누기'라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열고, 다루고, 나누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불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파룬궁(法輪功) 파룬궁(法輪功), 또는 법륜대법(法輪大法)은 1992년 5월13일 중국의 리훙쯔(李洪志)가 개발한 불교식 기공의 한 종류. 수련방법은 간단하지만 심신건강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수련자들로 하여금 도덕심을 갖게 한다. 수련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진(眞) 선(善) 인(忍)을 지도원칙으로 삼으며 자신의 심성을 닦는다. 60여 개국에 약 1억명의 수련자들이 있으며, 최근 국내 수련자가 늘고 있다.

" 1가정 1컴퓨터 시대" "전 국민 네티즌 시대"

귀사의 홈페이지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잘 꾸며진 홈페이지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발전합니다. 지금껏 홈페이지제작을 망설여 오셨다면....

(주)아이코스솔루션과 상담하십시오.

■ 컴퓨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 컴퓨터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별도의 인건비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적은 투자로 엄청난 홍보가 시작됩니다.

고 품격의 홈페이지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제작진은 최저 60만원 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귀사의 기획의도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제작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서버 대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아이코스솔루션은 서버 임대사와 제휴를 통해 웹 호스팅 기초비용을 월 5,500원(리눅스) 월 11,000원(NT)부터 제공해 드리며 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홍보 기획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업홍보물 기획은 전문가에게 맡겨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코스솔루션은 최상의 기획전문가를 통해 페이지당 기본 50,000원 부터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마음을 여는 홈페이지 기획, 제작 전문업체

㈜아이코스솔루션 http://www.eyecos.com

☎ 031)836-0992 FAX : 031)836-0993 E-Mail : eyecos@eyecos.com

제 18회

참나찾기 팔관재 한 가족 큰모임

선 심리치료상담과 무아선무명상 수련대회

1. 행사목적
팔관계율을 지킴으로서 순결의 고귀함과 효정신 함양 등 단기출가의 효과와 전통사찰문화를 체험하며, 선 심리치료상담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돕고, 대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2. 주요행사 내용
-. 팔관재계 (순결지키기, 효사상 함양)
-. 선 심리치료 상담
-. 참나찾기 수행과 무아선무명상 호흡법 지도
-. 다도 익히기
-. 바닷가 걷기 명상

3. 일 시 : 2003년 7월 30일 ~ 8월 1일 (2박 3일)

4. 장 소 : 원주 송정사 청소년 수련장 외 2곳,- 동해안
(**집합장소 및 일시** : 7월30일 오전 10시, 6호선 광흥창전철역 2번출구, 노인복지회관 앞)

5. 참가자격 : 초 · 중 · 고등 청소년 및 가족 (선착순)

6. 참 가 비 : 삼만원 (₩ 30,000 2박 6식) ●국민은행 : 054-25-0013-400 ●예금주 : 사) 참나찾기

7. 참가안내 : http://www.maumtel.com (참나 선심리 명상 참조)

8. 문의전화 : 02-738-1275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 마음의 전화

바라밀현장

대구사원주지련 불자의 집



◇6월28일 대구사원주지련 신도회에서 운영하는 '불자의 집'에서 봉사자들이 배식하고 있다.

쌀 · 계란 등 부식
정기적으로 숨어서 전달
독거노인·노숙자급식 큰 힘
'무주상 보시'의 고마움에
자원봉사자 즐거운 손길

"얼굴없는 불자가 만든 음식 드세요"

"뚝딱 뚝딱, 지글지글, 타타타닥."

6월 28일,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신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 삼덕동 관음사(주지 원명스님)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이 자원봉사자들의 음식 조리 소리로 소란스럽다.

'불자의 집'은 인근 국채보상공원에서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무료급식소의 1끼 식사로 하루를 견디는 경우가 허다해 공양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더욱 정성이 배어난다.

물론 이렇게 성심껏 음식을 준비하고 배식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느 무료급식소와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이곳 '불자의 집'은 자신의 얼굴을 알리지 않고 베푸는 '무주상 보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난다.

'불자의 집'은 지난해 6월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매달 쌀 20kg 1포씩을 보내오거나 한달에 두세 차례 달걀 10판(300개)을 두고 가는 '얼굴없는 불자'가 있는가 하면 각종 부식을 놓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날 오전 9시에도 어김없이 계란 10판(300개)이 배달되었다. 김대희(50, 불명 진오) '불자의 집' 운영위원장이 한마디 건넬 겨를도 없이 "저도 불잡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려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매달 쌀을 보시하면서도 쌀집주인의 말밖에 전해들을 수 없는 이. "누군지는 밝히지 말고 그냥 전달만 해 주라고 했다"는 이.

또 '불자의 집'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는 말과 함께 큰 돈을 선뜻 내어놓은 이도 있었다.

언젠가는 이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급식소의 따뜻한 밥 한릇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김대희 운영위원장은 "이런 분들의 무주상 보시가 있기에 자원봉사자들도 더욱 힘을 내게 된다"고 말한다.

이날 '불자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불심회' 이경자(57, 불명 대덕화) 회장은 지금까지 사찰 등에서 갖던 신행모임의 장소를 다음달부터 옮길 예정이다. '불자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식대가 들어가지 않으니 이것을 아껴 부식 등을 준비하기 위한 후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의 집'은 정부지원금 없이 오직 후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항상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알리지 않고 도움을 주거나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수많은 불자들의 무주상 보시가 있기에 항상 마음만은 넉넉하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은 매주 목 · 금 · 토요일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중 무휴로 150여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펼쳐오고 있다. (053)257-0104

대구=박원구 기자

"차 한잔에 마음 담아 드립니다"

길음복지관 기금마련 일일찻집

봉사, 후원자, 주민 참여
1500여 만원 마련

"여기 녹차 한 잔이랑 시원한 커피 두 잔 주세요." "손님, 주문하신 음료입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 성신여대 앞 피라미드 카페에서는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눴다.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사랑나눔터'를 주제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기금 마련 일일찻집이 문을 연 것이다.

길음복지관은 1997년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단체들에게 복지관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대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일일찻집을 열기 시작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일일찻집은 매년 500~600명의 복지관 이용자들과 봉사자와 후원자들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차도 나눠 마시고 복지관 기금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날 열린 일일찻집에는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종합사회복지관과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일하는 봉사자들과 복지사들도 동참해 정성을 보탰다. 특히 올해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찻집 티켓을 판매하는 일부터 지역단체 홍보와 주방관리까지 도맡아 진행했다.

제원 스님은 "후원자 및 봉사자들에게 무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행사를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마련된 1500여 만원은 무료급식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이동목욕 서비스 등 무료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6월28일 열린 길음복지관 '일일찻집'.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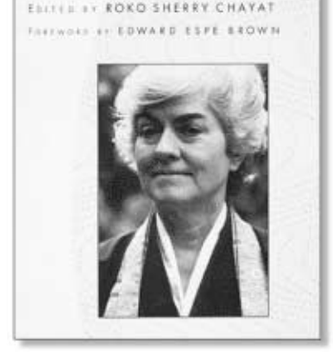
묘린 묘온 스튜어트 (下)

가정·직장 방문지도 생활선 보급

심오한 동시에 장난을 좋아하던 소엔 노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스승임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토록 오랜 인연의 끈을 알아볼 때의 마음을 그녀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것은 소엔 노사가 스승이거나 존경받는 승원장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태양을 경건하게 바라보던 스님의 모습, 차 한잔을 마실 때도 차와 찻잔과 차를 따르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스님의 평정심. 나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분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임을 확신했습니다."
('미묘한 소리' 중에서)

스튜어트 법사는 재가자의 생활선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자주 수련생들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곤 했다. 그렇게 할 때 가정과 선원, 일상생활과 좌선의 경계가 녹아들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 자녀의 엄마라는 가정주부로서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기도 했다. 선방에서 수행할 때는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같고, 집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트 법사는 결국 선(禪)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스튜어트 법사의 저서 <미묘한 소리>의 표지.

"나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이든 가정이든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돌아와 모든 것에 직면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수행입니다."('미묘한 소리' 중에서)

생활선을 지향하는 스튜어트 법사는 전통적인 승가처럼 거주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다. 거주 불교공동체가 갖는 배타성으로 인해 삶의 풍요로움에 자신을 열지 못하고 권위적 정형화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 관한한 자기중심적인 유아론(唯我論)적 시각을 갖기 쉽다는 생각도 있었다. 때문에 캠브리지불교회 수련생들은 이 곳에서 배운 것을 사회로 돌아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천해야만 했다. 동시에 매달 개최되는 집중수련회에서는 일상생활을 접고 임제종의 엄격한 가풍에 맞춰 정진해야 한다.

선은 남성 또는 여성, 타이틀이나 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스튜어트 법사. 그는 서구에서는 드문 여 스승이 되었지만 선불교의 가부장적 체제를 비난하는 강성 페미니즘보다는 '선불교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주장했다. 소엔 선사가 가르쳤던 선수행은 '열린 마음으로,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 내어놓는 수행'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튜어

유아론적 시각 갖기쉬운 공동체 구성 안해
가부장적 체제 비난 대신 여성 할 일 강조

트 법사의 열린 마음은 그녀에게 '수행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스승'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소엔 노사로부터 체득한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은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란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녀의 은사인 소엔 선사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실 완성이라는 것은 없단다. 나도 수행중이고 너도 그렇단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아내거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란다."('미묘한 소리' 중에서)

1990년 암으로 입적한 스튜어트 법사는 '어머니 노사(Ma Roshi)'라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다가오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달아나지도 마세요."

김재경 기자

범주스님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여름명상캠프



신나는 여름!!
푸르고 싱그러운 녹음 우거진 속리산 달마선원에서 참나를 찾는 명상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프로그램

* 동해의 소리 배우기(북과 소리와 춤으로 만드는 신나는 동적인 명상)
* 조용한 음악을 통해서 들어가는 정적인명상 (자연감상, 비파사나, 참선)
* 고요한 새벽 숲속의 산책과 저녁의 캠프 파이어 !!
* 달마도 그리는법 배우기 * 선문화 동영상 감상

◆ 언 제 : 제 1회 7월 15일(화) - 17일(목) 2박 3일 제 4회 7월 29일(화) - 31일(목) 2박 3일
제 2회 7월 19일(토) - 21일(월) 2박 3일 제 5회 8월 8일(금) - 10일(일) 2박 3일
제 3회 7월 25일(금) - 27일(일) 2박 3일

◆ 어디서 : 속리산 달마선원 -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2리 294번지

◆ 참가자격 : 대학생, 일반인(선착순30명)

◆ 준비물 : 가벼운 운동복과 운동화, 세면도구 등

◆ 참가비용 : 1인당 5만원(2박 3일 숙박과 식사포함)

◆ 문 의 : 전화 054) 535-0378 / 팩스 054)535-4750
● E-mail : boo1947@hanmail.net ● Homepage : www.dharma-art.or.kr

◆ 정규적으로 매월 2번째, 4번째 토요일날 1박 2일의 명상교실 계속 운영중

달마선원(선문화예술원) 원장 범 주 합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3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및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다도학과(50명) • 우리춤학과(30명) • 미술학과(30명) • 팔리어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3년 6월2일~ 2003년 8월 2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우리춤)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미술)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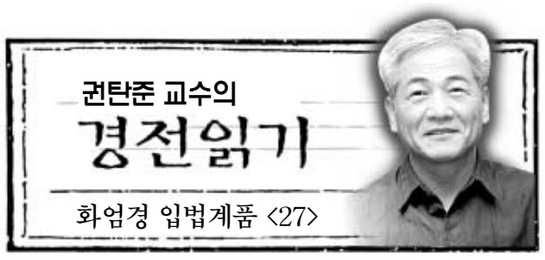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3년 8월 9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학과 이외의 학과 : 9월 첫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비목구사 선인의 법문

선재동자는 휴사 우바이로부터 남쪽 바다 조수 이는 곳의 나라소(那羅素)라는 나라에 비목구사(毘目瞿沙)라 불리는 신선을 찾아가 보살행에 대해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나라소국에 이르러 비목구사를 찾아보니 그는 큰 숲속에 있는 전단나무 아래에서 풀을 깔고 앉았는데 일만이나 되는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었다. 그러자 비목구사는 자기의 무리들을 돌아보며, 이 동자가 이미 보리심을 내어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한다고 말하면서 선재동자를 칭찬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신선의 무리들도 가지각색의 묘한 향과 꽃을 뿌리며 선재동자를 예경하였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괴로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때 비목구사는 자기의 무리들에게 "선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내면 반드시 온갖 지혜의 도를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남자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므로 마땅히 모든 부처의 공덕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보리심의 공덕이 위대함을 말하고 또 선재동자가 보리심을 낸 것을 찬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비목구사는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깃발의 해탈(無勝幢解脫)을 얻었노라." 이 말을 들은 선재동자가 그 해탈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묻자, 비목구사선인은 오른 손을 펴서 선재의 정수리를 만지며 선재의 손을 잡았다. 그 때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시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 가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세계와 거기에 모인 대중과 부처님의 상호가 훌륭하게 장엄되어 있음을 보고, 또한 그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설법하는 것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저 부처님이 가지가지 지혜로 모든 서원을 원만히 하는 것도 보고, 저 부처님이 청정한 서원으로 모든 힘을 성취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몸이 그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일주야 혹은 이레를 지내기도 하고 내지 미진수 겁을 지내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그 때 선재동자는 보살의 무승당해탈의 지혜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비로자나장 삼매의 광명을 얻는 등 다섯 가지 지혜 광명이 비춤으로 해서 다섯 가지의 삼매광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비목구사선인이 선재의 손을 놓으니 선재동자는 자기의 몸이 다시 본래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비목구사 선인이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지며 손을 잡는 순간에 선재동자가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갔다가 나옴을 설하여, 일념(一念)의 순간에

일념의 순간 부처님 경계와 하나됨 설해
자연의 지혜로 모든 중생 끊임없이 교화

부처님의 경계와 하나가 되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목구사가 이러한 법을 보이고 선재동자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선재동자가 이미 보리심이라고 하는 청정무구한 지혜의 마음을 내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라도 보리심을 내면 반드시 일체지(一切智)의 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리심을 낸 선재동자를 비목구사는 일만이나 되는 무리와 더불어 칭찬하고 나서 모든 부처의 공덕을 갖추는 법을 보살의 무승당해탈법문으로써 설하고 있는 것이다.

비목구사는 범어 비슈못타라 니르고샤의 줄임말로서 그 의미는 '일체지의 소리로써 중생세계의 두려움을 없애고 안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선인(仙人)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정하고 순수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명칭이 나라소인 것은 그 의미가 청정한 지혜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목구사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은 바다의 조수가 이는 곳이다. 이것은 해조가 저절로 끊임없이 드나드는 것처럼, 보살이 인위적이 아닌 자연의 지혜로써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알맞게 끊임없이 교화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 일념에 의해 부처님의 경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발원해서 스스로의 참생명에서 솟아나오는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과거 무량겁 전에 발심해서 영겁에 걸쳐서 발심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수행자는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정신을 본받아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하셨던 것을 일념의 순간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념의 순간에 청정한 지혜가 발동하여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살의 무승당해탈은 보리심에 근거한 발원에 의해 청정한 지혜 광명이 자연스레 작용하여 끊임없이 중생들을 자비로써 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살은 부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끝)

선교일치와 교외별전

송대 간화선의 발전은 북송과 남송 시대를 구별하여 이해할 수가 있다. 북송에서 임제종의 황룡파는 간화선의 사상적인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황룡파는 당시대에 유행하는 선교일치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교외별전의 사상을 확립하였다. 이런 교외별전의 사상에 힘입어서 간화선은 남송 때 임제종 양기파에 의해서 성립되었다.

선교일치와 교외별전은 북송과 남송의 시대적인 차별을 떠나서, 중국불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일치가 말 그대로 선과 교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라면, 교외별전은 경전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을 전제하는 말이다. 부처님 당시의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는 경전의 가르침과 수행을 별개로 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듣고, 사유하고, 연습하고, 체험하는' 공부의 과정은 바로 경전의 가르침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전통은 대승불교에서 대체로 충실히 계승됐다.

이런 점에서 보조도 화엄의 가르침과 수행론을 '먼저 듣고 이해하여 믿음에 들어가고 뒤에 생각 없음(無思)으로 딱 들어맞

듣고 이해하여 믿음에 들어가 증득

게 된다' 고 하였다. 여기서 먼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승(聲聞乘)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해하고 믿음에 들어가서 증득하게 된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의 장점은 공부하는 길에서 분명한 기준점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경전의 말씀은 삿된 믿음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준다. 그리고 자신이 도달한 경지가 어디에 와 있으며, 경전에서 기술한 내용과 함께 대조하여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전의 가르침도 여전히 개념이고 지식이란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강한 의미의 선교일치론은 수행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끝내는 관행(觀行) 방법에 듣고, 이해하는 말길(語路)과 뜻길(義路)이 있다. 때문에 분별에 의지한 까닭에 분별이 없는 지혜(無分別智)를 얻지 못한다고 보조는 본다. 선교일치는 완전하게 개념의 흔적을 버리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교외별전은 경전의 가르침마저도 완전하게 벗어나는 자유의 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교외(敎外)란 개념적인 지식을 벗어난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개념적인 지식의 체계가 아니다. 개념적인 관점이 사라진, 분별과 분석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 존재한 그대로의 실상을 의미한다. 별전(別傳)이란 어떤 가르침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언어적인 개념에 의지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다. 언어가 아닌 체험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느림과 빠름이 없고, 순서와 절차가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분석적인 마음에 불과하다. 간화선에서 법계연기를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언어와 뜻 길이 끊어진, 그 자체로 알려지는 방식인데, 이것은 바로 화두를 통해서 성취된다. 부처님이 그렇게 했듯이, 경전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법성과 자신의 의심을 결단하는 탐색에 의해서 깨우쳐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경전적인 근거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불교와 불교 아닌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스승의 절대적인 점검과 지도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다음주부터는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교수가 '조주록' 을 중심으로 연재합니다.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

생명체, 너는 누구인가?

과연 최소한 우리가 인식하듯 감정이나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등의 생물체는 몸과 정신작용으로 이루어 진 것일까?

의학 중에서 백신 접종이나 암의 연구 등으로 알려진 면역학에서는 생물이 자기를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 체내의 면역체계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것이 나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신체적 자기라고 말한다면 지금은 생물의 의식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체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뇌의 어느 부분이 우리의 어떤 인식작용을 담당하는지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

내 몸인데 왜 내말을 듣지 않는 걸까?
껍데기인 육체를 '내것' · '나' 로 착각

이는 신경계가 정신적인 나를 규정하는 기본적 바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현대의학의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별개의 체계로 알려졌던 이러한 면역계와 신경계가 실제로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면역전달 물질과 신경전달물질이 서로 공유되기도 하면서 커다란 하나의 체계임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사대(四大)로 이루어진 육체에 바탕을 둔 서양과학의 관점으로 자기를 이루는 것이 신체적 자기와 정신적 자기의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신체적 자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신체적 자기가 나의 일부이기에 기본적으로 내 명령을 들으며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는 전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전혀 내 말을 듣지도 않는 신체적 자기를 어찌 나의 일부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신경계에 바탕을 두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생각하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 것이라는 말이다.

본래의 나는 하늘을 날고, 바다 속을 거닐며, 불속을 거침없이 다니는 모습인 것이다. 갓 난 어린아이를 보라. 그들은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무 겁없이 걸어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깊은 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다가 빠지기도 하며 뜨거운 불에 손을 넣기도 한다. 이것을 과학이라는 사물(事物)의 시점에서 보면 아직 신경계가 발달하지 못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가고 옴이 없는 생명의 시점으로 보면 그 자유롭고 시공(時空)에 거침없는 생명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를 뒤집어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와 더불어 길들여져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본래의 진면목은 이렇게 내 말도 전혀 듣지 않는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는 육체에 길들여져 가면서 육체에 의해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하며 나라는 것을 형성해 간다.

결국 생명체는 진정한 본래 면목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껍데기인 육체를 통해 나라는 생각을 지니게 되면서 전혀 내 뜻을 따르지도 않고 따로 노는 육체와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허망한 자기라는 의식을 붙들고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여 갈고닦고 울고 불며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5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7화)

"욕망의 끝을 아는 자는 항상 평온하다"

〈출전 : 남전 장경상응부경준 1, 81〉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게임에 중독된 세상

진실한 나의 세계를 보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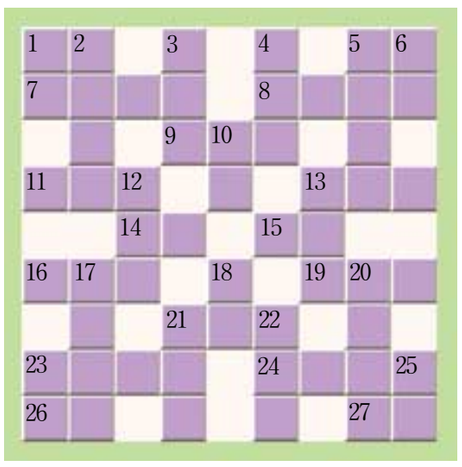
한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부파불교에서는 일체라는 말로 세계를 설명하면서 5온, 12처, 18계가 일체라고 한다. 12처를 예로 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나의 세계라는 말이다. 그러니 사람마다 느끼고 있는 세계의 크기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선재는 당당하게 자기 삶을 마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 눌려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매달 20만~30만원의 이용 요금을 내야할 정도로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어머니가 이를 나무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게임 때문에 꾸중들었다고 목숨을 끊은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선재는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다가도 그 아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전부가 게임이었을 테고 그것을 못하게 되었으니 세상이 모두 사라진다고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세상이란 12처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라고 했던 옛 어른들의 의도는 그것이 무아라는 점을 더 강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된다. <아함경>에서 "눈이 만일 나라면 핍박의 괴로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이리저리 원하는대로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괴로움을 받고, 이리저리 원하는대로 할 수가 없다. 귀, 코, 혀, 몸, 생각 또한 그와 같다."는 말씀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울 일이 아닐 만큼 무수히 등장한다. 12처 어느 곳에서도 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다.

12처로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진실한 모습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게임 속에도 있을 수 없고 어머니가 꾸중한 그 세계에도 있을 수 없다. 정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등 쪽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조금만 시선을 빗겼어도 게임에만 매몰되어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428호「교리퍼즐」정답〉



상식퍼즐

가로

1.병 때문에 나는 몸의 열 5.분가하기 이전 본래의 집 7.봄 여름 가을 겨울(한 자로) 8.나쁜 구업을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으로 혀를 보습으로 가는 고통을 당하는 곳 9.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11.죽을 때 일어나는 마음으로 선과 악 어느 것도 아닌 마음 13.진공 유리관에 형광물질을 넣어 수은의 방전을 이용해 빛을 내는 등 14.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15.다섯 색깔 16.인간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 19.탐방한 내용을 적은 기사 21.경전내용을 표현해 그린 그림 23.크게 깨달아 잘못을 뉘우침 24.위없이 높은 법의 왕. 여래의 존호 26.우주 전체 27.믿고 따르는 무리

세로

1.새 봄 2.연암 박지원이 쓴 중국 열하까지 다녀 온 기행문 3.어떤 일의 주장이 되어 행동하는 사람 4.처음으로 마음을 냄 5.심성의 본래모습. 본래면목 6.집 10.남자스님을 가리키는 말 12.마음이 작용하는 영역 13.형색에 대한 탐욕 17.신라 때 원광법사가 화랑에게 준 다섯 가지 교훈 18.건물의 지붕 20.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낸 불보살의 몸 21.목소리가 달라지는 시기 22.아무래도 생각해 볼 바도 없이 23.큰 세력 25.왕이 행해야 할 바른 길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화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 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 195,000원

금강염주사 문의 (02)723-0909

전화로주소성명을알려주시면우체국등기소포로전국어디나편안하게보내드릴수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룸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규격 8.5x5.2x2.0cm) 가격58,000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독경 :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격 : 20,000원

CD : 2ea set
가격 : 10,000원

1주년 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하만 TSI에서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예견한 바와 같이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로
• 팩키지 Ⅰ 디지털불경 룸비니 + 테이프 8개 + CD2개 특별가 58.000원
• 팩키지 Ⅱ 디지털불경 룸비니 + CD 1개를 특별가 39.000원
특별할인판매 합니다.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2-0880
입금구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英 출신 비구니의 치열한 구도여정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메켄지 지음 / 세등 스님 옮김

김영사 / 9천9백원



◇텐진 빠모 스님.

"여성은 은거수행할 수 없다" 편견에 맞서

12년 동안 히말라야 동굴서 목숨 건 수행

성불(成佛)에 이르는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무문관에서 수십년간 화두를 붙들고 용맹정진하는 선승들, 설산에서 몇년씩 고행정진을 일삼는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은 목숨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런 고행은 여성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는 한 여성 수행자의 고단했던 수행여정을 소개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텐진 빠모(50,Tenzin Pahmo)'. '수행을 계승하고 가르침을 떠받드는 영예로운 여인'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영국 태생 티베트 비구니다. 그는 24년 동안 인도, 티베트 등지에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특히 그중 12년은 히말라야 설산 동굴에서 독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치열하게 수행했다. 인간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지독하게 불리한 위험, 궁핍, 금욕, 고독을 견뎌냈고 그리고 여성이라는 편견을 극복해 영적 스승이 됐다. 특히 그는 벽장 하나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여성은 은거 수행을 할 수 없다'는 편견에 맞서 자신을 단련해갔다. 물론 수행은 고통 그 자체였다. 혹독한 추위와 육체적 질병을 이겨내며 더 높은 영적인 경지에 오르려는 외로운 텐진 빠모의 '싸움'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동시대인의 기록인데다 참선, 요가 등 동양적 수행문화에서 멀찍이 벗어나 있는 서양, 그것도 여성의 구도 기록이기 때문인지 이 책이 과거 한국 · 인도 · 중국 선사들의 선수행담보다 더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1943년 영국 런던에서 생선장수의 딸로 태어난 그가 불교에 다가서려고 고향 런던을 떠나 인도로 발길을 돌릴 때의 나이는 꽃다운 스무살. 이후 그는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캄트룰 린포체와의 만남을 통해 불법에 귀의했고, 서구 여성으로서는 티베트불교에 출가한 두 번째 인물이 됐다. 그러나 린포체의 수백여 제자들 중 홍일점인 그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행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다. 티베트불교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가 택한 길은 개별 수행. 그는 요가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히말라야의 한 동굴로 들어갔다. 바로 이 책에는 삶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던 벽안(碧眼)의 아가씨가 이 동굴안에서 불성(佛性)을 체득해가는 과정이 촘촘하게 펼쳐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불교와 명상에 관심이 깊은 영국 출신 여성 저술가 비키 매켄지다. 텐진 빠모에게 책의 출간 허락을 어렵게 받아내어 면담, 구술, 행적 답사를 통해 완성했다. 번역자는 불교 여성학 연구를 위해 94년부터 4년동안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객원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비구니 세등 스님. 간결하지만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번역 실력 때문인지 한 여성의 수행 궤적이 술술 넘겨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오현 스님의 가르침 담은 산문집



'곱게 싼 인연'

글 · 사진 / 이홍섭

해토 / 8천5백원

가슴을 청아하게 해주는 경구 · 싯귀도

'줄탁'.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알껍질을 쭉쭉 빠는 때(줄)와 어미닭이 바깥에서 알을 탁탁 쪼는 때(탁)가 만나는 순간이다.

불가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를 비유하는 줄탁의 인연을 시인 이홍섭씨는 오현 스님을 시봉하면서 깨 달 았다.

삶이란 결국 혼자 가는 길이라는 것, 기쁨도 슬픔도 덧없다는 것을 알려준 스승의 가르침이 이 산문집에 담겼다.

은사 오현 스님과의 인연은 저자에게 더 많은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낙산사 홍련암에서 30여년을 지내며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며 기도를 올리는 할머니 보살. 마구 달음박질치는 '퍼포먼스'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극히 정제된 글을 썼던 중광 스님. 아이가 둘 정도 딸린 젊은 부부를 방으로 초대해 차 한잔 대접하며 한담을 즐기던 부킹 스님 등.

이렇듯 수많은 인연 하나하나 엮어져 '곱게 싼 인연'이 됐다. 하지만 이 책에서의 인연은 결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내내 머무르던 내설악의 자연과 맺은 인연, 읽는 이의 가슴을 청아하게 해주는 경구와 싯귀들과 맺은 인연들도 곱게 담겨져 있다.

김주일 기자

정토교학 대표적 고전 풀이



'왕생론주 강설'

태원 스님 지음

운주사 / 2만원

담란의 생애 · 영향받은 사상도 소개

그동안 정토학 연구에 매진해 온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쓴 <왕생론주 강설>은 인도 유가(瑜伽)의 대학승인 천친(세친) 보살이 극락세계의 장엄을 29종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원래는 <무량수경우바제사원생게>이다. 글자대로 풀이하면 '무량수경의 본 뜻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극락왕생의 원을 세워 지은 게송' 이란 뜻으로 실제로 그리 길지 않은 글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 정토종에서는 <왕생론>이라고 한다. 이것이 보리유지에 의해 한역경전으로 번역됐고, 다시 담란(476~542)이 공(空)과 유(有)를 결합시킨 해설을 붙였으며, 여기에다 태원 스님이 본문의 이해를 위한 주(註)를 달고, 이해하기 쉽게 다시 강설을 덧붙였다. 즉 인도에서 저술된 <왕생론>이 중국에서 살이 붙여져서 <왕생론주>로, 다시 한국으로 와서 현대적 해설이 덧붙여져 <왕생론주 강설>로 태어난 것이다.

이 책은 정토의 장엄과 염불수행에 대해 서술한 정토교학의 대표적 고전이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정토수행은 아미타불의 본원력, 즉 타력(他力)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법으로, 염불을 통한 왕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책은 중생을 정토, 즉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정토수행의 진면목을 확인시켜 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서두에는 담란의 생애와 그가 영향을 받은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조선시대 '호불' 관련 사료

'현정론 · 간폐석교소'

김기영 역주

한국불교연구원 / 1만2천원

조선시대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유교측의 배불(排佛) 주장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불교측의 반박 논리는 그 수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주목받지 못해 깊이 연구되지 못했다. 김기영 교사(경기여고)는 이 책에서 불교측의 반박 논리를 호불론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료들을 모아 정리했다. 함허의 <현정론>, 논리정연한 상소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백곡의 <간폐석교소>, 불교를 옹호하는 열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설잠의 <십장문>, 조선후기 연담의 <상한능주필수장서> 등 4개의 호불론 사료에 주석을 달았다.



큰스님들 법문 · 참선 소개

'道란 무엇인가'

도우 스님 지음

화남 / 1만원

이 책은 도우 스님(삼각산 도선사 염불선원장)이 역대 큰 스님들의 법문과 화두, 그 참선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특히 달마대사를 비롯해 보지공화상, 소동파, 백낙천, 인대방스님, 묘보수좌, 장사경잠 스님, 각범 스님, 불혜법천선사, 법륭선사, 현각대사, 석두화상, 승찬대사 등의 게송, 어록, 참문, 시송, 열반송, 참동계를 원문과 함께 번역을 해 실어 놓아 큰 가르침을 전해준다. 또 스님의 자작 선시 12수와 함께 성철, 청담 스님과의 각별한 법연도 소개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두 큰 스님의 수행자적 풍모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학춤 탄생배경 · 전승 규명

'사찰학춤연구'

백성 스님 지음

한림원 / 1만5천원

사찰에서 왠 학춤을 추었을까? 통도사 백성 스님이 최근에 펴낸 <사찰학춤 연구>를 읽은 이들이라면 한번 쯤 품어봤을 의문이다. 하지만 스님은 "학춤은 사찰에서 승려들에 의해 작법과 함께 전승돼온 불교문화예술" 이라고 소개한다. 특히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된 사찰학춤의 탄생배경과 개념정리, 불교작법과의 연관성, 전승방향 등을 읽다보면 '사찰에도 학춤이 있었구나' 하는 의문이 풀리면서 고개가 끄덕여 진다. 또 아직은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사찰에서 소중하게 계승해야 할 전통춤이라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궁리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3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4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5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자엮음	시월
6	왕생론주강설	이태원	운주사
7	화	틱낫한	명진
8	꿈	딘정쟈춰	호미
9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10	법화경 이것이 불교다	무비스님	불광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건강

가족을 부처님처럼!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지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진정한 사랑, 이것이 합하여지는데 녹아내리지 못할 업業이 어디에 있으며 성취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본문중에서 -

여기 부처님께서 깨우쳐주신 비결에 기초하여
· 가족이 되어 만나는 인연,
· 가족을 위한 세가지 기도법과 참회법,
· 걱정 대신 축원을 하는 생활,
· 구체적인 향상의 자녀교육법,
· 부부사랑을 키우는 비결,
· 불교 특유의 효 사상과 효도방법
등을 감동적으로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감히 청하옵나니, 이 책을 통하여 가족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과 나, 그리고 우리의 주위가 차츰 불국토로 변할 것입니다.

4×6판 / 176쪽 / 값 3,5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쪽 / 값 6,000원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 경전 !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① 금강경
※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② 부모은중경

독송의 방법과 축원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권 100쪽 / 국반판 /값1,000원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禱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나는 누구인가?

자기탐구방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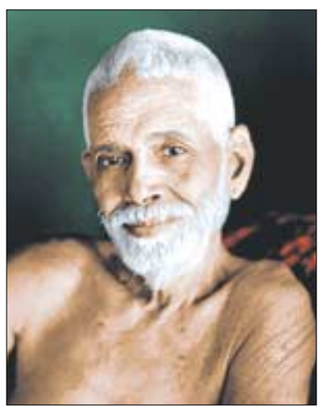


'라마나 마하르쉬와의 대담'

무나갈라 벤까따라마이아 기록

대성 스님 옮김

탐구사 / 2만원



◇라마나 마하르쉬

"깨달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난 상태가 유일하게 실재하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라마나 마하르쉬)

'20세기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슈리 라마나 마하르쉬(Sri Maharshi Maharshi, 1879~1950). 유명한 오쇼 라즈니쉬는 그를 가리켜 "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분"이라고 극찬했고, 달라이 라마와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G. Jung) 등이 모두 그의 위대함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보다 열 살이 위인 마하트마 간디도 생전에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가 입적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의 한 사람이며, 아루나찰라에 있는 그의 아쉬람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는 구도자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라마나 마하르쉬와의 대담>(원제 : Talks with Ramana Maharshi)은 국내에도 소개된 몇권의 그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도 널리 읽히는 주된 텍스트이기도 하다. 역자인 대성스님이 600쪽이 넘는 원서를 1년 가까이 완역하면서, 산스크리트로 된 전문용어들을 기존의 불교용어 등을 최대한 활용해 번역했다.

요가·헌신·봉사를 방편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 보여줘

이 책에서 드러나는 마하르쉬의 가르침은 종교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진아(眞我)를 직접 체험케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마하르쉬에 따르면,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에고는 이 세계와 자신의 육체가 실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는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처럼 실재하지 않는 하나의 환(幻)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신의 에고를 소멸하면, 이 물리적 세계 또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소멸되고, 이때 자신의 참된 성품인 진아가 찬연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자신이 일체에 두루한 영원한 실재임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 '진아'는 단순한 '무아' 개념의 상대어가 아니라 '유아와 무아, 비아와 비무아를 모두 넘어선 개념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불교의 불성, 본래면목, 한 물건 등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진아'라는 용어는 해탈의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영원불멸한 실체의 있고 없음 그 자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성 스님이 말한 바와 같이 '진아는 곧 진아가 아니니, 그 이름이 진아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고를 소멸할 것인가? 마하르쉬에 따르면 에고를 소멸하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탐구를 통해서 에고의 근원을 추적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요가(호흡제어와 마음제어), 헌신(신에 대한 숭배), 행위(사회적 봉사) 등 다른 모든 수행은 궁극적으로 이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탐구에 이르는 방편들이라 할 수 있다. 마하르쉬는 고매한 인격과 가장 단순한 삶의 방식을 통해 고대 인도의 종교적 전통을 현대에 재현해 보여줌으로써, 깨달음이란 이상과 실천이 지금도 유효함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으로 집약되는 '자기탐구'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길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했다고 평가받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엄마는 슈퍼집 의사

어린 아이·여성건강 섭생법 집중적으로 다뤄

'엄마가 현명해야 가족이 건강하다!'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의사 신동훈(42·동국대 한의과대학원 박사과정)씨가 쓴 <부모의 지혜가 총명한 아이 만든다>(삶과꿈)는 가족건강 지침서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진 건강정보를 지적하면서 여성이 지혜롭게 건강을 다져 나갈 때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씨는 어떤 질병에 무슨 약, 무슨 음식이 좋다는 식이 아니라 건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내 몸의 생명력(면역력)만이 결국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병치료는 의사나 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하고 환자 자신의 의지력으로 조율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튼튼한 엄마 되기', '우리 아이 튼튼하게 키우기', '잘못 알려진 건강 정보', '계절별 한약 양생법' 등으로 나눠 가족 건강 문제를 다뤘다.

'튼튼한 엄마되기'에서는 월경, 냉대하, 자궁 질환, 태교, 임신중 건강관리, 산후조리, 산후 비만, 산후우울증 등을 다뤘고 '우리 아기 튼튼하게 키우기'에서는 울음을 통한 건강 체크법과 체온 조절능력이 떨어진 아이를 따뜻하게 키워야 하는 이유, 경기 치료, 감기 예방 치료, 질병없이 키우기,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기는 등 성적 올리는 청소년 건강법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손발저림과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신경통과 관절염, 기미, 입냄새 원인, 오십견, 주부 습진, 민간요법의 허와 실 등 관련된 잘못된 건강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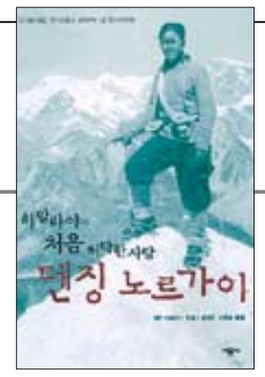


'부모의 지혜가 총명한 아이 만든다'

신동훈 지음

삶과 꿈 / 1만2천원

전문가 서평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람 텐징 노르가이'

에드 더글러스 지음 / 강대은·신현승 옮김

시공사 / 1만2천원

"어머니 무릎 오르는 아이의 마음으로 매번 다시 산 찾았다"

에드 더글러스가 지은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람 텐징 노르가이>(시공사)를 일주일동안 가방에 넣고 뜨겁고 시끄러운 도시에서 다니며 읽었다. 이 책의 겉면은 산에 다니는 이들이 제일 부러워할만한 자태를 보여주는 텐징 노르가이의 사진이다. 1953년 5월 29일, 그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전, 1953년 4월 3일 추캉 봉에 올랐을 때 찍은 모습을 담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이 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더 오를 곳이 없는 히말라야 꼭대기, 안전벨트없이 자일로 몸을 감은 채 그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보다 앞에 구부려 딛고 있다. 오른손은 날카로운 피크가 달린 피켈을 쥐고 있다. 그리고 양모로 만든 스웨터를 입고 있고, 목에서 어깨를 거쳐 허리로 걸쳐있는 자일이 당시 고전적인 산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페이지만 넘기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찍은 텐징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온다. 얼굴에 쓴 산소 마스크, 방한용 웃옷, 두툼한 장갑, 등에 맨 산소통 그리고 그이 오른 손에 쥐어진 깃발이 눈에 띈다. 이번에는 왼발이 오른발보다 조금 앞서 있고, 약간 구부러져 있다. 두 사진 사이에 한 달이 흘렀고, 그 사이에 세계 등반사는 새롭게 씌어져야 했다. 사진과 사진 사이에 백발 같은 흰눈으로 덮인 고산들이 즐비하다. 한 달 사이에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역사적인 에베레스트 초등을 이룩한 세르파 텐징은 늙어버린 것 같다. 산은 그대로인데 그는 지금 없다. 남은 것은 그가 이룩한 역사, 그 사실과 감동뿐이다. 이 책에 담긴 텐징의 사진들은 참 외롭다. 사진은 산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책을 읽기 전에 책에 실린 사진만을 보았다. 그것도 며칠 동안. 높은 산 아래에 사는 이들은 결이 참 곱다.

산에 오르다 '산'이 된 진정한 세계인

이책은 산에 오르다 산이 된 텐징 노르가이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책이되, 영원히 변함없는 히말라야 고산에 관한 책이되, 지금까지 산에 사는 히말라야 세르파 족에 관한 폭넓은 설명을 담은 책이다. 가장 많은 부분은 텐징이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숨가쁜 여정에 할애되어 있다.

텐징은 북부 티베트 이주민 출신의 셰르파족이었고, 산골에 사는 촌사람이었으며, 위대한 히말라야의 사람이었다. 텐징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텐징은 힐러리를 도와 먼저 길을 내고, 에베레스트 정상을 힐러리에게 양보한 셰르파에 그치지 않는다. 전체 12장으로 된 이 책은 산과 사람과의 위대한 만남, 겸손한 만남을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적고 있다. 산에 올라 그 한 마디, "초모롱마(Chomolungma)-티베트, 셰르파족들은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네팔 사람들은 사가르마타로 부른다-여,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위한 인간의 엄숙한 행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이 땅, 저 땅, 이 나라, 저 나라를 넘어서는 "진정한 세계인"의 모범으로 텐징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 텐징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것들이 정치와 국적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곳에서 생명은 너무 현실적이며, 죽음도 너무나 가깝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라고.

텐징은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산에 오르며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했던 산 사람이었다. 그가 모르고 있던 단어는 딱 하나, '정상'이다. 셰르파인들에게는 '정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2쪽) 에베레스트 초등 이후, 그는 여섯 번 더 등정을 시도했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오른 아이의 사랑으로 매번 산을 다시 찾았다"(83쪽)고 말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바는 여기에 있다.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겸손, 물처럼 세상에 순응하며, 거스를 수 없는 물의 흐름처럼(393쪽) 산 텐징의 삶이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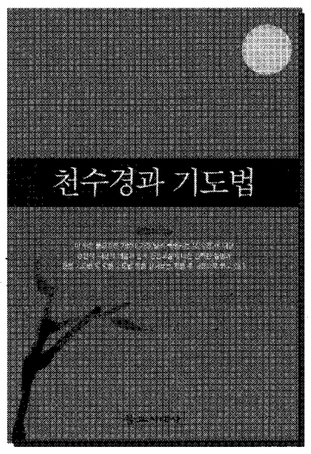
■안치운 / 호서대 예술학부 교수·연극평론가

이 책은 전설적인 세르파, 텐징의 일생을 처음으로 다룬 전기다. 일곱 차례나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도했던 텐징은 "적을 물리치는 병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에 오르는 아이의 사랑을 가지고 매번 산을 찾았다"고 말한다.

불교시대사 전화(02)730-2500 팩스(02)723-5961 www.buddhistbook.co.kr 법보시하기 좋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최고의 경전, 천수경 해설!
평안한 마음과 불보살의 가피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가는 관음·백중·염불 기도법!!

천수경과 기도법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천수경과의 만남!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기도
무한한 눈길과 손길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엄청나게 크고 원만하시며 걸림이 없는 대자대비한 마음과 위대한 주문을 담고 있는 이 경전을 올바로 이해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과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통해 오늘도 새로움으로 가득 찬 희망을 일구어 갑니다.

윤영해 지음 / 값 7,500원

불교의 공동체윤리

불교에서 바라본 가정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승가공동체의 윤리 지침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공동체적 존재이다
본질적으로 개인적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 불교는 지혜보다 오히려 자비를 더 궁극적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불교가 공동체의 삶에 무관심하여 자비의 실천을 등한시한다면 불교 역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윤영해 지음 / 값 5,000원

소원성취 영험도량 한국불교기도성지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는다.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감응을 하신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다.



정성운 외 지음 / 값 7,000원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욕망과 절제

최근 신문이나 방송을 보기 싫을 정도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유아유괴, 명품족 납치 살해, 부녀자 납치, 패륜 등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내면에 저장되어 있는 동물적인 야수성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데 망서리지 않는다. 생명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생명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자세로 취급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간의 생명을 수단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가족 이야기지만 월남전에 참전했던 친척 형님이 계셨다. 이 형님은 월남전에서 몇 명의 베트콩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이 형은 제대한 뒤에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신체는 건강한 편이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 이 형에 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망령이 나타나 밥거리를 배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오래지 않아 실성했다는 소문이 번지더니 몇 년지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번민했던 것 같다.

그 형님은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과거 보다 훨씬 고학력 시대임에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혹은 출세하기 위한 교육은 있으되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은 지양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이 사는 도리를 배우지 않는 데 사람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사람답지 못한 것을 나무란다면 그것은 이 사회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 밖에는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살인과 유괴, 납치의 이면에는 카드란 낱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도 카드를 만들어 사용해 보니까 편리한 점이 매우 많다는 점을 느낀다. 반면에 신중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수입이 별무인 청소년이나 대학생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불만족 내지 괴로움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다. 그것은 무절제한 욕망과 분노나 저주,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 등이다. 카드란 물건은 쓸데는 기분이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기도 좋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수입이 별무한 사람들이 급하니까, 우선 생색을 내기 위해서 혹은 무의식적인 욕구에 휘말려 마구 카드를 사용한다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다섯 가지의 욕망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재물욕, 이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다. 여기에 저주나 분노, 판단력 미비 등이 합해진다. 그런데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바로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인간들이 지니게 되는 속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만큼 버리기 어려운 것이다.

보통의 인간이 지니는 보편적인 속성을 부처님은 왜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성인이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간파했던 것이다. 동시에 무한대의 관계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사회에 행복과 안녕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절제와 조화란 점을 인식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종교인도 싸우고 욕한다. 아니 종교간에 전쟁도 일으킨다. 그렇기에 갈등과 분노와 저주를 야기하는 원천을 통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욕망은 갈등·분노·저주의 원천

절제와 조화로 행복한 생활 가능

욕구 충족에도 분수와 절제가 있어야 한다. 성숙한 사회일 수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남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남이야 어찌되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혼란은 있으되 평화와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공업중생으로서 이 사회로부터 무한대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그렇기에 최소한의 보은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카드를 마구 발급하거나 인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사회적 동물이라 말한다. 불교는 이것을 연기적 관계라 말하면서 공존과 공생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교육과정 속에서 사회의 구조와 최소한의 윤리를 배울 수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자아낼 수 있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공부·깨침·실천은 하나"



지상 백고좌

백 운 스님

(부산 미륵사 주지)

불교는 학문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입니다. 범어사가 운영하는 금정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늘 강조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불교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내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학문으로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도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기초를 배우고 나면 직접 참선(參禪)의 길로 들어가라고 강조합니다. 직접 참선을 하고 수행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론을 조금 안다고 불교를 많이 알았네, 불교를 깨쳤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도들의 교육을 하면서 나는 한 가지 원이 생겼습니다. 재가자들을 위한 선방을 개원해 공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도들이 스스로 참선하며 실천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재가자들은 참선에 대한 지도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참선 공부가 아주 겉돌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뭣고'라는 화두를 참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뭣고'가 뭔가 하고 물으면 뚜렷한 대답을 못할 만큼 피상적인 화두 참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이뭣고'가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뭣고'는 '이것이 무엇인고'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무엇을 '이것'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화두의 전제가 되는 말 '이것'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이 없이 무작정 화두를 받아서는 참된 의심이 되지 않고 바른 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조주스님은 '없다' 했거든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지? 이것이 무엇이지? 하는 것이 바로 화두의 전제입니다. 꼬무락거리는 버러지라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는가하는 의문을 전제해서 '이뭣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방의 선지식들은 무턱대고 화두를 주어선 안 됩니다. 이뭣고의 전제를 반드시 일러주고 참된 의심을 짓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화두의 근본은 의심입니다. 즉 '시삼마(是甚麼)'라는 말이죠. 이 시(是), 무엇 삼(甚) 마(麼)는 의문부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심마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심하다 할 때는 '심'이라 읽지만 '무엇'이라는 뜻일 때는 '삼'이라고 읽어야 옳습니다. 간화선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번뇌에다 화두라는 혹을 하나 더 붙여서 하는 거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간화선의 요령은 하나의 의심으로 생각을 모아 다른 것이 모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사실 혹은 혹이지만 그 의심을 함으로써 번뇌망상이 모두 떨어지고 그 의심이 똘똘 뭉쳐서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의심이 되는 경지에 이르면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화선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화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화두의 전제를 알지 못하고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가 피상적으로 겉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교학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학을 통해 참선 공부의 길잡이가 되니 조사어록을 스스로 읽고, 공부를 점검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고봉선사의



◇참선 공부의 길잡이가 되는 조사어록을 읽은 후, 정견을 갖고 참선할 것을 강조하는 백운스님.

"철저한 자기수행과 함께 중생제도를 위한 헌신도

잊어서는 안될 실천 덕목"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 (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사찰, 법당, 앰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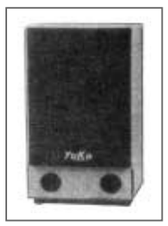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 동방 · 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 동방 · 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썸머울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백운스님은 "스님들이 무턱대고 신도들에게 화두를 주어선 안된다"면서 "'이뭣고'의 전제를 반드시 일러주고 참된 의심을 짓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선요>, 대혜선사의 <서장> 등 조사어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초가 되면 토굴에 가든지, 선방에 가든지 중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학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방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교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인 듯한 잘못된 견해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참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불교는 아주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가르침입니다. 자리(自利)는 자기를 이롭게 한다, 즉 자기 수행으로 지혜를 닦는 것이고, 이타(利他)는 남을 이롭게 한다, 즉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도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에 둘을 보태면 셋이다, 넷에 셋을 보태면 일곱이다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하는 게 제도가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제도입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물 바깥에 서서 이리 나오라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나오질 못하듯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고 진흙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중생을 건지는 것이 제도입니다. 중생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은 복력을 쌓는 일이어서 지혜와 더불어 부처님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지혜와 복력을 구족하신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바로 스스로 지혜를 갖추기 위한 자기 수행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도 빠져서는 안 될 실천덕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 생에 삼아승지겁 동안 보살행을 닦아서 성불했다고 했습니다. 삼아승지겁이면 무한량의 시공(時空)을 말합니다. 그 무한량의 시간동안 중생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성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자기 수행과 헌신을 병행하는 불제자들이 많아지면 어려워만 보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불사하는 문중에는 한 법도 버릴 바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 눈이 어두운 노비구를 위해 손수 바늘에 실을 꿰어 주신것처럼 부처님은 중생을 위한 헌신을 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헌신의 정신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이후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던 본원력을 잊어선 안 된다고 일깨우지 않았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전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혼자만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중생을 위한 헌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이름으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많은 이론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라는 한계 속에서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식(識)으로 하면 가짜입니다.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무상정등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넘어선 생각 너머에 있는 청정각성(淸淨覺性)에 이르러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변소에 있는 꼬리달린 벌레를 보면서 더럽다고 여기듯이 천상에서 보면 인간세상이 꼭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정각성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모두 가짜입니다. 불교니 깨달음이니 하고 논하지만 청정각성의 경지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 가짜입니다. 가짜인 나를 모두 부정한 그 자리에 여실히 존재하는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청정각성의 경지 아니면 인간은 모두가 '가짜'

본래면목 참구하는 불자되길"

기자가 본 백운 스님

백운스님께서 주석중인 미륵사는 차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한다. 산과 절의 경계가 없는 미륵사 입구, 잘 가꾸어진 텃밭에선 싱싱한 푸성귀가 자라고 있다. 먼 길 마다 않고 다리품을 팔아 스님을 만나면 스님이 들려주는 얘기와 법문에 수고로움을 금방 잊어버린다. 스님이 간직한 일화나 불교설화는 이미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될 만큼 무궁무진하다. 참선공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고승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시작한 것이<양치는 성자><진묵대사><부설거사><연선도인><오세동자> 등으로 출판됐다. 지금도 범어사 중창주인 <성월스님 일대기>를 초판해 놓은 상태고, <인곡선사 일대기>를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상권만 끝내고 하권을 남겨놓은 용성스님, 원효성사, 초의선사, 연선도인 등은 스님에게 남겨진 숙제다. "아직도 끝을 못 낸 일이 많아 일을 마치고 가야 할 텐데, 염라대왕이 시간을 줄 지 모르겠어. 허허허." 불교사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고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는 스님의 원력이 묻어난다.

'양치는 성자' 등 저서 다수

"숙제 끝내고 가야할텐데…"

1934년 전남에서 태어난 스님은 백양사로 출가, 53년에 동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은 이후 71년부터 87년까지 17년 동안 범어사, 송광사 등지에서 강사를 지내며 후학을 길러왔다. 스님은 한참 발길을 끊은 신도의 축원카드를 '한번쯤은 다시 오겠지'하는 기다림으로 없애지 못한다.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불자가 되길 축원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스님의 자상함은 형편이 어려운 신도들에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천도재를 지내주고 49재를 지내주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돈으로 정성을 흥정하는 일은 외도요 마구니짓"이라는 것이 평생 변함 없는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신도들은 집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은 다른 사찰에 다니다가도 형편이 어려울 때면 미륵사를 찾아 마음의 위안을 찾곤 한다. 마침, 대웅전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거사를 향해, 스님은 인사를 건넸다. "왜 한동안 뜸했소? 방에 들어가서 차나 한 잔하고 가시지." 백운 스님의 손님맞이는 이렇듯 정겹다.

"텃밭에 자라는 푸성귀도 사람 손길이 많이 가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스스로의 지혜와 복덕을 닦는 일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여름 햇살 머금은 미륵사 텃밭의 상추, 오이, 호박, 고추가 먹음직스럽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 인암스님 (中)



내 책상 위에는 인암스님이 열반한 이듬해인 1987년에 출간된 <인암시조선(忍庵時調選)> 한 권이 놓여 있다. '송광사 순례 시조'란 부제를 달고 있다. <인암시조선>에 들어있는 시조는 줄잡아 300 수가 넘는다. 투박한 사투리 그대로 쓰여 있어 구수한 숭늉 맛처럼 깊이가 느껴진다. 맞춤법도 옛 어투가 많다. 또한 스님의 육성 녹음테이프도 많이 있었다. 살아 생전에 사중 젊은 스님들이 녹음을 한 귀한 원본테이프는 지금도 송광사 도서관에 잘 보관돼 있을것이다.

노산 이은상 시인이 송광사를 찜배 왔을 때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이때 인암스님이 지은 시조 제목은 '고향수(枯香樹)'이다.

송광사 일주문 부근, 곧 우화각(羽化閣)과 세월각(洗月閣) 사이에는 바짝 마른 고목 기둥 같은 고향수(枯香樹) 하나가 서 있다. 이 향나무는 보조 국사의 기념 식수인데, 1200년 송광사에 오셔서 불교 중흥의 기치를 높이 세울 당시 보조 국사가 친히 심으신 나무다.



그림 · 문병성

그 후 세월이 흘렀다.

1210년 3월 27일 이른 아침이었다. 보조 국사가 세속의 인연을 다 하였을 때였다. 이때 흘륭한 제자는 스님 주위에 많았으나 함께 따라 죽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헌데 기특한 일이 생겼다. 잘 자라던 향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정말 놀랍구나. 이 향나무는 효자 나무여. 뛰어난 제자들이 많아도 그보다 훨씬 나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향나무는 썩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도 옛 모습을 잃지 않고 우뚝 서 있다.

그 사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생겼다. 보조 국사가 살면 향나무가 살고 보조 국사가 죽으면 향나무도 죽는다는 믿음이다.

"이 나무가 살아나는 날이면 보조 국사도 환생하여 다시 이 도량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조국사와 향나무를 하나로 보아 송광사 대중 스님들은 이 나무를 끔찍히 아낀다. 이러한 이야기를 인암 스님은 고향수 안내를 할 때면 항상 하곤 하셨다.

그때가 가을이었던가, 귀한 객손이 송광사를 방문했다. 유명한 시조시인인 노산 이은상 선생과 그 일행이었다. 스님은 평소대로 송광사 안내를 하면서 간간이 자작 시조도 읊었다. 전각 하나 하나에 시조 한 수를 붙여 읊으니 흥겨운 분위기가 저절로 조성되었다.

'고향수'와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고 났을 때였다. 인암 스님이 먼저 시조 한 수를 청했다. 노산 선생은 인암 스님이 얘기한 보조스님과 고향수 관련 설화를 한 수 시조에 담았다.

"어디메 계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말세 창생을 뉘 있어 건지리까
기다려 애타는 마음 임도 하마 아시리."

노산 선생이 즉석에서 이렇게 읊자 인암스님도 솜씨를 발휘하여 예사롭지 않게 화답하였다.

"살아서 푸른 잎도 떨어지는 가을인데

이은상 시인과 시조로 대화

"말세 창생을 뉘 있어 건지리까"

"마른나무 앞에 산잎 찾는 이마음"

마른 나무 앞에 산 잎 찾는 이 마음
아신 듯 모르시오니 못내 야속합니다."

그 후로 송광사 안내를 하면서 이 시조를 읊을 때마다 신명이 나서 스님의 목소리가 달라지신다. 스님의 힘과 노련미가 정점에 와서 넘치는 듯하였고 무언가 삶의 체취랄까 향기로움, 생기발랄한 기운이 물씬 풍기는 시조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낙(樂)이 다 모인 듯 하고 사람은 저마다 이런 크고 작은 면이 있어서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결식 때에 소개된 스님의 행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인암 스님은 사하촌(寺下村) 낙수리에서 태어나 열여덟에 송광사로 출가 하여 송광사 주지를 역임한 후에는 송광사 말사 주지 혹은 송광사 대중으로 지내셨다면서, "…1960년대에 송광사를 다녀간 여행객들은 어떤 승려의 위트와 해학과 정열이 넘치는 안내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수한 목소리에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인암 스님의 송광사 안내는 서울의 5대 일간지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할 만큼 유명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송광사>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땀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경남 범음 범패 학인모집(무료)

1. 본 대학에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범음범패 교육을 무료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2. 교육과목
(목탁, 요령, 징, 북, 쇠송, 괭가리 치는 법)
● 범음소리
● 오공양 승무춤
● 삼귀의 승무춤 일체를 여법하게 지도함
3. 선착순 : 30명
4. 수강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까지

한국 대승불교조계종 총본산
불 국 사
범음대학 교육원장 합장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055)521-1286(직통)
055)521-1236
011-9528-4026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를 전하고 그들의 지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즐곳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OO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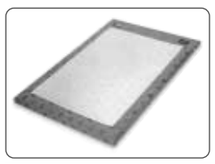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석씨향방의 제품은 따뜻한 기운을 발로 보내고
시원한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베게
박하, 곽향, 강활, 방풍, 당귀, 천궁, 석창포, 오수유, 만형자 외 기타 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98,000원

베게의 성분 효능 (태평어탕,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서늘한 기운과 열을 받기 쉬운 복잡한 모세혈관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고혈압, 저혈압, 신경질환, 우울증 등의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된다.
● 오래 베어도 베개 온도가 따뜻해지지 않고 늘 머리를 맑고 상쾌하게 해줍니다.
● 잔병과 감기에 시달리는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어린이, 학생이 베면,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져 공부가 잘 되며 주부, 직장인, 고령자가 베면, 뇌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뇌디스크, 우울해소, 비염에 좋으며 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귀가 잘 들리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안마온열보료
홍화, 황정, 황백, 감초, 건강, 두충, 건지황, 인삼, 황연, 황금, 황기, 솔잎, 삼칠근, 백출, 창출 외 기타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1인용 110만원, 2인용 130만원
안마 158만원

안마온열보료의 성분 효능 (태평어탕, 신농본초,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 향약 성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자연 치유력을 고조시켜 주며, 전신에 은은한 향약 향과 함께 지압효과를 주며 온몸 구석구석의 뭉친곳, 결린곳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며, 피순환 및 기순환을 원활히 도와 줍니다.
● 잔병이 많은 어린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병든 세포가 싱싱한 세포로, 난치병의 치유기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편안한 수면과 수면 시간이 짧더라도 충분한 피로회복 효과.
● 고혈압, 중풍관리, 치매 예방

대리점 모집

☎ 02) 538-7161 http// : www.hyangga.com



"더위 물리치고 건강도 챙기자"

찜통더위와 장마철 습기로 무더운 여름, 아무래도 기력을 잃기 쉽고 시원한 물 한 잔이 자주 생각나는 계절이다. 더위로 지친 가족들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녹차를 이용한 음료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차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리스트라이균 등의 살균과 억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피를 맑게 해 동맥경화 등 혈관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차는 찬 성분이어서 여름에 마시면 열독을 없앤다"는 기록이 있다.

차로 만들 수 있는 음료는 수없이 많다. 시원한 냉차를 만들어 마셔도 좋고 찻물을 얼려 빙수를 만들거나 과일과 가루차를 얼려 셔벗을 만들어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우유 셰이크에 가루차를 섞거나 찻물을 섞어 마시면 배탈이 날 염려가 없는 건강음료가 된다.

식중독 일으키는 균 억제 탁월
피 맑게해 혈관계 질환에 효과

▷냉녹차

녹차 5작은술, 따뜻한 물 2컵, 차가운 생수 1/2컵

1. 녹차 2작은술을 다관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우려낸다. 찻물이 식으면 얼음틀에 부어 얼린다.
2. 녹차 3작은술을 다관에 넣고 차가운 생수를 부어두었다가 4분 뒤에 따른다. 찬물에 차를 우려 맑은 유리잔에 붓고 차얼음을 띄운다.

▷녹차빙수

가루차 2작은술, 물 2컵, 조린 팥 적당량

1. 가루차에 물 1컵을 부어 멍울 없이 푼 다음 나머지 물을 붓고 그릇에 담아 얼린다.
2. 1을 얼린 얼음을 빙수기에 갈아 조린 팥을 올린다. 그 위에 가루차를 약간 뿌려준다.

▷가루차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1컵, 가루차 1작은술, 딸기 3개

1. 딸기는 씻어서 3등분 해둔다.
2.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약간 녹인 다음 가루차를 섞어 냉동실에 넣는다.
3. 10분 정도 얼렸다 꺼내 한 번 긁어서 섞어준다.
4. 3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20분 정도 얼려서 그릇에 담고 가루차를 살짝 뿌려낸다. 딸기, 키위 등의 과일을 곁들여도 좋다.

▷가루차 셰이크

가루차 1작은술, 따뜻한 물 1/4컵, 우유 200㎖, 달걀 1개, 인삼가루 1작은술, 꿀 적당량

1. 가루차에 따뜻한 물을 부어 거품이 일도록 잘 휘저은 다음 꿀을 섞는다. 가루차 대신 녹차 1작은술을 분쇄기에 갈아넣어도 된다.
2. 믹서에 우유, 달걀, 인삼가루, 풀어둔 가루차, 얼음을 넣고 잠깐 동안 섞는다.

▷차콩국

흰콩 1컵, 볶은깨 3큰술, 가루차 3작은술, 물 3컵, 소금

1. 흰콩을 하룻밤 정도 물에 불렸다가 콩이 잠길 만큼의 물을 붓고 끓을 때까지 삶는다.
2. 삶은 콩을 찬물에 헹군 다음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다.
3. 볶은 흰깨와 콩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 체에 발친다. 물은 미리 끓여서 식혀 놓는다. 먹기 전에 물과 소금으로 간을 한다. 간은 먹을 때 해야 콩물이 삭지 않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냉녹차





◇가루차 셰이크 <자료제공=쿠켄> ◇가루차 아이스크림

우리차



'특우전'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 자리 잡은 유로제다(www.yourotea.com)가 생산하는 '특우전'은 새 봄의 기운을 머금은 차로, 맑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모양새가 참새 혓바닥 같아 작설(雀舌)이라고도 하는 우전은 곡우 이전에 딴 어린 순으로 만든 수제차다. 100g 8만원. (055)883-2911

녹차 추출물 조직검사 세포배양 통해
피부노화 방지, 암세포 억제효과 확인

"녹차 우린 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속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은희철 교수팀은 피부에 녹차의 주성분인 EGCG(epigallocatechin-3-gallate, 이하 녹차추출물)를 바르는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피부 재생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물론 정상세포 괴사율도 낮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정상 피부세포와 암세포를 녹차추출물이 함유된 세포배양액에 넣고 4일간 관찰한 결과 정상 피부세포는 두 배 이상 세포수가 늘어난 반면 암세포는 80~90%가 괴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70대 남자 노인 5명의 엉덩이에 녹차추출물을 주당 3회씩 6주간 바른 뒤 조직검사를 한 결과 바르기 전 0.1㎜였던 엉덩이 표피 두께가 0.17㎜로 젊은 사람과 같게 재생됐다.

연구팀은 "녹차추출물이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ERK, AKT, Bcl-2의 발현을 증가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반면 표피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생물학회연합회 학회지이자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지인 '파세브 저널(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 7월호에도 실릴 예정이다.

차맥 지킴이



이연자

(사)한배달 우리차문화원 원장

1970년대 중반, 차문화를 취재하던 남편을 따라 차의 산지를 누비던 '새색시'는 30년 세월을 훌쩍 넘어 '차 요리 전문가'가 됐다. (사)한배달 우리차문화원 이연자 원장(59). 그동안 차 요리법을 각종 매체에 연재하며 '차 요리 전령사'로 살아온 이 원장은 요즘도 대학과 문화센터 강의와 종가의 차 생활을 기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차뿐만 아니라 차를 이용한 음식들도 낯설지 않은 요즘, 30여 년간 차 음식 개발에 앞장 서 온 이연자 원장을 만나 차와 음식의 '행복한 만남'에 대해 들어보았다.

▲30년 동안 '차 요리'를 연구하고 대중화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 요리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70년대 중반, 차를 덖고 비비는 일을 체험해 본 뒤 차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우려 마신 찻잎을 버리지 않고 요리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100여 종의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아 1995년 <차요리>란 책으로 냈고, 지난해에는 <자연의 맛 우리 차요리>로 다시 묶어 냈습니다."

▲명문종가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책도 냈는데, 종가를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 정신, 본질 살린 헌다의식 필요
관혼상제와 접목될 수 있는 길 연구

"종가의 살림과 문화를 연구하게 된 것도 차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 때문입니다.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차 예법을 공부하려는 욕심에서죠. 종가에는 제사의 순서를 적어놓는 '홀기'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를 올리는 순서가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에 관한 대표적 교과서인 김장생의 <가례집람>에도 '제사에는 차와 과일 한 접시, 그리고 후손들의 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종가에서조차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종가 차례에 차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차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가 일부 계층만의 음료로 인식되던 20~30년 전에 비해 이제 차는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어주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도(茶道)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겉치레가 아니라 자신의 정성을 다해 바치는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헌다의식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화려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가 지니고 있는 정신과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힘닿는 그날까지 종가의 차문화를 찾아 기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의와 언론매체 연재를 통해 그 기록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문헌으로만 전해온 헌다의식을 오늘날의 관혼상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짧은 출가, 긴 깨달음

달마선원, 15일부터 2박3일 '여름명상캠프'

문화체험 위주…초심자에 알맞는 프로그램

번뇌는 소리·춤으로 벗고 위빠사나도 수행



◇명상캠프 참가자들이 불가의 전통음악인 '동해의 소리'를 배우고 있다.

여름이 되면 전국의 사찰들은 사람들로 분주해 진다. '짧은 출가, 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찰수련회에 많은 이들이 참가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찰 수련회는 새벽예불로 시작해 참선, 울력, 108배 등 스님들이 산사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일정으로 짜여있다. 그래서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하거나 힘들어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속리산 달마선원(원장 범주 스님)이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2박3일씩 5회에 걸쳐 여는 '여름명상캠프'는 초심자들에게 적합한 사찰 수련 프로그램이다. 문화 체험을 통한 명상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명상캠프에 참가하면 우선 '동해의 소리'부터 배운다. '동해의 소리'? 생소하겠지만 전통불교음악과 사물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불가의 가락이다. 현재는 맥이 거의 끊겨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불교의식과 행사에서 많이 쓰였다. 유일한 이수자인 종산 스님(울진 선다향 예술원장)의 지도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배우고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도 춘다.

달마선원의 명상캠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부터 월 2회씩 주말을 이용해 꾸준히 해오고 있다. 신청인원이 많지만 아직은 공간이 협소해 1회당 30명 정도만 받는다.

일반인들도 쉽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인지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참여한다.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도 그중 한사람이다.

행사를 기획한 범주 스님은 "인내심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 정적인 참선보다는 문화이벤트를 통한 동적인 명상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다"며 "참가자들의 몸 속에 쌓여있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흥겨운 소리와 춤을 통해 완전히 털어낸 후 정적인 명상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한바탕 흥겨운 소리 배우기가 끝나면 고요한 명상 음악을 틀어 놓고 위빠사나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날에는 속리산의 고요한 새벽숲길을 걸으며 명상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묵언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 자연을 보고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연습을 하기 위함이다. 이어 30여년간 달마도를 그려온 범주 스님이 '달마도 그리는 법' 시범과 강의를 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그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가비 5만원. 선착순 30명. (054)535-0378.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TV에서 '찬불가 교실, 오늘은 좋은날'을 진행하는 정율 스님이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사박'

정율스님, 불교TV 찬불가교실 진행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사박 사박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낭랑한 찬불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불교TV 스튜디오. 정율 스님의 찬불가 교실 '오늘은 좋은 날'(담당 강영호 PD) 녹화가 있는 날이다. 성악가로 불음을 전파해온 정율 스님이 그동안 운문사 승가대학과 교양대학, 일반 사찰의 법회에서 찬불가 교실을 열기는 했지만, 방송을 통해 찬불가를 가르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찬불가 교실…'에서는 의식곡과 찬불가 각각 1곡씩을 배우게 된다. 의식곡은 불자들이 평소에 잘 틀리는 곳을 짚어가며 다시 불러보고, 찬불가는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며 배운다. 반주는 오랫동안 스님과 호흡을 맞춰온 니르바나 실내악단 피아니스트 이현주 씨가 맡았다.

매번 한 시간 가량 녹화를 하지만 정율 스님의 손에는 정해진 대본이 들려있지 않다. 그때그때 상황과 노래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법문이나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기 때문이다.

정율 스님은 "함께 찬불가를 배우고 싶은 분은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녹화장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오늘은 좋은 날'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 20분과 밤 10시,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불교TV를 통해 방송된다.(02)3270-3300 여수령 기자



나왕케촉 새음반 '카루나'

지혜의 바다 등 8곡 수록

티베트의 명상음악가 나왕케촉이 새 음반 '카루나(Karuna)'를 내놓았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카루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자비'라는 의미다. '카루나'는 티베트 사상의 중심이며, 그들의 전통문화를 잉태한 핵심사상이다. 명상음악인 '카루나'를 듣고 있노라면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깊이 명상하고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외에도 이번 음반에는 '지혜의 바다'를 비롯해 '티베트', '춤의 여신을 위한 리듬', '존재', '대지의 은총에 대한 감사', '평화로 이끄는 친절' 등 8곡이 수록돼 있다.

나왕케촉은 현재까지 8장의 앨범을 내 3번이나 그래미상 후보로 올랐다.

김주일기자

공·무아사상 녹아든 禪筆

서예가 운여 김광업 '문자반야展' 열어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운여 김광업의 문자반야(文字般若)의 세계 展'은 서예, 전각, 그림 등 작품과 자료 250여점을 통해 김씨의 예술세계를 전면적으로 재조명한다. 전시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안과의사였던 김광업(1906~1976)씨는 공(空), 무아(無我), 반야(般若)의 사상이 녹아 있는 선필(禪筆)을 구가해 고승대덕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 작품은 서예가들이 소장한 100여점,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150여점 등이다. 그의 절친한 도반은 불화가인 부산 선주산방(善柱山房)의 석정(石鼎)스님. 두 사람은 김씨가 197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작고할 때까지 20년에 걸쳐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평가였다. 그래서 이번 전시 작품중 '원상(圓相)', '입불이문(入不二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달마도' 등 상당수가 불교적인 내용들이다. (02)580-1511. 김주일기자



◇김광업 作, '천상천하유아독존'.



◇동화작가정채봉씨의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오세암'의 한 장면.

"여름방학엔 '오세암' 꼭 보세요"

문광부,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에 관람권장

"여름방학기간 가족이 함께 영화 '오세암' 보세요."

문화당국이 개봉 1주일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던 극장용 국산 창작 장편 애니메이션 '오세암' 되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문화당국이 국산 애니메이션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달 중순 '오세암'이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부산시민회관 등 각 지역 시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재개봉될 예정이라며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최근 협조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6:05 불교 강좌
09:05 차 한잔의 선율
10:55 우리들의 찬불가
14:45 고승열전
16:45 룸비니 동산
20:00 뉴스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9일 11:30 정경스님의 참선요가
10일 08:30 정세채의 선식 건강법
11일 09:30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 문화인
12일 23:35 다큐스페셜 삶과 예술
13일 11:30 정율스님의 오늘은 좋은날
14일 19:35 팡팡 룸비니동산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불교 강좌(11일 06:05~06:25)-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 하는 시간. 동국대 정병조 교수와 함께 '현대 사회와 불교'라는 주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불교텔레비전

▷정세채의 선식 건강법 '밥상에 도가 있다'(10일 08:30~09:20)-여섯번째 시간 '고승에게 배우는 산사의 요리설법'에서는 금정산 동산 스님의 식습관을 통해 죽의 효용과 그 의의를 알아본다.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뒤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당신에게 행운을…

발명특허 출원제품



소원성취

본제품은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는 경명주사 부적이 자수된 제품입니다.

※ 경명주사 부적은 옛날부터 악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재앙을 막아주며 왕성한 기(氣)가 형출되어 심신을 안정케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취급품목
-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넥타이, 지갑
-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 가정화목의 카페트, 맑은정신의 베게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을…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수입금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함 ◀

www.bu juk shop.com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천룡정사 복지원 문의 :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장 053)986-135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조끼·몸배

◆ 모직(올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8화 마왕 파피야스의 딸 '카마'

마라 파피야스(mara papiyas)의 명을 받은 그의 세 딸 중 첫째 딸인 욕염(Kama)이 먼저 싯다르타의 성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으로부터 어둠을 타고 내려와 삼매(Samadhi)의 경지속에서 열반으로 돌진하고 있는 싯다르타의 앞에 그 요염한 자태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막상 크게 동요해야 할 싯다르타는 그녀의 출현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참선속에 있는 것이다.

싯다르타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당하면서 마치 땅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쳐다보듯 하자 마녀의 자존심은 비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그렇다고 이쯤에서 그리 쉽게 물러설 마녀 욕염이 아니었다.

"샤카족의 왕자님이시어. 이 좋은 봄날 기분 좋은 날씨에 왕자님은 어찌하여 삶(生)을 포기하려 하시옵니까. 제가 보건데 지금 왕자님의 몸은 비참하게 메마르고 안색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지금 왕자님께서는 좌선(坐禪)을 해서 불가능한 길을 가겠다고 헤매고 있지만, 그 길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길인 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자 이제 고집을 꺾으세요. 샤카의 왕자시여! 지금 왕자님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봄을 맞는 풀들이 한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왕자님도 35세 청춘을 맞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젊은 시절이 즐거운 겁니다. 청춘은 한번가면 두번 찾아오지 않아요. 당신은 젊고 그 모습도 잘생겨 보입니다. 공연히 쓸데없이 아름다운 청춘을 낭비하지 말아요. 그리고 생명의 고마움도 깨달아야 돼요.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살아 있으면 공덕을 쌓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이처럼 고행을 하지 않아도 순결한 수행에 힘쓰고 성화(聖火)의 제사에 제물을 바치면 공덕을 쌓게 되고 오욕(五慾)의 즐거움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말을 알아 들었으며 그 좌선을 깨뜨리고 내가 하늘에서 준비해온 이 맛있는 술을 들어 보십시오.

이 술은 꿀물 보다도 달고 만다라 천화(天花)보다도 향기가 좋답니다. 이 술 한 잔이면 왕자님께서 즉시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일단 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오욕(五慾)의 즐거움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왕자님의 나이 인생의 절정기여서 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연의 법리를 어기는 것이 되어 훌륭한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진실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은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예요. 여자를 따르면 마음이 즐겁고 그것을 거부하면 나무에 잎과 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얻기 어려운 경계를 얻으셨으니 결코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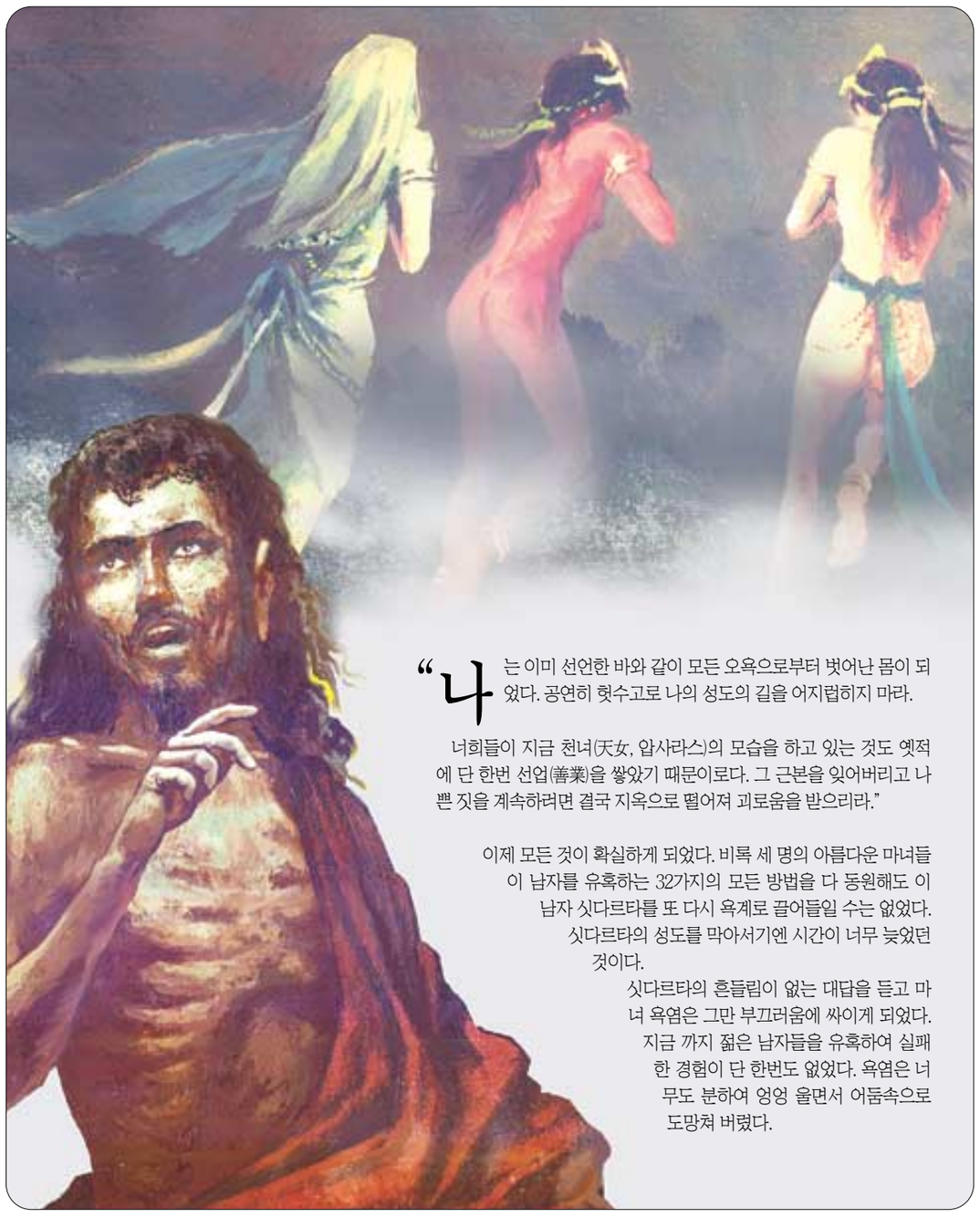
마라 파피야스의 딸 카마(Kama)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싯다르타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였다. 그때까지 마녀의 설득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싯다르타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마녀에게 답변한다.

"마왕 파피야스의 딸 욕염(慾染)은 들으라, 여인은 육체를 유혹하고 육체의 쾌락에는 고뇌가 따르는 법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한 고뇌를 초월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알지못해 욕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산다.

권세나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부드러운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에 대한 미련은 인간이 탈출할 수 없는 원초적인 욕구로서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동안 욕계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6년간의 수도를 통해서 이제 절대적인 정신의 자유에 도달하려고 한다. 일단 내 자신이 해탈에 오르면 고통에서 고뇌하는 세상 사람들 까지도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늘을 지나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고하는 나를 어떻게 다시 욕계로 끌어 내릴 수 있겠는가."

젊은 청년의 마음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녀들은 뜻밖에 완강한 반응을 보인 샤카족의 왕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의 고행자는 그동안 그들이 정복했었던 어떤 수도승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판명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샤카의 큰 무늬가 분명히 밝혔듯이 일단 열반에 오르기만 하면 그 혼자만이 조용히 성도의 희열을 맛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욕계의 지배하에 허덕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을 욕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던가.



"나는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오욕으로부터 벗어난 몸이 되었다. 공연히 헛수고로 나의 성도의 길을 어지럽히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천녀(天女, 압사라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옛적에 단 한번 선업(善業)을 쌓았기 때문이로다.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계속하려면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비록 세 명의 아름다운 마녀들이 남자를 유혹하는 32가지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남자 싯다르타를 또 다시 욕계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싯다르타의 성도를 막아서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던 것이다.

싯다르타의 흔들림이 없는 대답을 듣고 마녀 욕염은 그만 부끄러움에 싸이게 되었다. 지금 까지 젊은 남자들을 유혹하여 실패한 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다. 욕염은 너무도 분하여 엉엉 울면서 어둠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세명의 마녀들은 울면서 아버지 마왕 앞에 섰다. 그리고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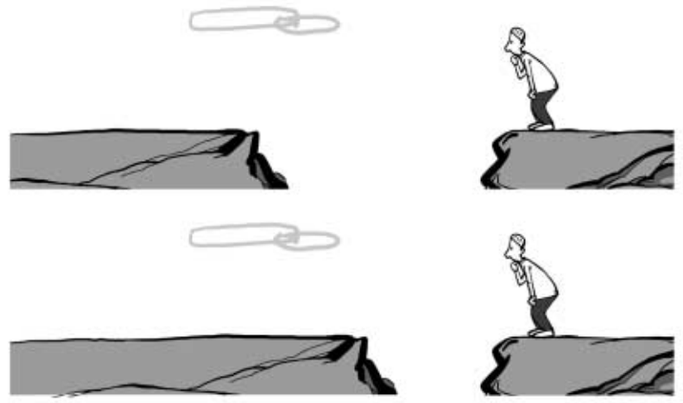
"그 왕자의 모습이 비록 말랐으나 보름달 같이 맑은 정기가 얼굴에 서렸고 진흙속에서 솟아오른 아름다운 연꽃자체였어요. 아침 햇살처럼 밝았고 수미산(須彌山, Sumeru-Parvata)보다 더 의젓하며 타오르는 불길처럼 뿜어나오는 위광(威光)은 기필코 생사(生死)의 속박을 초월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예요. 아버님, 우리의 반항은 아무 소용없어요, 비록 수미산이 무너지고 일월성신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그 샤카의 무늬는 꿈쩍도 않으실 것입니다."

기대했던 세 딸의 보고를 받은 마왕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용서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나로부터 알아야 하고
나로부터 믿어야 하고
나로부터 발견해야


그림 · 최주현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항상 공체로써 공용하면서 공생으로 살고 돌아가건만 한 달 전이 아주 먼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좌석에 같이 앉아 계시는 이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서 그 에너지의 광력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항상 우리와 혹성이 다르고 태양이 다르고 별성이 다르고 삶도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돼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과 태양계가 동시에 갈다는 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그 도리를 알게 된다면, 일초도 틀리지 않는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왜 틀리지 않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참자기는 늙으나 젊으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자기가 모르니까 몸이 커지고 중년기에 이르러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세우고 나가죠.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억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건 몸이 비대했던 과거나 줄어든 지금이나 생명의 불성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몸도 수만 배로 비대해진 동시에 중심이 가벼워서 타지도 않고, 차디찬 가스덩어리의 중심 중력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점점 내부로 뭉쳐 점차 작게 되면서 1700만 도나 올라가 모두 원자로 바뀝니다. 즉 말하자면 원자로 바뀌어 나누어졌다가 5000만 도에 오르게 되면 원자핵은 전자로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자핵이 고온으로 되어 고온 속에서 작용을 함으로써 결합이 되고, 가벼운 원자핵에서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진다는 뜻이죠. 즉 말하자면 전자와 전자가 융합이 돼서 한데 합쳐서 작용이 되면 두 분자는 바로 제 질량이 없어지고 에너지덩어리가 되어서 광자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가만히 볼 때, 나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용어가 틀렸다면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사람도 역시 몸이 비대해져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커지면 중력을 이루고 중심이 가벼워진다는 뜻은 그 중심이 되는 마음은 탈 수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타지는 않으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찬 가스덩어리 그 중심에서 중력으로 인해서 바깥쪽이 점차 작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바깥에 있는 그 자체를 안으로 뭉치는 작용을 합니다. 또 아까 1700만 도가 오른다고 한 것은, 내는 작용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즉 활궁법(活宮法)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마음 가지고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시죠. 한마음 속에서 아마 헤아릴 수 없이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1700만 도가 올라 모두 원자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바깥으로 내는 작용입니다. 바깥으로 내는 작용에, 거기에다 나누어진 데다가 또 5000만 도가 오르면 전자로 분해가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광로에다 헌쇠를 다 넣었더니 새 것으로 다시 재생이 되어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분해가 되니까 원자핵은 평등화되는 겁니다. 고온이 되고 평등화가 돼서 평등한 그 자체 속에서 작용을 하니까 모든 양면이 다 질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서산대사가 문지방을 걸터 밟고서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 하고 물었다는 것처럼 나가겠느냐, 들어가겠느냐는 질량은 다 없어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상대성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대성이 합쳐서 융합이 돼서 핵반응을 할 때에 비로소 에너지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니까 광자를 이룬다, 우리가 크게 물리가 터졌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면 그 두 개가 융합이 돼서 바로 반응 작용을 할 때에 두 입자의 질량은 다 없어지고 에너지 덩어리가 광자를 이룬다 이런 겁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역시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을 자기로 인해서 들이고 내는 거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들이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작용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작용이 없다면 송장이죠. 그럼으로써 그 작용에 따라서 이 활동도 바로 그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들이고 내는 것은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들이고 내는데 이게 됐다 저게 됐다, 몸은 똑같은데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형이 됐다가 동생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체는 모두 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했고,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하고, 아까 전자와 전자가 양면이 반응 작용을 한다고 그랬듯이 사람도 그렇게 놓고 맡기고 작용을 한다면 그게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됩니다.

매사를 다 놓으라니까 그렇게 놓으면 난 어떻게 사느냐고 이러거든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쉬는 거나, 보고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일이 작용하는 것이 전부 하나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작용이 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하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생겨났으니까 나로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나로부터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부터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으면 그 작용이 바로 나한테서 나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작용이 나한테서 나온다면 일체가 다 내 주인공한테서 나오는 거죠.

이 몸뚱이는 주인의 시자일 뿐이며 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주인의 생각은 따로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를 갈 때에 어디 가서 좋고 나쁜지 뭘 봐야 되고 이러는 게 없이 내가 있는 게 그냥 법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냥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날을 내가 정하는 거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 한마디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자세히 보고, 내가 건너뛸 수 있나 없나 하는 그것부터 보고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작용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교차로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정한다 이겁니다. 그 교차로가 바로 중심이자 중력, 중용이며 모든 일을 하고 전후사 일체만법에 균형을 잡아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모두 바깥에서 찾고 바깥에서 빌고 바깥에서 잘되게 해 달라고 비는 그러한 관습이 붙어 돌아갔으니까, 그 관습에 의해서 그대로 이게 틀렸다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둥 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원래 이 큰 우주의 섭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 한생각으로 자기를 빠뜨리기도 하고 자기 한생각으로 자기를 꺼내기도 하는 이러한 묘법이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터져 나오는 작용에 의해서 태양도 우리네가 작용하는 거나 같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이 도리를 알고 보면 내가 태양이 됐다가 태양이 내가 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 광력이 그렇게 충만하다는 얘깁니다.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돌아가죠. 지금 별성의 관계도 그렇고, 별성이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재생을 하려면 다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수명은 짧고 긴 것이 있지만 수명에 따라서 껍데기를 벗고 또 재생을 하려면 에너지, 즉 말하자면 광자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 전자와 전자가 양면이 작용하듯
> 일체를 놓고 맡기고 작용 한다면
> 그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

우리가 발전소를 해놔야 그 전력을 꺼내 쓰듯이 별성들 은하계에서도 광자를 해놔야 바로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재생하는 데는 반드시 광자에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이 되기 전에 활동할 때는 바로 그 에너지가 광자로 이름이 되죠. 즉 한데 합쳐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전력을 쓰지 않을 때는 그 발전소에서 그냥 함축이 되지만 여기서 끌어 쓸 때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광자를 해놓았지만 이 마음들이 광자를 한데 모아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먼저 생기고 발전소를 만들어놨죠? 발전소가 먼저 생긴 게 아니죠? 인간이 다 생기고 난 뒤에 '이거 발전소를 해야 우리가 전력을 끌어 쓰겠다.' 해서 발전소를 했었는데, 그것이 네 가지가 한데 합쳐지지 않으면 전력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발전소를 만들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의 재생이나 별성의 재생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수명이 짧고 긴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길다고 영원하다고 하고 수명이 짧다고 해서 영원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껍데기만 벗어지고 그 영원한 에너지는 그냥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한데 모아서 껍데기를 조성해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바퀴가 있으면 법바퀴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바퀴와 법바퀴, 그리고 지혜바퀴가 한데 합쳐진 결론에서 바로 생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을, 만약에 몸이 쇠퇴해지면 작용을 해서 껍데기를 벗고 그 별성이, 아주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폭발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 껍데기라 하는 것도, 아마도 우리들한테도 미치게 돼 있죠. 지구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똥 누면은 거름이 돼서 다시 우리가 먹듯이, 그 껍데기가 떨어지면은 껍데기 떨어지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거름이 되는 거죠. 거름이 돼서 다시금 그것이 세 가지가 다시 모여서 에너지 광자가 들어간다면 바로 그게 네 가지가 한데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 거름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러한 물리가 잘 터지지 못할 겁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공기가 아니면 생명이 살 수 없듯이 바람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것도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섞입니다. 섞여서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참 묘한 점이 있는 것은 동(東)이다, 서(西)다, 사방이 있다면 그 사이 사이에 물에서 사는 영식이, 영혼이 올라가면, 공부하는 영혼들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인간으로 화할 때 그 사이를 통해서 물이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의 씨앗이 되어 동쪽 사이 서쪽 사이, 남쪽 사이 북쪽 사이, 그 사이로만 올라와서 인간에게 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에서 진화되는 여건은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인간으로 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불의 성질은 불의 성질이기 때문에 불성이 전체 불성을 가졌고 영원한 불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바람은 바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있구요. 이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성질을 하나도 죽이는 법이 없이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도 자기를 이익하게 작용을 하지 남을 이익되게 작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공을 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런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감각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을, 온통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것을 그냥 내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말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그냥 판단하지 말고 안으로 놓고 굴려서 다시 내놓고 활용하고 작용해라 이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가면 안의 도리는 모르고 바깥의 물질에만 끄달려서 해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모든 것을 놓고 맡기면서 자기의 작용은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 중용입니다.

여러분은 중용은 하시지 않고 항상 그저 들리는 대로 누가 아주 몹쓸 욕을 했다 그러면 바로 또 그냥 쏜살같이 나갑니다. "도대체 그 놈이 왜 그래? 그 놈이 왜 그런대?" 그런 말이 악의적으로 나가면서 막 뱉어 버리죠. 그러나 알고 본다면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었지 내가 없다면은 상대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알고 보면 다 내 탓입니다. 또 넓게 생각한다면 수억겁전으로부터 진화되어 곤충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시대시대를 좇아서 참 많은 시대를 극복하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인간으로까지 진화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가 딴 구름하고 모였다 흩어졌다, 또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도 그렇고 자식이 되는 것도 그렇고 수없이 엇갈려 가면서 그렇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수없이 그렇게 돌아온 나날 중에, 이 생에 이 부모를 만났을 때 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 저 부모를 만났을 때 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넓고 크게 전체를 본다면 하나도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좁게 본다면 내 가정, 내 식구, 내 남편, 내 자식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철 나와서 같이 인연을 맺어서 놀다갈 뿐입니다. 한 철 놀다가 헤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듯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둥바둥하면서 천년만년 살 줄 알지만 한 철 나왔다가 가는 걸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원수처럼 싸우며, 모두 이쁘고 미운 것 찾으면서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겁니다. 배신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운 말 대신 악의적인 말들을 뱉어버리곤 하죠. 그게 인과응보가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인과응보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기가 오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0만 도에 오르게 되면은 그냥 확 바뀌어지면서 전자로 분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인간도 폭발이 되면 아무 말이나 막 뱉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과가 되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주 몸에서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뭉쳐진 액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악을 만드니 여러분이 살기가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알게 악을 만드는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뱉은 말은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괴롭다 해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때는 딱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머리가 시원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듣기 좋게 말합니다만, 병고에 시달려서 오는 분들, 가난해서 오는 분들, 부부 사이가 원만치 못해서 오는 분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오는 분들, 그리고 그 뿐이 아닙니다. 세세히 말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그것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뱉은 인과응보로써 나온 것은 어찌할 수 없고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자 운명이 거기에 붙어 돌아가니까 그 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 탓인 줄 모르고 살기가 어렵다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것은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것은 잘 안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여러분이 지은 것입니다. 현재에 짓는 것은 현재에 그렇게 갖다가 넣으니까 모든 것이 없어지는 반면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빠르지마는, 과거로부터 지은 것은 더딥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실의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을 가만히 볼 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실에 사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것을 미리 마련하고 있는 거구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고행을 하신다고 다니시다가 아마 쓰러지신 모양입니다.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그 스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우선 먹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간장 물을 타다가 스님한테 권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 권했는데도 그냥 자고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떠 넣어서 간장 물 반 그릇을 다 먹이고 나니까 정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죽을 쑤어 드리고 해서 웬만큼 정신이 나서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되니까 어디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이 되니까 그 노인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말이 "스님 업보가 얼마나 무섭기에, 제가 전생에 업보를 얼마나 졌기에 이렇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님은 어리둥

☞30면으로 계속

넓고 크게 전체를 본다면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어

☞29면에서 계속

절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업보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괜찮게 사는데…" "그럼 어젯밤에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해서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스님, 좀 봐주십시오" 하여 곡간엘 가보니 두 남녀가 묶여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하는 말이 "먹으려고 해서 먹이면 그걸 다 토해내고, 핏물 같은 것을 쏟는가 하면 끌러주면 끌러주는 대로 죽인다고 날뛰며 온통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 저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묶어놨습니다. 그래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참 어떻게 그 업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참 딱했죠. 말을 하려니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말도 잇지 못 하고 돌아 나오니까 바지가랑을 꽉 붙들고는 말씀 좀 해달라고 아주 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 딸은 과거의 당신 며느리였고, 저 아들은 과거의 당신 아들이었는데 아들 내외가 당신네들을 못살게 하고 부처님전에 가서 기도만 해도 왜 돈을 갖다 버리느냐? 쌀 한 됫박 가져가면 쌀 한 됫박을 도로 뺏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못해 부모가 먹는 양식도 아까워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쫓기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 업보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느냐. 그 업보를 받을 때 내가 꼭 지켜보리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 당신이 끝끝내 지켜봐야 되지 않겠소?" 하더랍니다.

그러니 지켜보는 그 업보나 당하는 그 업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들 조심하시라 이겁니다. 말 한마디, 이게 가르치는 방편으로 인해서 그냥 말하는 것하고 속에서 응어리가 되어 나오는 말 한마디 뱉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당장 업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 식구가 잘못되면 온 가족이 편안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아니, 자식이 나가서 잘못되면 아이구! 그러한 괴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겨서 안 들어오거나 또 어떻게 잘못 일을 저질렀다거나 그런다면 "요놈의 새끼, 나가서 깡통이나 차거라. 이놈의 새끼야, 배울 때도 시기가 있는 건데 배우지도 않고 너는 기껏해야 그저 노동이나 하고 그래야 좋겠느냐. 너는 꼭 그렇게밖에는 못 될 게다." 하면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막 말을 한다면 십중팔구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생활과학, 조금도 틀림없는 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누리가 없는 훌륭한 법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내라고 생각해서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자기가 각자 해 나갈 수 있는 자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진 못할지언정, 일체를 맡겨놓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은 내가 못났을 때, 잘못했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미약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어렸을 때의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즉 말하자면 훌륭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니까 그게 어디 갈 나오? 초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자기 모자랐을 때의 모습으로 보면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니 분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싫다는 것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식이 부모 뜻과 반대로 나가는 거, 부모가 보기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이 서면 이런 것도 잘 돌려서 잘 되게끔 해줘야죠. 이 부처님 법이라는 게 잘 돌려서 잘 살게끔 해주는 것이 부처님 원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건 옳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틀리다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모가 나죠. 그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 나간다 하더라도, '어! 내가 잘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지 그게 아니다.' 하고 주인공에다 맡겨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이것이 옳다 그르다 밉다 곱다 해서 판단을 자꾸 한다면, 남편도 아내 일에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하고 아내도 남편 일에 잘한다 못한다 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잘못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이 바쁜데,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을 놓고 맡기고 가는 것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걱정을 합니다. 또 남의 참견까지 하죠. 남의 말 하는 것 듣고 온통 참견을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어! 네가 죽인다고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고 놔 버려야 할 텐데, 모두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면서 미워하고 이혼을 해서 자식들도 다 팽개치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시집보내거나 장가보내는데 당사자들은 서로 뜻이 맞는데 부모가 맞지 않다고 강요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한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럽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몸 빌려 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끌간 데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지, 각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머리가 커지면 그저 태양이 아버지가 되고 산하대지는 어머니가 되고 그래서 양면이 다 키워줄 뿐이지, 키워서 또 그 대에 가면 또 그렇게 키워줄 뿐이고 또 그 대에 가서 또 그렇게 키워줄 뿐이지, 아니 종시 내 자식이 어디 있고, 종시 내 부모가 어디 있고, 종시 내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그만 물에서 노는 고기들의 생각은 컵 안으로만 생각하지 좀더 바깥으로 넓게 나가서 바다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법은 생동력 있고, 바로 반작용을 한데 모아서 작용을 하는 그런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그 에너지를 광대하게 쓰라는 그러한 이치였지, '죽어서 천당에 가거라, 죽어서 승천하거라.' 이러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죽는다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른다면은 물질에 그냥 관습에 의해서 아주 이 창살 없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죽었던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대(四大)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나 그 마음은 그대로 내 몸이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살아있는 줄 알아요, 의식이.

그러니까 인과로 인해서 악업 선업 지은, 몸속에 있는 이 고(苦)덩어리가 내 사대가 무너지면 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확대가 돼서 일어나니까 한 발짝도 딛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뱅뱅뱅 돌죠. 그런데다가 그 의식은 다 내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쩌다 내 몸뚱이에 있는 그 악업 · 선업이 확대돼서 보이고 그러는 거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내 모습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있는 줄 알고 나라는 걸 놓지 못해서 나라는 데 항상 끄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도 강에 빠져죽을까봐, 배 올 때를 기다리고 영혼들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모습이 없는 줄만 알았더라면 한생각 끄떡하면은 건너갈 것을, 물에 빠져죽을까봐 못 건너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천도가 생긴 거고 시주가 생긴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어떻게 또 물은 건너갔다고 합시다. 지금 이 우주 전체의 그 불바퀴 소용돌이가 있듯이, 전체 소용돌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전체의 소용돌이를 넘어서야만이 영원한 밝음을 얻을 텐데, 뜨거워서 타죽을까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모르면 첫째 내 몸속에 있는 고덩어리가 그림자처럼 헤아릴 수 없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자기의 그 환상으로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그러니 그 환상이 나타나면 귀신으로 보일 거고, 또 온통 그냥 인연에 따라서 나타날 거고, 사람의 인연 따라서 모습이 나타나고, 모든 억겁을 거쳐오면서 그 짐승들의 인연에 따라서 나타날 거고, 또 곤충의 인연에 따라서 나타날 거고, 그 쌓이고 쌓였던 고 덩어리가 그냥 한꺼번에 그림자처럼 나타나니까, 그거 일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 덩어리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거기다 다시 되놓는다면, 자꾸 나오는 데다가 입력을 다시 해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놓지 않는다면 그런 맛도 모르고, 이 모든 게 무너져서 참 현실에 좋은 생각으로 입력을 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도리를 체험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 단계는 '내가 나라는 아집을 벗어버려라. 나라는 게 있다면 강물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 강도 건너가지 못한다. 또 불바퀴를 넘어선다 하는 것은 내가 깨우쳤다고 하더라도 깨우쳤다는 말을 하지 말라. 깨우쳤다는 말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깨우쳤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내가 있었다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 내가 말했다는 생각, 내가 가르쳤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아예 놔라. 그럼으로써 응당 불바퀴가 불바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에너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 단계 이 단계 삼 단계를 넘어설 때엔 바로, 일 단계 이 단계 이렇게 얘기했다고 '일 단계는…, 이 단계는….'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사시면서 어떤 것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그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속에 맡겨 놓고 '한마음!' 이러면 모든 고(苦)의 의식들이 전부 한데 합쳐지는 그런 뭉침입니다, '한마음!' 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자꾸 부탁을 해야 할 텐데, 그 부탁이 한두 건이라야 부탁을 하죠. 그러니깐 아예 동시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한마음! 동시에 묶어버린 동시에 그 한마음으로서 중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은 거기서 나왔으니까 안되는 것도 거기서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왜 되는 것도 금방 거기서 한순간에 될 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우리네 인간들이 가져가는 속도보다 시공이 없는 속도가 아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작용하는 마음에 놓고 거기 맡기면 안되었던 것도 순간에 되돌아오는 것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이해가갑니까? 아리송합니까? 어리둥절합니까?

나는 힘들여서 이렇게 말을 안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자식들이 반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반대로 나가는 것이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생각으로는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 생각에 따라주는 것이 바로 자비이자 부모인 것입니다. '요렇게 나가니까 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하여 부모 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죽는다 산다는 것도 떠나버리십시오. 그렇게 떠나게 되면 모두가 한 에너지가 되고 한 주인공이 되고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그저 한 전력이 동시에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다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편안하자면 자식도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편안하게 돼야 나도 편안하죠. 자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잘되려고 나 편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잘못되게 나가는 것 같지만, 부모가 '아, 그것도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일이니까 예측 못하는 일이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된 것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넣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이 세상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듯이 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이렇게 돌아간다면 전세계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가져오려면 울그락 불그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작용은 어떠한 물질이나 무정물이나 작든지 크든지 절대적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바깥으로 빌고 여기서 빌고 저기서 빌고 여기다 놓고 빌고 저기다 놓고 빌어서 잘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마음 하면 일체제불의 마음도 한마음이요, 인과응보로 또는 유전성, 영계성으로 인해서 모인 인연들도 다 풀리는 것입니다. 즉,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어느 집엘 들어갔는데 아주 좋은 집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내일 아침에 끼니가 없고 애들 학교 보낼 여비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렇게 좋은 집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집의 다락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가져갈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집인데! 그리고 세간살이도 돈 될 게 없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락에서 얘기 소릴 들어보니까 "어휴! 집도 이제 팔릴 것 같은데 우린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가 애들에게 하는 말이 "내일 아침 끼니꺼리도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가 저렇게 아파서 오늘 하루도 일을 허탕쳤으니 어쩌면 좋으냐." 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도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딴 데서 훔친 것을 다락문을 조금 열고 "이것 먹어라!" 하고 화다닥 넣어주고 그냥 갸버렸는데 그 집 사람들은 무슨 영문일 줄 모르고 돈 보따리가 다락에서 나오니까 아파서 누웠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도깨비 같기도 해서 문을 활짝 열고 나가보니 유리창을 깨뜨리고 벌써 나갔더랍니다. 그러니 그 집 사람들한테는 그 강도를 생각할 때에 강도이기 이전에 자기들한테는 은인인 것입니다. 전세라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강도라도 하지만 자기들에겐 은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도도 강도 짓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하다가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결국은 어떻게 살거냐 하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밉다 곱다를 떠나서, 또는 자식이 잘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또 자식들 장가들이고 시집보내면서 부모들이 강요하여 자식들 마음을 전부 버려놓아 그르치게 만들거나 또 죽게 만들거나 병들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법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지 말며
아무렇게나 그냥 판단하지 말고
안으로 놓고 굴려서 다시 활용해야

순간순간 바뀌지는 일이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므로
잘못된 것도 잘될 수 있어요

가벼른 언덕을 넘듯, 그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다양한 여름캠프, 어디로 갈까?

부다피아, 파라미타 국제캠프 등 다양

직접 참여로 학습 · 정서함양에 도움

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왔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어느 캠프에 가볼까? 그동안의 청소년 캠프들이 보여주는 행사였다면 올해는 직접 참여해 재미를 느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 주관으로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자연속에서 부처님을~'이란 주제로 7월 22일일부터 7월 24일까지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백덕산 관음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극기훈련, 적멸보궁 참배, 담임샘과 물놀이, 신나는 미니 올림픽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는 7월 22일~25일까지 3박 4일간 고성 알프스리조트에서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찬 세상!'이란 주제로 제6회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 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국제캠프는 경기도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우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청소년 등이 참석해 골프, 잔디썰매, 리프트 타기, 수영, 하이킹 등 야외 활동과 건봉사 참배, 탱화그리기 등 신행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도 7월 28일~30일까지 목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03 청소년 리더십아카데미 캠프를 개최한다.

그 외에도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산내연수원에서 'VIYA 연합캠프'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는 8월 8일~11일 강화도 일대에서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역사의 섬 강화도 역사체험' 행사를 펼친다.

한편 송광사, 마곡사, 관음사, 소림사, 구룡사, 봉은사 등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개최된다. 조계종 포교원이 운영하는 신행정보센터(http://info.ibuddhism.org)에 접속하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수련법회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신행정보를 자세하게 볼수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청소년 여름 캠프

단 체	일 정	캠프이름	문의전화
현대불교신문사	7월 22일~24일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02)738-7860
파라미타청소년협회	7월 22일~25일	제6회 파라미타 청소년 국제 캠프	(02)723-6165
비로자나청소년협회	7월 27일~30일	VIYA 연합캠프	(02)942-0635
청소년교화연합회	7월 28일~30일	2003 청소년 리더십아카데미 캠프	(02)735-8165
대흥사	7월 29일~31일	어린이 숲속마을	(061)534-8877
대한불교진각종	1차: 7월 23~25일 2차: 7월 30~8월 1일	진기 57년 여름 자성학교 연합 캠프	(02)913-0751
양정청소년수련관	7월 29일~31일	제4회 영상창작 캠프	(051)868-0750
우리는 선우	8월 8일~11일	강화도 역사체험	(02)2278-8672
디지털열린상담실	8월 15~17일	기차로 떠나는 물놀이 여행	(043)257-0807

■ 어린이 여름 캠프

단 체	일 정	문의전화	단 체	일 정	문의전화
청암사	7월 19일~20일	(054)437-0038	봉은사	7월 25일~27일	(02)3218-4815
진관사	7월 19일~21일	(02)359-8410	범어사	7월 25일~27일	(051)508-3122
신흥사(화성)	7월 23일~25일	(031)357-2695	관음사	7월 25일~27일	(064)722-2829
선덕사	7월 23일~25일	(062)263-4660	송광사	8월 1일~3일	(061)755-0107
소림사	7월 24일~26일	(02)394-2145	마곡사	8월 1일~3일	(041)841-6221
구룡사	7월 25일~27일	(02)575-7766	통도사	8월 7일~9일	(055)382-7182

대불련 40년, 동문 찾기 캠페인

탐방 :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공동주관: 대불련 총동문회 · 대불련 · 현대불교신문사



◇'젊은 붓다들의 화이팅' 지난 6월 30일 동국대 불교학생회원들이 학생회관 법당에서 대불련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훈, 김진호, 남궁현 회장, 류인선 부회장, 고원일, 이동윤 법우)

'사는게 싱겁니?' 동불회가 있잖아

쉽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차법회 열어

'목탁 배우기' 등 통해

참여 범위 넓혀

"사는 게 싱겁니?"

동국대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실. 앳된 얼굴의 동자승 포스터 문구가 시선을 잡아당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올해 초 침체일로에 있는 전국 지회의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안한 홍보물이다.

"어서 오세요. 동국인들의 사랑방입니다. 어서 앉으세요. 찬 한 잔 드셔야죠."

올해부터 '차 법회'를 시작했다는 류인선 부회장(행정학과 · 00학번)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재밌고 유익한 법회 방법은 없을까 고민 꽤나 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차 법회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법우들이 스스럼없이 고민을 털어놓고 신행상담도 이뤄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생회의 특징은 행사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모든 행사는 학생회원들만의 잔치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지난해 9~10월 열린 '동국인 불교 느끼기' 행사가 대표적인 예. 동대 불교학생회는 세 차례에 걸쳐 '목탁배우기 강좌'를 개설하는 한편 <만행>의 저자인 현각 스님 초청 강연회, 동 · 하계 수련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70년대부터는 선 · 후배간의 교류를 위한 '동문 초청 등 만들기' 행사를 매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 62년 창립이후 줄곧 동문들을 잇는 끈처럼 작용, 오늘날 '동불인(東佛人)'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면 불교대학에 재학 중인 성진 스님의 집전으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아침 · 저녁에는 회장의 집전으로 예불을 모시고 있다.

남궁 현(전자과 · 98학번) 불교학생회장은 "향냄새가 가시지 않는 동아리 방을 만들기 위한 생활 신행운동을 벌이겠다"며 "올 하반기부터 경전 공부모임도 가져 항상 정진하는 청년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동대불교학생회의 자랑스런 동문들

지난 62년 불교연구부로 출범한 동대 불교학생회는 44년간 배출한 동문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 역대 대불련 회장 40명 가운데 14명이 동대 불교학생회에서 나왔다. 이들 동문 중 학계 · 불교계 · 경제계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용부(전산과 · 64학번) 동문은 문화관광부 종무관을 거쳐 현재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으로, 7대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조용길(불교학과 · 67학번) 동문은 모교 불교학과 교수로, 이상기(경제학과 · 69학번) 동문은 현대기아차그룹의 IT계열사인 오토에버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11대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성기태(토목학과 · 70학번) 동문은 국립 충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현 대불련 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4년간 배출한 동문만 3천여명

성기태 충주대 총장 등 곳곳서 활약



◇이용부 씨 ◇조용길 씨 ◇이상기 씨 ◇성기태 씨

■ 대불련 후원회원 됩시다

불자학생들을 돕고, 대학생 포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자 및 동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참여방법: 일시 후원- 1구좌(1만원 이상) / 정기 후원- 월1구좌 자동이체

▶문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02)732-0239, 739-0913

▶계좌번호: 국민은행 023-01-0565993, 농협 053-01-252868, 조흥은행 390-01-071917 (예금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후원금 내신 분



▲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사진) 10구좌 ▲이수경 1구좌 ▲조병영 10구좌 ▲김경순 1구좌 ▲범주 스님(달마선원) 10구좌 ▲유정애 5구좌

7월 1일 현재 162구좌.

■ 총동문회로 연락주세요

밤을 지새우며 구도열정을 불태우고 전국을 누비며 수행현장을 찾았던 대불련 활동 당시의 소중한 법우나 소중한 가르침을 받았던 지도법사님. 세월의 간극을 넘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고 싶으신 분은 간단한 사연과 연락처를 담아 본지나 대불련 총동문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 중 채택된 원고는 본지에 소개될 예정이며, 본지와 총동문회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동원해 그리운 동문과 은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www.buddhanews.com

대불련 총동문회 www.daebul.or.kr

※기사넘쳐 '2003 불의 해 캠페인'과 '명작비디오 파일' 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HAMBAKJAE 함박재 가시오가피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강 훈 구 대표

함박재 농장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재배한
100% 국내산 입니다.

20년동안 국내산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함박재농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산56)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다릅니다!

■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 가시오가피
러시아,중국에서도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는 국가보호수입니다.

■ 진품을 구하기 힘든 가시오가피
미국 대체의학의 제1인자인 안드류 와일 박사는 가시오가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 최고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국내산 가시오가피
독일 뮌헨대학의 천연물연구소 소장인 바그너박사는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러시아, 중국산보다 4~6배 많음을 발표했습니다.

자매품 함박재 토종오가피
함박재농장에서 재배한 100% 국내산입니다.
1박스 100㎖ x 60포, 132,000원

2년 연속 으뜸상품 선정
한국표준협회, 으뜸상품 제3066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02) 2274-2191

미리가보는 연꽃 테마기행

전국의 연지(蓮池)에는 연화세계가 한창 펼쳐지고 있다. 이 연화법석은 8월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주말 떠나는 여행의 테마는 '연꽃'으로 잡아보는게 어떨까. 현대불교신문사가 12일과 19일 마련하는 연꽃축제 기행에 참가하면 하얀 연꽃이 수면위에 핀 장엄한 풍경을 감상하며 번잡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그윽한 연화향에 빠져볼 수 있다. 이번 기행은 연꽃사찰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와 아산 인취사를 비롯해 제1회 세계연꽃축제가 열리는 천안 상록리조트를 하루에 모두 참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자가 미리 기행코스를 따라가 봤다.



◇6천여평의 넓은 연지를 자랑하는 김제 청운사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연밭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참 좋다! 연꽃세상

번잡한 일상 벗어나 연화일체 되어 보자!



◇정갈하게 단장돼있는 청운사 경내



◇연꽃 수반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인취사



◇제1회 세계연꽃축제가 열리는 상록리조트

 # 오전 09:30-김제 청운사 백련에 눈 즐겁고 연차 · 연칼국수에 입 즐거워

서울 조계사 앞에서 3시간동안 고속도로를 달려온 버스는 참배객들을 김제 청운사에 내려 놓는다. 주지 도원 스님이 6천여평의 연밭으로 안내한다. 보는 순간 장엄하게 펼쳐진 연화세계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청운사의 연꽃은 백련이 주종을 이룬다. 특히 도원 스님이 수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해 대대적인 보급을 하고 있는 백련차(白蓮茶)는 신경안정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뜨겁게 마시거나 차갑게 마셔도 달고 향그러운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의 연꽃예찬으로 시작된 법문은 백련차 시음회로 끝을 맺는다. 평소 도원스님은 연지(蓮池) 한가운데 원두막을 만들어놓고 아침 9시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의 백련차를 정성껏 대접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하지만 왠지 오늘 점심공양은 연꽃기행이니만큼 색다르지 않을까. 역시 기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청운사 연으로 만든 연칼국수다. 푸른 색의 굵은 면발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눈과 입 모두 연꽃으로 치장을 하니 연화일체(蓮花一體)가 된 기분이다. 점심 공양 후 아산 인취사로 발길을 돌린다. (063)542-8943.

 # 오후 1시-아산 인취사 혜민스님 법문에서 묻어나는 연꽃향기

연꽃은 사찰 바로 못미처 800여평에 이르는 연못을 가득 채웠다. 푸른 연잎이 수면을 뒤덮고 있고, 연잎 위로 하얀 백련들이 둥둥 떠다니듯이 피어있다. 인취사에 연꽃이 피기 시작한 데에는 백련 보급의 원조격인 주지 혜민스님의 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간송미술관 최완수관장이 가져다준 백련 세 뿌리의 인연으로 시작된 인취사에는 백련외에도 비닐하우스에 따로 금빛의 황련을 키운다. 이 황련은 연꽃 원산지인 인도에서도 보기 어려운 귀한 꽃이다.

인취사에서는 "연꽃은 시들어 가는 여러 꽃과 달리 만개한 상태에서 비나 바람에 소리없이 진다"며 연꽃의 생태만 관찰해도 인생의 깊은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스님의 연꽃 법문이 하이라이트다. (041)542-6441.

 # 오후 4시-천안 상록리조트 350종 수련이 주는 삶의 희망

상록리조트는 주위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60만평의 대규모 레저시설이다. 입구로 들어가면 놀이기구와 수영장이 보이는데 공원 중앙에 1200개의 둥그런 수반이 즐비하게 널려 있다. 이것들이 바로 350여종의 다양한 연꽃들을 담아 놓은 항아리다. 하얀색을 비롯해 분홍, 빨강 꽃 등 각양각색이다. '혹시 향기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 코를 대보니 그윽한 꽃내음이 전해진다. 6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회 세계 연꽃축제'의 일환으로 전시되는 이번 연꽃들은 우리나라 자생연꽃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에서 들여와 재배에 성공한 수련들이다. 특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꽃 모종도 보급하며 각 가정이나 사찰에서 키울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도 해준다. 곱게 한복을 갈아입은 다도회원들이 다식과 함께 우려내는 연차를 한모금 마시니 아침부터 꽉 짜여졌던 여정에서 오는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 (041)560-9132.

글=김주일 / 사진 고영배 · 박재완기자

■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기행 코스
김제 청운사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아산 인취사
연 밭 감상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기행 일시 및 인원
7월 12일(토)오전6시 30분~오후8시. 선착순 200명
7월 19일(토)오전6시 30분~오후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 · 여행자 보험금 포함)

참가 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 당일 오전 6시까지 조계사 앞 집결

